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국가 지표체계간 위상관계 조정,  
지표 표준화, 서비스 통합 방안연구

2018. 11.

사 단 법 인 한국 삶의 질 학 회

이 연구는 사단법인 한국삶의질학회가 2018년 통계개발원 「국가 지표체계간 위상관계 조정, 지표 표준화, 서비스 통합 방안연구」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통계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통계개발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 지표체계간 위상관계 조정, 지표 표준화, 서비스 통합 방안연구」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한 준

연구책임자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삶의질학회
사회통합 공동연구자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훈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개발실장) 김월화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김영진 (주에프에스) 민규혁 (주에프에스) 이기로 (주에프에스) 정지모 (주에프에스) 곽밖음 (주에프에스)
연구보조원	하헌주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 1. 서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1.1.1. 연구 배경

- 증거기반 국정 운영 및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파악을 위해 현재 통계청에서는 다양한 통계적 지표를 작성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로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사회지표」 등이 작성되어 제공되고 있음
  - 각 지표체계들은 상이한 대상들을 측정하고자 목적하지만, 각기 상이한 배경에서 개별적으로 구축, 서비스되어 중복과 유사의 문제가 존재하며, 지표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관되거나 통합된 체계적 원칙이 부재함
  - 유사와 중복, 비일관성과 불일치 등의 문제는 각 지표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상황과 맥락, 목적에 따라 출발했고 작성되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지표체계에 대한 인식의 혼란과 신뢰의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지표의 이용 증가와 그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함
  - 증거기반 국정 운영 및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정보인 증거를 통해 논란을 불식하고 가치판단과 이해관계의 조정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 늘어나면서 증거기반 국정과 정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임
  - 현재 지표들의 서비스 방식은 대부분 공급자 혹은 제공자 중심의 방식으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 방식과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존재함
  -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현실에 대한 올바르게 정확한 사실의 제시와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간단하게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 1.1.2. 연구 목적

- 지표체계의 비교 검토 및 조정
  - 지표들의 중복과 유사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표들의 본래 작성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표들 간의 비교 검토를 통해 개념을 보다 명료히 하고 위상관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가 작성하고 통계청은 관리만 하는 「e-나라 지표」를 제외하고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대표적 지표들인 「국가주요지표」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의 비교 검토를 통해 이들 간의 개념적 구분과 위상관계의 정립을 하고자 함

-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주요지표」 간 관계 역시 명확히 하여 향후 「사회지표」 개편작업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 「녹색성장지표」는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지속가능성 관련 UN의 SDGs 계획이 구체화 되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의 관계 또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지표 제시방식의 표준화

- 지표체계의 전반적 비교 검토와 동시에 각 지표 체계마다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는 지표 항목들의 표준화가 필요함
- 지표 항목에서 표준화되어야 할 내용은 지표에 대한 설명과 통계 수치 제시방식 등 내용적 표준화 못지않게 형식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설명에 포함될지 등 형식적 표준화도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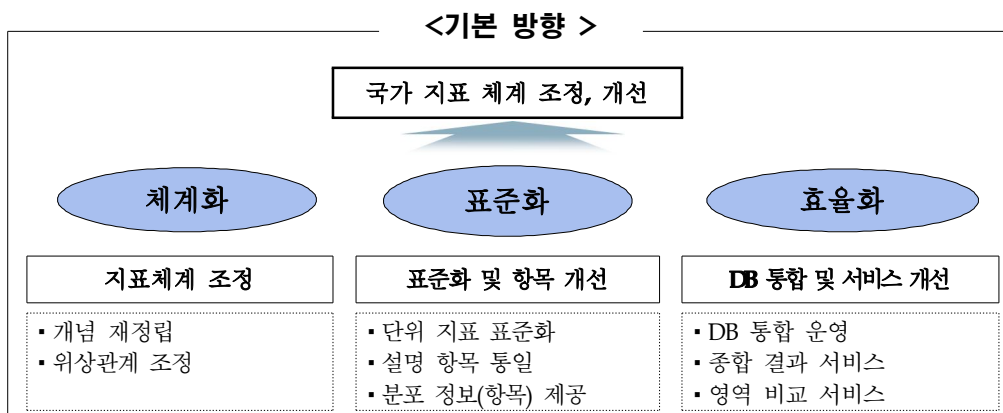
○ 지표 DB 통합 및 서비스 개선 연구

- 「한국의 사회지표」를 제외한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표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DB는 별도로 작성됨
- 지표 항목들이 상이한 것과 지표 DB의 서로 개별적인 것은 서로 관련성이 높음. 따라서 지표 업데이트 등 업무를 효율화하려면 지표 DB의 통합이 필요함
- 아울러 이용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지적되어왔던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2.1. 연구 내용

- 전체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지표체계 체계화의 우선 과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표들 중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중복과 유사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

표」의 상호 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하여 위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시에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위상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임

- 지표 작성 및 제시방식 표준화의 우선 과제는 지표체계들 간에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면서 서로 상이하게 작성, 설명되는 지표들을 찾아내어 작성 및 제시방식과 메타데이터 항목 및 설명을 표준화하고 통일함으로써 혼란을 줄이는 것임
  - 동시에 현재 대부분 지표들의 제시가 대푯값(평균, 중위값, 비율 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푯값과 분포 정보를 모두 제시할 수 있도록 지표 제시와 설명 보완
- 지표 서비스 효율화의 우선 과제는 위의 지표체계 체계화와 지표 작성 및 제시방식 표준화를 반영하여 지표를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로 구현하는 동시에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임
  - 동시에 전체 지표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종합화하는 한편, 영역간 혹은 영역내 변화를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서비스 개선

## 1.2.2.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 각 지표들의 성격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또한 통계프레임, 통계자료로부터 통계지표에 이르는 논리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표의 개발 및 작성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국제기구와 외국의 통계체계에 대한 해설서 등을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등이 각각 무엇을 측정하려 하는가와 각각의 차별성, 그리고 서로 어떤 위상과 관련성을 갖는지 연역적으로 분석

### 2) 지표간 체계비교

- 지표의 목적과 체계 논리를 서로 비교하여 이들 지표체계를 총괄할 상위의 논리적 체계를 모색하는 한편 개별 지표 차원에서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통일과 표준화시키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하는 작업 수행

### 3) 전문가 자문 및 이용자 로그 분석

-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또한 각 분야별로 사회적 현실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지표의 내용이 적절하고 현실을 잘 보여주어야 할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의 관점에서도 지나치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도록 해야함
  - 이를 위해 각 하위영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위영역별로 조사하여 자문 내용을 반영했으며, 일반 이용자들이 이들 지표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방문한 기록인 로그 파일을 분석하여 연구에 참고함

## 2. 지표체계 검토 및 위상관계 정립

### 2.1. 지표체계 작성현황

- 최근 10여년 동안 지표에 대한 일반 및 전문가들의 관심이 대단히 빠르게 증가함
  - 확산배경으로는 (1) 최근 들어 증거기반 국정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위한 현실의 객관적 증거로서 지표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확산과 함께 (2) GDP를 넘어 삶의 질이나 웰빙 혹은 지속가능성 등 대안적 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에 대한 지표를 추구하려는 노력의 증가임
-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기관에서 신규 지표의 개발과 작성 및 공표 현황
  - 통계청은 2011년 「녹색성장지표」 구축, 2012년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국가주요지표」의 2014년 구축과 2016년 개편, 2014년 「국민 삶의 질 지표」 구축, 2016년 SDGs 지표 검토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 작성하여 공표함
  - 그 결과 2017년 4월 기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내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부 기관은 32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에서 별도의 통계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10개 기관임

### 2.2. 지표체계간 위상관계 재정립

- 본 연구의 주된 검토 대상이 되는 지표는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임
  - 이들 지표들에 대해서 위상관계의 검토 및 개별 지표에 대한 검토를 모두 수행
  - 「사회지표」는 두 지표에 비해 훨씬 일찍 개발 및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지표의 수도 또한 월등하게 많으나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사회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삶의 질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됨
  -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대해서는 두 지표 간의 체계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위상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진행
  - 「녹색성장지표」는 다른 지표들과 달리 녹색성장이라는 과거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출발했지만 이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 이에 대한 검토 또한 별도 진행



<표1> 지표체계별 특징

구분	국가주요지표	국민삶의질지표	한국의사회지표	녹색성장지표	
시작	2014	2014	1979	2011	
작성목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표를 제공하여 국가 발전, 국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복리에 기여	국민 삶의 질과 사회발전에 대한 정책 기초 자료 제공	국민 삶의 질과 복지정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파악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개편시점	2016	2016	1995, 2004, 2012	2015	
핵심개념	국가발전, 삶의질, 지속가능성	삶의질, 사회의질, 주관적 웰빙	삶의질, 사회의질, 지속가능성	녹색성장	
작성주기	1년	1년	1년	2년	
지표 체계 구조	계층1	3개 부문 (경제, 사회, 환경)	12개 영역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주거 등)	11개영역 (인구, 교육, 노동, 환경 등)	5개 정책방향
	계층2	14개 영역			
	계층3	50개 하위영역		54개 하위영역	
	계층4	주요지표 103개 보조지표 81개 국제비교 96개	81개 지표	277개 지표	주요지표 22개 보조지표 19개
강조분야	사회>환경>경제	사회>환경	사회>경제	경제	
국제비교	0	x	0	x	

## 2.2.1. 지표체계 비교와 위상관계 정립

### 1)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측정의 목적 및 측정 수준, 내용에서 중복 존재
  - 「국가주요지표」가 국가 발전(progress) 및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가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측정
  - 실제로 두 지표를 조정하여 두 지표가 보완적이면서도 서로 독립적인 측정대상을 갖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측정 목적과 주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이 필요
  - 「국가주요지표」는 측정 목적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측정목적인 삶의 질 수준 측정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 의미에서 국가발전 수준 측정으로 규정 필요
  - 국가 발전은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과 안정, 사회적 측면에서 삶의 질 제고,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보장을 아우르는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여 「국가주요지표」는 「국가발전지표」로 명칭 변경 필요(향후 국가발전지표로 지칭)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현재 측정 목적인 삶의 질 수준 측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2> 「국가발전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비교

구분	국가발전지표	삶의 질 지표
측정 목적	국가발전*	삶의 질
수준(차원)	거시, 중범위**	미시, 중범위***

\*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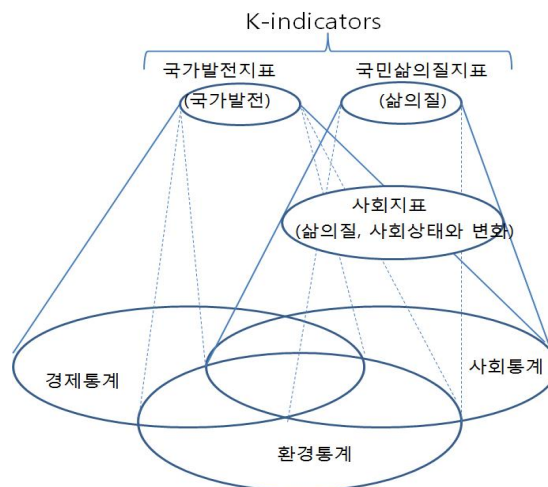
\*\* 개인의 삶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로 한정

\*\*\* 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로 한정

## 2)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 「사회지표」는 「국가발전지표」보다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더 가까움
  -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사회 부문 및 그와 교차되는 경제, 환경 부문에 속한 영역들을 중심으로 하며 주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임
  - 그러나, 두 지표체계가 독립적으로 개발, 개편되어 서로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역 구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함
  - 두 지표가 같은 기관에서 작성되어 공표되고 서비스된다면 이들 두 지표체계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는 향후 개편 과정에서 최대한 조정하여 맞추어 가야함
  - 이외에도 측정 내용이나, 지표의 수와 내용 면에서도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간에도 차이가 존재함.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서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위상관계를 설정한다면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사회지표」의 부분집합으로서 사회 전반이 아닌 삶의 질에 특화된 내용을 다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위에서 살펴본 「국가주요지표」(「국가발전지표」로 명칭 변경),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들간의 관계를 도식화해본다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1] 지표체계 간 위상관계



## 2.3. 지표체계 개선안

- 개선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평가 및 판단의 기준
  - 「국가발전지표」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기본 내용에 비추어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함
  - 「국가발전지표」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명칭을 두 지표체계에서 통일하도록 함
  - 「국가발전지표」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되 측정 방법이 다른 경우 비교 검토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일하도록 함
  - 각 영역별 통계 프레임워크 연구의 성과인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표체계들에 대해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함

## 2.4. 지표체계 관리방안

- 그동안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작성 및 관리가 이루어졌던 이들 지표들은 이제 앞으로 서로의 위상관계를 명확하게 한 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작성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표의 제시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 도메인의 설치와 관리 및 평가, 개편을 심의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필요함

### 2.4.1. 지표체계 통합 도메인(k-indicator) 구성과 헤드라인 지표 선정

- 기존의 지표들 중에서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는 「e-나라지표」와 함께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e-나라지표」가 국정모니터링지표로 구분되는 반면, 나머지 세 개의 지표들은 가치지향적 지표들로 구분되어 국가지표체계(k-indicator)를 구성함
  -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국가지표체계에서도 세 개의 지표들은 서로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서비스하는 방안으로 통합 영역 구성과 이들 모두를 망라하는 헤드라인 지표의 선정 및 제시를 생각해볼 수 있음

### 2.4.2 국가지표 검토위원회 설치 및 활용

- 본 연구에서 비교 검토한 지표체계들은 지표의 내용뿐 아닌 지표체계 관리방안도 서로 다름
  - 이들 지표체계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은 지표체계 및 지표 선정 등과 관련하여 정부부처와 기관의 요청 및 외부로부터의 문제 제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방법의 모색과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들의 개선 및 업데이트 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의

- 사결정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 ‘국가지표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안목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임

### 3. 지표 표준화 및 결과 종합

- 본 연구에서는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가 단일 서비스 체계에서 이용자의 혼란 없이 제공되도록 지표 데이터베이스(DB)를 표준화한 통합 DB를 구축하고자 함
- 통합 지표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두 지표 중 단일 지표로 통합 가능한 지표들을 선별하여 지표명과 지표 통계를 표준화하고, 현재 서로 다른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지표 DB 구성요소를 표준화한 후 표준화된 지표 DB 설계안에 따라 새롭게 지표 DB를 작성하는 일이 필요함

#### 3.1. 통합 대상 지표의 선별과 표준화

##### 3.1.1. 통합 대상 지표의 선별

-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에는 지표명은 같으나 지표 통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지표 통계는 같으나 지표명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지표 체계에 포함된 개별 지표들 가운데 통합 가능한 중복 지표들을 선별하여 표준화된 단일 지표로 만들 필요가 있음
- 통합 대상 지표는 두 지표 체계에 포함된 개별 지표들 중 지표명이 같거나, 지표명이 다르더라도 측정하는 현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들로 선별하였으며, 이 기준으로 선별한 통합 대상 지표는 총 38쌍임

##### 3.1.2. 통합 대상 지표의 표준화

- 통합 대상으로 선별된 지표들에 대해서는 지표명과 지표 통계가 단일 명칭과 단일 통계로 사용되도록 표준화함
- 지표명 표준화는 완전히 새로운 명칭으로 개칭하거나 기존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하나의 명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개별 지표의 지표 통계는 사용된 지표 통계의 출처 자료나 산출 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 단일 출처 자료나 동일 산출 방법으로 표준화하였고, 사용된 지표 통계의 출처는 같으나 통계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통계청 KOSIS 제공 수치로 단일화함
- 지표 통계와 통계 수치 모두 동일하더라도 제공되는 시계열 범위가 다르거나 소수점 자릿수가 다른 경우, 이를 동일한 범위와 자릿수로 조정함

- 통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표 통계를 재구성한 경우도 있으며, 「국가주요 지표」에는 2종의 통계를 사용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에는 「국가주요지표」의 2종 중 한 가지만 사용한 경우도 있음
- 마지막으로 신규 지표나 변경 지표가 포함된 경우 기존 지표 통계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신규 통계를 사용하여 표준화하였음

### 3.2. 표준 지표 DB의 설계

- 두 지표가 단일의 통합 지표 DB로 제공되려면 서로 상이한 지표 DB 구성 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각기 다른 배경 하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체계도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는 두 지표 체계가 단일 서비스 체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표 DB 구성요소를 새롭게 설계함
- 「국민 삶의 질 지표」 DB에는 이들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가 없기 때문에 지표 DB 구성요소의 재편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주요지표」 DB에 있는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의 재구성임
  - 이를 위해 「국가주요지표」의 보조지표를 주요지표의 하위 요소가 아닌 주요지표로부터 독립적인 DB 단위로 설계하였고, 국제비교지표는 주요지표와 보조지표의 국제비교 통계로 제공되도록 설계함.
  - 「국가주요지표」의 일부 보조지표가 「국민 삶의 질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독립 단위로 구성해야만 통합 DB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국제비교지표는 독립적인 지표 지위를 갖기보다 주요지표와 보조지표의 추가 정보 요소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두 지표 체계의 DB 구성 요소를 표준화하는 것임
  - 현재 「국가주요지표」 DB는 그래프, 통계표, 지표 정의, 해설, 보조지표와 국제비교 지표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국민 삶의 질 지표」 DB는 그래프, 통계표, 지표 정의, 해설, 측정 방법, 측정 방향, 작성 주기, 출처, 지표 의의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와 통계표, 지표 정의, 해설의 체계로 지표 DB 구성요소를 표준화함(그래프와 통계표: 해당 지표 통계와 국제비교 통계의 그림과 수치 정보를 제공, 지표 정의: 지표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측정 및 산출 방법을 제공, 해설 내용: 지표 의의, 지표 통계 해설 및 국제비교 통계 해설로 구성)

### 3.3. 통합 지표 DB의 구축

- 중복 지표의 표준화와 지표 DB 구성요소의 표준화에 이어 통합 지표 DB의 구축에 필요한 마지막 작업은 표준 지표 DB 체계에 맞게 개별 지표 DB를 재구성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일임

- 아울러 개별 지표 DB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표 DB 전용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일도 필요함

### 3.3.1. 지표 DB의 작성

- 두 지표의 통합 DB 구축을 위해 지표 DB 체계가 새롭게 설계된 만큼 새 지표 DB 체계에 맞게 개별 지표 DB를 재구성하거나 새로 작성함
  - 「국가발전지표」의 주요지표 DB는 기존의 지표 정의와 해설 내용을 수정, 보완하거나 편집하였고, 「국민 삶의 질 지표」 DB는 그래프, 통계표, 지표 정의, 해설 체계에 맞게 기존 정보를 재구성함
  - 「국가발전지표」의 보조지표 DB는 기존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재구성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작성함
  - 「국가발전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공히 신규 지표인 경우에는 지표 DB를 완전히 새로 작성함
  - 「국가발전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모두 포함되는 통합 지표들은 지표 통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지표 통계에 맞게 지표 DB 내용을 보정함

### 3.3.2. 지표 메타데이터의 작성

- 통합 지표 DB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개별 지표의 DB 구성요소 정보를 추출하여 별도의 메타데이터로 만들 필요가 있어, 이 연구에서는 표준 DB 구성요소 정보 외에 지표 통계 출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개별 지표의 메타데이터를 작성함

## 4.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의 프로토타입 구현

### 4.1.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 개요

#### 4.1.1. 통합서비스 필요성

- 현재 통계지표에 대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개발되어 각각 운영됨
  - 2006년 「e-나라지표」, 2011년 「녹색성장지표」, 2013년 「국가주요지표」, 2014년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가 구축되었으며, 「e-나라지표」와 「국가주요지표」는 개별지표를 중심으로 통계정보 및 의미분석을 제공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영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지표」는 분석보고서를 기반으로 지표정보를 제공함
- 지표체계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일반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증가시키고 지표관리 시 중복비용 발생

- 단기적으로 통계지표 서비스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 곳에서 지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혼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표체계간에 개념상 통합을 이루고 추가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4.1.2. 통합대상 및 범위

- 통합서비스를 구현하기 전에 「e-나라지표」,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의 목적에 대해 파악하여 통합대상을 선정함
  - 지표범위는 「국가주요지표」 2018년 2월 기준으로 「국가주요지표」 103개 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80개 지표, 「녹색성장지표」 2017년 보고서의 22개 지표로 정하였으며 「국가주요지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맞추어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녹색성장지표 데이터에 지표해설과 지표용어를 추가 및 가공함

### 4.2.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 방안

#### 4.2.1. 서버구성 방안

- 기존에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와 「녹색성장지표」 통합DB관리시스템이 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e-나라지표」, 「국가주요지표」와 「e-나라지표」 관리시스템이 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전산서버에 구축되어 있음
  - 「국가주요지표」 시스템 기반으로 통합서비스가 운영되므로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녹색성장지표」의 데이터만 통합전산서버로 이관하여 서비스를 구현하며, 프로토타입 구현으로 인해 관리시스템 및 영역별 서비스 등 포함하지 못한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 G클라우드 서버 운영을 유지하고 통합전산서버 위에 통합서비스를 구축함
  - 차후 모든 영역에 대해 통합이 이루어지면 IT자원 확장 및 관리가 용이한 G클라우드 서버로 서비스 이관이 필요함

#### 4.2.2. 메인화면 구성

- 시스템 민원을 기반으로 파악한 주된 사용자층은 통계관련 종사자, 연구원, 일반인 등으로 웹 서비스에 전문적이지 않은 사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였고, 다양한 정보보다 한 곳에서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기를 요구함
  - 행정기관 웹사이트로써 지속성과 가용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메인화면의 용량 및 부하를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첫 화면으로의 접근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이나 동적모듈을 최소화하고 경량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최적의 가용성을 보유한 메인화면을 구현해야함

- 이러한 의견을 모아 결과적으로 사용자 이해를 도와줄 캐치프라이즈와 최신지표 목록을 통해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표목록 메뉴를 추가하여 지표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해야함
  - 체계선택 : 국가지표체계와 「e-나라지표」를 선택하여 이동
  - 상단 메뉴 : 국가지표체계의 주요 콘텐츠를 클릭하여 이동
  - 검색 : 키워드를 입력한 후 엔터키 혹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 좌측 메뉴 : 전체지표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지표명을 클릭하여 지표정보를 확인
  - 지표안내 : 조회수를 기준으로 TOP5 지표를 보여주며 클릭시 세부정보를 안내
  - 게시판 : 최신지표와 공지사항 정보를 확인
  - 팝업존 : 주요 공지사항 등을 안내하는 영역
  - 배너 :통계청 주요 서비스를 이용
  - 하단메뉴 : 운영규정, 이용약관, 저작권정책, 사이트맵 등을 안내

### 4.2.3. 지표서비스 구성안

- 서비스는 각 지표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소개와 지표목록, 그래프목록이 있고 전체지표에 대한 최신목록과 조회 Top 목록으로 구성하며, 사용자 편의 및 시스템 알람을 위해 공지사항, 이용안내, FAQ, 묻고 답하기를 구현함
  - 전체 지표체계 혹은 각 지표체계별로 영역에 따라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지표의 이름, 최근시점, 최근 수치, 단위, 출처를 보여주는 목록형과 지표이름, 그래프를 보여주는 차트형으로 구현하며, 목록형의 경우는 페이지를 통해 다음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차트형은 더보기 방식으로 이미지 트래픽을 고려하여야함
  -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경우 영역별 지표 추세와 종합상황표가 중요시되어 기존 시스템으로의 팝업화면을 구성함
- 상세 지표정보는 그래프, 통계표, 정의, 해설, 관련 용어, 지표목록, 최근 갱신일, 입력 예정일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구성함
  - 다운로드 버튼 : 그래프를 PNG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여 다운로드
  - 확장 버튼 : 새창에서 열어 그래프를 확대된 모습으로 조회
  - 그래프 범례 : 범례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차트에 출력되는 항목을 선택
  - 지표 목록 :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를 클릭하여 통계표 등 세부 내용을 확인
- 서로 다른 지표체계를 통합하면서 중복된 지표 존재
  - 중복에는 통계수치가 같은 경우와 지표명이 같은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각 지표의 정의 및 해설 등 상세내용이 같지 않으므로 각각 다른 지표로 입력하고, 지표목록에서 하나의 지표로 표시하되 지표체계의 이름표를 표기하여 중복을 처리
  - 이름표의 우선순위는 국가지표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순을 기본으로 하여 해당 지표체계의 목록일 경우 우선순위를 가장 앞으로 변경하며, 지표 선택시 가장 우선하는 지표체계의 지표로 이동하며, 다른 지표체계의 이름표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지표체계의 중복 지표로 이동
- 통합검색은 재현율보다 정확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풀 텍스트가 아닌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검색모델을 구현하였지만, 사용자가 메타데이터의 구조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텍스트에 대해서도 검색을 수행하도록 검색모델을 구성해야함

- 서비스 특성에 맞도록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를 한번에 검색하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각 지표에 대한 키워드를 지정하여 키워드를 통한 검색도 가능하도록하며, 별도의 기능이 아닌 통합검색에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함
-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검색어 추가,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현하며, 정렬 기능을 적용하여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우선하여 노출되도록 고려
- 통합검색 : 새로운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할 때 사용
- 검색 키워드 :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를 나열, x버튼을 눌러 삭제
- 검색 키워드 추가 : 현재 검색 결과에 새로운 검색 키워드를 추가
- 검색결과 필터링 : 지표정보, 통계표, 키워드 별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
- 정렬방법 : 정확도순, 최신 업데이트순, 가나순을 선택

### 4.3. 서비스 개선 방향

#### 4.3.1.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e-나라지표」를 제외한 「국가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를 국가지표체계라는 하나의 서비스로 구현하여 「e-나라지표」 시스템 안에 4개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의 보도자료, 분석보고서 및 영역별 지표보기, 국내외 동향에 대한 콘텐츠는 국가지표체계의 기존 시스템에서 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합서비스에서 생략되어 기존의 「녹색성장지표」 시스템은 여전히 다른 서버에서 운영됨
- 지표 관리와 시스템 운영, 지표체계 개념정의 등 숙제가 남아있으며, 지표관리 시 통합시스템과 기존시스템의 중복관리로 추가비용이 발생함
- 앞으로 국가지표체계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녹색성장지표」의 통합되지 못한 콘텐츠를 추가 구현해야하며, 첨부파일, 영역별 지표, 국내외 동향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지표체계 확장성을 고려해야함
- 「국가주요지표」와 「e-나라지표」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표점검과 운영현황 기능을 통합된 지표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하며, 지표담당자 관리에 대한 정리도 필요함
- 다양한 지표체계가 하나로 통합 서비스하면서 지표체계 사이의 중복 및 유사함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와 안내기능을 강화해야 함
- 지표체계의 정확한 정의를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기능을 통해 혼동을 제거하고, 통합한 지표들에 대한 강력한 비교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통계활용도를 높여야한다.

#### 4.3.2. 서비스 이용 분석

- 국가지표체계 프로토타입으로 서비스하기위해 「국가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국

민 삶의 질 지표」가 하나의 채널로 구현되고 있으나, 향후 대국민 서비스로써 국가 지표체계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함

- 현재 서비스의 시스템 로그는 방문자수, 조회수와 같은 단순히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집계만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획하려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요구사항 정의가 필요하며, 웹 로그 분석, 웹 마이닝, 사용자 만족도 조사와 같은 이용 패턴과 사용자 의견 분석이 중요함
- 프로세스 마이닝을 고려한 시스템 로그 수집 기능과 만족도 설문조사 기능을 추가 구현해야함
- 시스템 유입 경로, 서비스 내의 이동 흐름 및 활동을 파악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메뉴에 대한 이용률 분석을 통해 비슷한 성격의 메뉴를 통합하고 전체 메뉴를 단축하여 메뉴의 이해성, 항해성, 간결성을 높이는 꾸준한 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4.3.3. G클라우드 이관

- 현재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는 「국가주요지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면서 통합전산서버에서 구현되어 운영하게 되어, 추후 대국민 서비스의 특성상 급작스러운 동시 접속자 증가나 다양한 보안공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G클라우드 서버로의 이관은 필수적임
- G클라우드에 전환하기 위해 제공되는 표준환경에 맞게 응용프로그램 변환 및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해야함

## 5. 국가지표체계 관리 및 발전방향

- 본 연구는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의 비교를 통해서 서로의 위상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립하고자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지표들 간의 위상관계를 정립하도록 제안하고자함
- 「국가주요지표」는 기존의 작성 목적인 국가발전 및 국민 삶의 질 수준 측정으로부터 국가발전의 측정으로 목적을 단일화한다. 그 결과 「국가주요지표」는 국가발전 지표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되고 또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국가주요지표」와 유사, 중복되는 지표들이 있을 경우 내용과 통계 출처, 제시방식 등에서 일치하도록 함
- 「사회지표」는 사회의 현황과 변화, 그리고 국민 삶의 질 측정이라는 목적을 유지하되, 「국민 삶의 질 지표」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한 지표로서 「국민 삶의 질 지표」와 영역 설정 및 지표 내용의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개편 과정에서 노력이 필요함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표들 간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지속되려면 국가지표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발전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통계청에서 관리 및 생산, 서비스하는 지표들은 하나의 온라인 도메인에서 제시되고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찾아 필요한 지표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편리하나, 통합적으로 서비스되는 지표들의 내용들은 각각 독립적이고 상이한 형식을 가진 DB로부터 제공될 뿐 아니라 이들의 개편과정 또한 상이하게 결정, 진행됨
  - 따라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되는 지표들의 관리 및 향후 개편을 총괄할 통합적 발전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여러 지표들을 총괄하는 관리 및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5.1. 지표 통합 도메인 구성

- 「e-나라지표」가 국정모니터링지표로 구분되는 반면,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지표들은 가치지향적 지표들로 구분되어 병렬적으로 제공
  - 이들 지표들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보완적으로 정책 입안과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표들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메타 명칭 혹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한 총괄체계의 일부가 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진행한 논리적 일관성, 체계와 형식의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한 노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통합 지표 도메인의 명칭은 K-indicator로 부를 수 있으며, 이는 통계청이 생산 및 관리하는 지표들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표체계로서 그 안에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측정하여 국가발전, 국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각각 측정하는 역할 수행

### 5.2. 지표들의 종합과 요약: 대표지표 선정

- 종합지수와 대시보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지표들을 대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 지표들을 대표하는 대표지표(headline indicator) 선정
  - 대표지표는 각 영역들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여러 지표체계들을 망라하는 대표지표들로, 다양한 영역들에 걸쳐 여러 가치를 대표하는 지표들임
  - 대표지표를 선정해서 전면에 제시하는 것과 함께 여러 지표들을 포괄하는 통합 영역의 제시 또한 도움됨(이용자들이 지표를 찾고 지표 정보를 얻는 경로가 다양한 지표체계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발전, 삶의 질,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알고 싶을 경우 해당 영역으로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
- 17개의 통합 영역
  - 경제부문(4개): 성장, 안정,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자산
  - 환경부문(3개): 생활환경, 생태환경, 기후변화와 에너지

- 사회부문(10개): 인구, 건강, 교육, 여가, 범죄와 사법정의, 안전, 가족과 가구, 사회통합, 주거와 교통, 주관적 웰빙

○ 10대 대표지표

- 경제부문: 경제성장률(국가발전지표 성장 영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국가발전지표 안정 영역), 고용률 (국가발전지표 고용과 노동 영역, 삶의질 지표에서는 실업률), 1인당 국민총소득(국가발전지표 소득, 소비, 자산 영역)
- 환경부문: 미세먼지농도(PM2.5), 온실가스 배출량
- 사회부문 : 기대수명(국가발전지표 건강 영역), 여가시간(국가발전지표 여가 영역), 1인당 주거면적(국가발전지표 주거와 교통 영역), 삶에 대한 만족도(국가발전지표 주관적 웰빙 영역, 삶의질 지표)

### 5.3. 지표 관리와 검토: 국가지표 검토위원회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 본 연구에서 비교 검토한 지표체계들은 지표의 내용뿐 아닌 지표체계 관리방안도 서로 다름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들의 개선 및 업데이트 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 ‘국가지표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국가지표 검토위원회는 해당 영역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지표체계 및 개별 지표들에 대해 제기된 내부, 외부의 문제 제기 내용을 심의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표 작성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표체계 및 지표 선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지표검토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지표 혹은 지표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시에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동시에 국가지표체계(k-indicator) 홈페이지에서 여러 지표들을 검색하고 방문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자료의 수집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의 관심있고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의견 조사와 함께 이용자들의 온라인에서의 로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지표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이나 반응을 지표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목차

<b>1. 서론</b> .....	<b>1</b>
1.1. 연구 배경과 목적 .....	1
1.1.1. 연구 배경 .....	1
1.1.2. 연구 목적 .....	3
1.2. 연구 내용과 방법 .....	4
1.2.1. 연구 내용 .....	4
1.2.2. 연구 방법 .....	6
<b>2. 지표체계 검토 및 위상관계 정립</b> .....	<b>8</b>
2.1. 지표체계 작성 현황 .....	8
2.2. 지표체계간 위상관계 재정립 .....	9
2.2.1. 「국가주요지표」 .....	9
2.2.2. 「국민 삶의 질 지표」 .....	11
2.2.3. 「사회지표」 .....	13
2.2.4. 「녹색성장지표」 .....	14
2.2.5. 지표체계 비교와 위상관계 정립 .....	16
2.3. 지표체계 개선안 .....	19
2.3.1. 경제 .....	19
2.3.2. 환경 .....	28
2.3.3. 사회 .....	35
2.4. 지표체계 관리방안 .....	47
2.4.1. 지표체계 통합 도메인(k-indicator) 구성과 헤드라인 지표 선정 .....	47
2.4.2. 국가지표 검토위원회 설치 및 활용 .....	48
<b>3. 지표 표준화 및 결과 종합</b> .....	<b>50</b>
3.1. 통합 대상 지표의 선별과 표준화 .....	50
3.1.1. 통합 대상 지표의 선별 .....	50
3.1.2. 통합 대상 지표의 표준화 .....	52
3.2. 표준 지표 DB의 설계 .....	55
3.3. 통합 지표 DB의 구축 .....	56
3.3.1. 지표 DB의 작성 .....	56

3.3.2. 지표 메타데이터의 작성 .....	57
<b>4.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의 프로토타입 구현 .....</b>	<b>58</b>
4.1.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 개요 .....	58
4.1.1. 통합서비스 필요성 .....	58
4.1.2. 통합대상 및 범위 .....	58
4.2.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 방안 .....	59
4.2.1. 서버구성 방안 .....	59
4.2.2. 메인화면 구성 .....	60
4.2.3. 지표서비스 구성안 .....	63
4.3. 서비스 개선 방안 .....	67
4.3.1.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67
4.3.2. 서비스 이용 분석 .....	68
4.3.3. G클라우드 이관 .....	68
<b>5. 국가지표체계 관리 및 발전방향 .....</b>	<b>70</b>
5.1. 지표 통합 도메인 구성 .....	71
5.2. 지표들의 종합과 요약: 대표지표 선정 .....	71
5.3. 지표 관리와 검토: 국가지표 검토위원회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	73
<b>참고문헌 .....</b>	<b>75</b>
[부록 1] 「국가발전지표」 안과 「국민 삶의 질 지표」 개편안 .....	76
[부록 2] 부문별 자문의견 요약 .....	80
[부록 3] 「국가주요지표」 시스템 로그 분석 결과 .....	84

## 표 목차

<표 2.1> 지표체계별 특징 .....	16
<표 2.2>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비교 .....	17
<표 2.3> 경제부문 「국가주요지표」 개편안 .....	24
<표 2.4> 경제부문 「국민 삶의 질 지표」 개편안 .....	28
<표 2.5> 환경부문 「국가주요지표」 개편안 .....	33
<표 2.6> 환경부문 「국민 삶의 질 지표」 개편안 .....	35
<표 2.7> 사회부문 「국가주요지표」 개편안 .....	43
<표 2.8> 사회부문 「국민 삶의 질 지표」 개편안 .....	46
<표 3.1>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통합 대상 지표 .....	51
<표 3.2> 통합 대상 지표의 명칭 및 통계 표준화 .....	53
<표 3.3>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DB 구성 요소 .....	55
<표 3.4> 「국가발전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표준 DB 구성 요소 .....	56
<표 3.5> 지표 메타데이터 항목 .....	57
<표 4.1> 지표체계 현황 (2018. 2. 기준) - 지표범위 .....	59
<표 4.2> 중복지표 목록 .....	65
<표 4.3> 지표데이터 항목비교 .....	68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범위 .....	5
[그림 2.1] 「국가주요지표」 개념틀 .....	10
[그림 2.2]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념틀 .....	11
[그림 2.3] 지표체계 간 위상관계 .....	18
[그림 4.1] 통합서비스 목표대상 선정 .....	58
[그림 4.2] 통합서비스 서버구성 .....	60
[그림 4.3] 메인화면 구성안 .....	61
[그림 4.4] 메인화면 구성안 최종 .....	62
[그림 4.5] 지표선택 메뉴 .....	63
[그림 4.6] 지표서비스 목록 .....	63
[그림 4.7] 지표상세정보 .....	64
[그림 4.8] 중복지표 표기 .....	65
[그림 4.9] 키워드 검색 .....	66



# 1. 서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1.1.1. 연구 배경

증거기반 국정 운영 및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파악을 위해 현재 통계청에서는 다양한 통계적 지표를 작성하고 제공하고 있다. 통계 지표들은 통계청에서 생산해온 각종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정책적 관심 혹은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통계수치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로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등이 작성되어 보고서 혹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밖에도 각 정부부처에서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국정모니터링 목적의 「e-나라지표」도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 배경의 첫 번째는 지표체계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공표되고 서비스됨으로써 혼란과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작성해서 공표하는 이들 각각의 지표체계들은 그때 그때의 관심에 따라 상이한 대상들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처럼 각기 상이한 배경에서 개별적으로 구축, 서비스되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지표들 간에는 중복과 유사의 문제가 존재하며, 지표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관되거나 통합된 체계적 원칙이 부재한 현실이다. 그런데 현재 통계청의 대부분의 지표들은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병렬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이들 지표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중복과 유사한 지표들이 존재할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한 지표체계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표들이 때로는 제시하는 방식이나 설명하는 내용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표체계들의 위상이나 관계가 불명료한 현실에 대해 통계 및 정책 전문가들이 그간 정부기관에서 산출하는 여러 지표체계의 중복과 유사, 비일관성에 대해 지적이나 문제 제기가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개별 지표체계의 문제가 아닌 전체 지표체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관된 위상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상관계 체계화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물론 서로 다른 지표체계들에 속한 지표들 간의 유사와 중복, 비일관성과 불일치 등의 문제는 각 지표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상황과 맥락, 목적에 따라 출발했고 작성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지표체계에 대한 인식의 혼란과 신뢰의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배경은 최근 들어 지표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표에 대한 오해나 혼란이 자칫 큰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지표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언론 보도에서 지표 수치들의 인용이 늘어

날 뿐 아니라 일반인, 학생들이 각종 지표를 통해 국가의 각종 현황들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해서 문제 제기와 의견제시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지표의 활용이 늘고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다. 특히 대중매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조작 혹은 왜곡된 사실들 이른바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늘면서 국민들의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각종 지표 생산의 목적이자 지향점인 증거기반 국정 운영 및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정보인 증거를 통해 불식하고 가치판단과 이해관계의 조정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 늘어나면서 증거기반 국정과 정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한 지표들이 서로 다른 지표 체계 속에서 서로 다른 자료들로부터 다른 값을 갖고 제시된다면 이용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표를 근거로 주장을 함으로써 논의가 수렴되기보다는 서로 엇갈리고 증거기반 정책의 지향점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배경은 현재 지표들의 작성 및 제공과 서비스 방식이 대부분 공급자 혹은 제공자 중심의 방식으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표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식과 판단에 의거해서 체계가 만들어지고 지표 작성의 통계가 선별되며, 그에 대한 해석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한다. 또한 지표들이 제공되고 서비스되는 온라인 홈페이지도 전문가들의 관심을 반영해서 구성되고 결과 및 그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국민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알고자 하는 바가 찾기 어렵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고 관심이 별로 높지 않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과연 이용자들의 관심과 필요에 부응해서 지표들이 작성, 제공, 서비스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지표들이 제공되는 홈페이지의 방문자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안도 도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안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방식과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지표들이 점점 더 많이 생산되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현실에 대한 올바르게 정확한 사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표들 간의 위상관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지표 작성 및 제시의 표준화된 체계에 기초해서 지표가 제공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간단하게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통계청의 지표 관련 사업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여러 지표체계들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또한 지표들이 작성되고 제시되는 방식을 표준화하여 혼란을 줄이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홈페이지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1.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지표체계의 위상 및 관계 명확화, 지표 작성 및 제시방식의 표준화, 지표 DB 통합과 서비스의 이용자 중심으로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는 통계청이 작성해서 제공하는 여러 지표체계들을 서로 비교 검토해서 이들 간의 위상관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자 한다. 현재 통계청이 작성해서 공표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지표들 예컨대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등은 대부분 해당 지표를 처음 작성할 당시의 필요에 따라 체계를 만들고 지표가 작성되어 오고 있으며 지표들 상호 간의 관점에서 비교 검토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지표들의 중복과 유사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표들의 본래 작성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표들 간의 비교 검토를 통해 개념을 보다 명료히 하고 위상관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가 작성하고 통계청은 관리만 하는 「e-나라지표」를 제외하고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대표적 지표들인 「국가주요지표」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의 비교 검토를 통해 이들 간의 개념적 구분과 위상관계의 정립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통계청에서 가장 먼저 작성을 시작해서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이후 추가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주요지표」 간의 관계 역시 명확히 하여 향후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작업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들 통계청 작성 지표 외에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지속가능성 관련 UN의 SDG 계획이 구체화되면 향후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녹색성장지표」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여러 지표들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여 공표하는 여러 지표들을 제시하는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계청에서 작성하여 공표하고 서비스하는 지표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제시 항목들과 메타데이터 작성, 그리고 설명하는 범위 등에서 제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표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다른 지표들을 이용할 때 내용과 범위가 서로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표체계의 전반적 비교 검토와 함께 각 지표 체계마다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는 지표 항목들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표준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구체화가 가능해진다.

지표 항목에서 표준화되어야 할 내용은 지표에 대한 설명 방식과 통계 수치 제시방식 등 내용적 표준화 못지않게 형식적으로 어떤 사항들 특히 메타데이터의 어떤 항목들이 설명에 포함될지 등에 관련된 형식적 표준화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에 대한 설명과 메타데이터 항목 못지 않게 지표의 제시방식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데, 기존 지표값 제시가 주로 평균 등 대푯값 제시에 한정되었다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포에 대한 정보 즉 분산이나 표준편차 등 분포 관련 정보도 추가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표 DB를 통합하고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현재 「한국의 사회지표」를 제외한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표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대해 지표값과 설명을 제공하는 DB는 각각 별도로 작성되고 있다. 이들 지표체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지표 항목들이 상이하다보니 지표 DB들 또한 서로 개별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그런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표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DB가 구축되면 각각의 지표 업데이트 등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표 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지표 DB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지표 DB를 통합할 때 앞서 본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한 지표 제시방식의 표준화 역시 그 가치와 필요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지표 DB를 통합하는 것과 함께 온라인에서 통합 DB를 활용해서 지표를 서비스하는 홈페이지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표 서비스는 주로 공급자 혹은 제공자 위주로 설계되어 이용자들의 편익을 극대화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을 반영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러 지표체계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indicator 체계로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지표들을 대표 지표(headline indicator)로 제시함으로써 지표 서비스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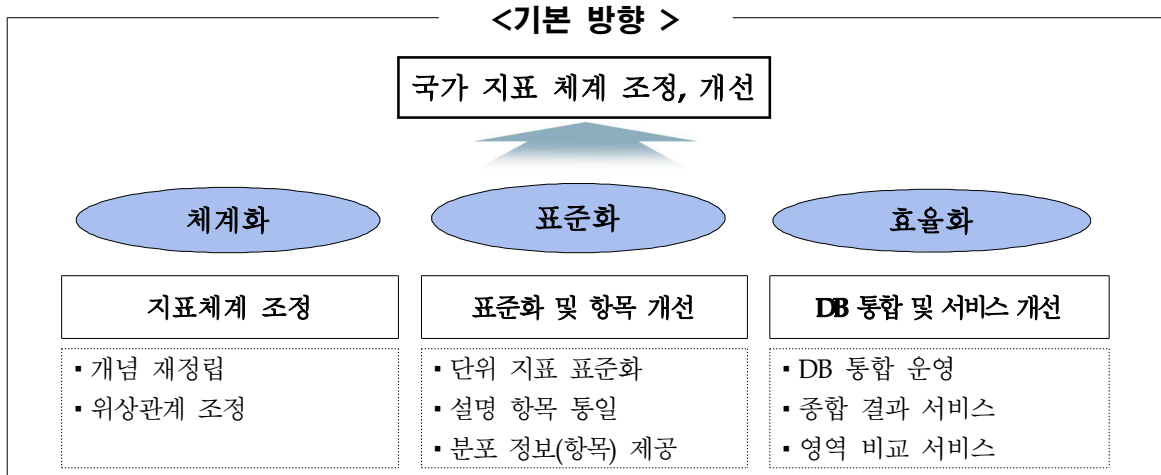
## 1.2. 연구 내용과 방법

### 1.2.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전반적 내용 및 범위는 아래 그림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지표체계의 체계화, 지표 제시의 표준화, 지표 서비스의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표체계 체계화의 우선 과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표들 중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중복과 유사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상호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하여 위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두 지표체계의 위상관계 조정을 위해 두 지표의 체계 구성의 원칙과 목적, 그리고 내용들을 비교하는 한편, 두 지표체계에 적용될 상위의 개념과 원칙 즉 지표체계를 포괄하는 통계 전반의 프레임워크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각 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각 지표체계들은 이 상위 프레임워크 속에서 그 의미와 위상이 규정되며, 그에 따라 지표체계 간의 상호관계도 새롭게 정립된다.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범위



지표체계 체계화의 다음 과제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사이의 위상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사회지표운동을 통해 높아진 배경을 고려하고 또한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비해 「한국의 사회지표」가 더 폭넓고 많은 지표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서 두 지표체계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를 「한국의 사회지표」의 핵심지표 역할을 하는 부분집합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한국의 사회지표」가 이러한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지표 작성 및 제시방식 표준화의 우선 과제는 지표체계들 간에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면서 서로 상이하게 작성, 설명되는 지표들을 찾아내어 작성 및 제시방식과 메타데이터 항목 및 설명을 표준화하고 통일함으로써 혼란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를 위해 지표체계들을 비교하여 유사 지표들이 무엇인가 찾아내고, 이들의 작성 및 설명방식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점들을 통일하고 지표 작성과 제시방식의 표준화를 도모하였다.

지표 작성 및 제시방식 표준화의 다음 과제는 현재 대부분 지표들의 제시가 대푯값(평균, 중위값, 비율 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전문가 및 일반이용자들은 대푯값 외에도 분포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값을 요구하고 있어 대푯값과 분포 정보를 모두 제시할 수 있도록 지표 제시와 설명을 보완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포 정보를 모든 지표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지표 서비스 효율화의 우선 과제는 위의 지표체계 체계화와 지표 작성 및 제시방식 표준화를 반영하여 지표를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로 구현하는 동시에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이용자 로그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체계의 분석 및 체계화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기반해서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표 표준화를 반영하여 지표 DB를 일원화함으로써 지표 업데이트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표 서비스 효율화의 다음 과제는 전체 지표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종합화

하는 한편, 영역간 혹은 영역내 변화를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특히 다양한 지표들을 k-indicator라는 단일한 체계 속에서 위치 지우고 여러 지표체계들을 망라한 대표 지표(headline indicator)를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한국 사회의 현황과 변화를 요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1.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표체계의 체계화, 지표 제시의 표준화, 지표 서비스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를 문헌연구와 지표간 체계비교,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 일반 이용자 로그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주로 지표와 관련하여 각 지표들의 성격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또한 통계프레임, 통계자료로부터 통계지표에 이르는 논리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표의 개발 및 작성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국제기구와 외국의 통계체계에 대한 해설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등이 각각 무엇을 측정하려 하는가와 서로 구별되는 점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서로 어떤 위상과 관련성을 갖는지 연역적으로 분석하였다.

#### 2) 지표간 체계비교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한국의 사회지표」는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개발, 작성되기 시작한 지표이다. 따라서 앞서 작성된 지표들에 대해서도 서로 관계 설정이나 비교 등의 작업이 개발과 작성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같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표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두 지표와 「한국의 사회지표」 모두 하위영역 구분과 지표 내용 등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상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목적과 체계 논리를 서로 비교하여 이들 지표체계를 총괄할 상위의 논리적 체계를 모색하는 한편 개별 지표 차원에서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통일과 표준화시키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3) 전문가 자문 및 이용자 로그 분석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한국의 사회지표」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로 활용되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이 한국 사회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또한 각 분야별로 사회적 현실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지표의 내용이 적절하고 현실을 잘 보여주어야 할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복잡하면 곤란하다. 따라서 전문가들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표체계의 체계화, 지표 제시의 표준화 및 서비스의 효율화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각 하위영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위영역별로 조사하여 자문 내용을 반영했으며, 일반 이용자들이 이들 지표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방문한 기록인 로그 파일을 분석하여 연구에 참고하였다. 이들 전문가 자문 내용 및 로그분석 결과는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 2. 지표체계 검토 및 위상관계 정립

### 2.1. 지표체계 작성 현황

지표체계의 체계화, 표준화, 효율화를 위한 연구에 앞서 현재 한국에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해 왔는지, 그리고 그에 부응해서 얼마나 많은 지표들이 그동안 새롭게 작성되기 시작하였는지 살펴보자.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의 도서 및 자료 목록 중 지표와 연관된 것으로 검색된 것은 7,852건이며, 그 중 86.5%(6,793건)가 2006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10여년 동안 지표에 대한 일반 및 전문가들의 관심이 대단히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연구용역에서도 지표 연구가 급증해 왔다. 정부의 공공 연구용역 결과를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PRISM)에 등재된 연구용역 보고서들 중에서 ‘지표’와 관련된 연구들은 전체 487건이며, 이들 중에서 대부분(85.4%, 416건)이 2006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지표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급증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으로는 (1) 최근 들어 증거기반 국정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위한 현실의 객관적 증거로서 지표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확산과 함께 (2) GDP를 넘어 삶의 질이나 웰빙 혹은 지속가능성 등 대안적 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에 대한 지표를 추구하려는 노력의 증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에 대한 관심의 확산과 증가에 부응하여 그동안 다양한 지표들이 새롭게 작성되어 공표되어 왔다. 특히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기관에서 신규 지표의 개발과 작성 및 공표가 빠르게 늘어 왔다. 통계청은 그간 2011년 「녹색성장지표」 구축, 2012년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 「국가주요지표」의 2014년 구축과 2016년 개편, 2014년 「국민 삶의 질 지표」 구축, 2016년 SDGs 지표 검토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 작성하여 공표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4월 기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내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부 기관은 32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에서 별도의 통계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10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에서 작성, 운영하는 통계포털사이트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비롯하여,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 통계누리(국토교통부), 산업통계포털(산업통상자원부), 환경통계포털(환경부) 등이 있다. 또한 기관 홈페이지 내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32개 기관 중 지표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절반 정도인 18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주로 해당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지표를 서비스하는 바, 식의약 주요지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경제지표(고용노동부), 식품산업주요지표(농림축산식품부), 문화지표통계(문화체육관광부), 주요산업동향지표(산업통상자원부), 주요환경지표(환경부), 임가경제지표(산림청), 중소기업경영지표(중소기업청) 등이 해당된다.



## 2.2. 지표체계간 위상관계 재정립

본 연구에서 주된 검토 대상이 되는 지표는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이다. 따라서 이들 지표들에 대해서는 위상관계의 검토 및 개별 지표에 대한 검토를 모두 수행하였다. 이들 두 지표는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고 작성이 시작되었으며 지표의 범위와 수 면에서도 「국가주요지표」가 좀더 포괄적이고 많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편이다. 반면 「사회지표」는 이들 두 지표에 비해 훨씬 일찍 개발 및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지표의 수 또한 월등하게 많은 편이다. 하지만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사회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삶의 질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대해서는 개별 지표 차원에서의 비교 검토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향후 「사회지표」에 대한 본격적 개편 작업으로 미루기로 하고, 두 지표 간의 체계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위상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녹색성장지표」는 다른 지표들과 달리 녹색성장이라는 과거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출발했지만 이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또한 별도로 진행하였다.

### 2.2.1. 「국가주요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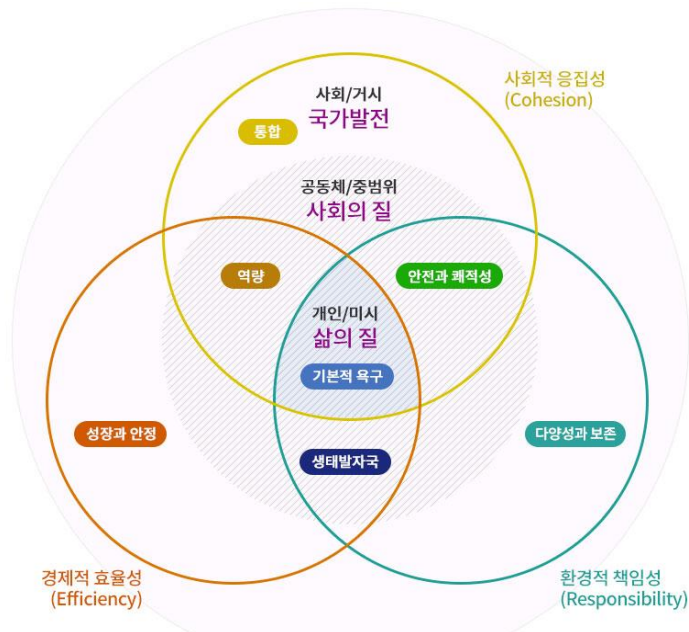
「국가주요지표」는 국가의 전반적 상황을 발전(progress)의 측면에서 요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2013년 통계청의 의뢰를 받은 (재)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연구를 통해 지표체계가 구성되었고, 2014년에 보정결과를 거쳐 최초로 지표체계가 서비스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주요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들은 경제, 사회, 환경 등 국가통계의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또한 개인의 삶의 질과 공동체(중범위)의 사회의 질 그리고 거시적 국가발전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특히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고 국가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국민의 웰빙이란 “삶의 질 차원에서의 웰빙”을 의미하고 국가발전이란 “지속가능한 발전 즉 환경의 보존이 전제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progress)”을 의미한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3: 1).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주요지표」가 측정하는 가치는 경제 통계의 물질적 생활수준 향상, 사회 통계의 웰빙 증진, 그리고 환경 통계의 지속가능성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개발 당시 「국가주요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을 망라한 1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국가주요지표」의 15개 영역은 경제 측면에서 국민계정, 재정과 금융, 산업과 생산,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였으며, 사회 측면에서 인구, 가구와 가족, 건강, 교육, 문화와 여가, 주거, 교통, 안전, 사회통합이었고, 환경 측면에서는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이 포함되었다. 16개 영역들에 걸친 지표들은 미시, 중범위(공동체), 거시 등 다층 수준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16개 영역의 아래에 62개의 하위영역에 걸쳐 주요지표 143개, 보

조지표 178개, 국제비교지표 128개로 총 449개의 지표를 포함하였다. 이들 지표는 개념적 적실성, 성과지표 중심, 비교가능성, 정책적 적합성, 변화가능성, 자료의 정확성과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되었다.

이후 「국가주요지표」는 사회와 국민의 요구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16년에 체계 개편을 연구하고 17년 4월부터 개편된 내용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때 체계 구성에서 주요한 쟁점은 “배타적 부문구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차 모델을 활용하여 부문간 중첩 영역들을 판별하고 그 이론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었다(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6: 2). 그 결과 아래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 사회, 환경이 서로 중첩되며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응집성, 환경적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어 미시적 차원에서는 삶의 질, 중범위 차원에서는 사회의 질,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국가주요지표」의 가치로 삼았다.

[그림 2.1] 「국가주요지표」 개념들



이론적으로 「국가주요지표」의 지향점을 보다 분명히 삶의 질과 국가발전으로 명확히 하는 동시에 2016년 개정 작업에서는 「국가주요지표」가 영역, 하위영역의 수가 많고 지표의 수도 과도하게 많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개정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 이외 개인 삶의 질, 사회의 질,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하고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많은 이견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2016년 개정을 통해서 경제 부문은 성장과 안정, 사회 부문은 문화와 여가, 범죄와 치안, 사회통합, 환경 부문은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이 포함되고, 경제와 사회부문의 교차 영역으로 교육,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경제와 환경부문의 교차영역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사회와 환경부문의 교차영역으로 생활환경과 오염, 그리고 경제, 사회, 환경부문의 교차영역으로 인구, 가족, 건강, 주거와 교통이 포함되어 14개 영역으로 줄었다. 하위영역과 지표의 수

역시 줄어서 하위영역은 62개에서 50개로, 주요지표는 143개에서 103개로, 보조지표는 178개에서 81개로, 그리고 국제비교지표는 128개에서 97개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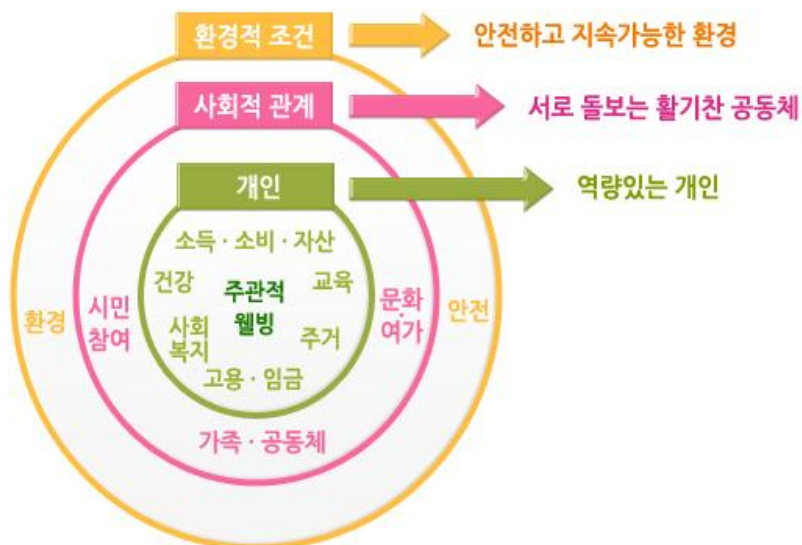
「국가주요지표」는 2013년 개발 및 작성이 시작되어 2014년 보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2016년에 체계 및 지표의 개정 작업이 다시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국가주요지표」는 매년 지표의 갱신이 이루어지지만 지표 수준에서의 검토와 개선을 하는 체계나 제도적 방안은 현재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지표의 갱신은 지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 2.2.2. 「국민 삶의 질 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로 삼고 또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2011년 통계개발원이 한국사회학회에 의뢰하여 지표체계가 개발되었다(통계개발원, 한국사회학회, 2011).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개발 과정에서는 OECD의 Better Life Index(BLI)의 기초가 된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비롯해서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PLI)와 생활개혁지수(LRI), 캐나다의 캐나다웰빙지수(CIW), 부탄의 국민행복지수(GNH), 네덜란드의 삶의 만족 지표(LSI) 등을 검토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삶의 질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011년 개발 당시의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는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미시로부터 중범위와 거시로 확대되어가는 만다라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미시, 중위, 거시의 각 수준마다 미시 수준에서는 ‘역량있는 개인’을, 중위 수준에서는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를, 거시 수준에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치로 삼아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객관적,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림 2.2]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념틀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는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여 측정하는 통계로서, 물질부문, 비물질부문을 모두 포괄하며,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 등 다층 수준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개발 당시에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에는 물질적 조건(소득, 소비 및 자산,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 주거, 복지), 교육(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성과), 건강(건강상태, 건강행위 및 환경, 보건서비스 접근성), 문화와 여가(여가시간 및 활용, 문화에 대한 인식과 활동, 사회적 여건), 가족과 공동체(가족형태, 가족관계, 가족복지, 사회적 관계, 공동체 참여), 시민사회와 민주적 참여(시민적 의무, 시민적 권리, 정치참여, 관용, 신뢰), 환경(에너지, 대기, 물, 폐기물, 기후변화, 생태서비스), 안전(사고, 범죄, 자살), 주관적 만족 등 9개 영역과 3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영역에 속한 지표의 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합쳐 114개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들 지표들은 모두 삶의 질에 대한 기여의 방향성 즉 삶의 질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들이 표시되었다. 또한 지표체계의 개발 당시 지표들은 현재 통계로서 생산되는 것과 생산되지 않는 것들이 모두 망라되었다. 이후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생산되지 않는 지표통계의 생산과정을 거쳐, 2014년 6월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었다.

「국가주요지표」와 달리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지표의 검토와 개선을 담당하는 지표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지표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논의하며,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표체계를 수정해 왔다. 이러한 지표의 검토와 개선, 수정 과정을 거쳐 현재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2개 영역에 걸쳐 80개의 지표를 포함하며, 객관적 상태 지표가 56개, 주관적 인식 지표가 24개이다. 영역이 9개로부터 12개로 늘어난 것은 물질적 조건이 소득, 소비와 자산, 고용과 임금, 주거, 사회복지의 네 영역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표의 수가 114개로부터 80개로 줄어든 것은 지표의 타당성과 생산가능성, 신뢰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를 거쳐 기준을 부합하지 못하는 지표들이 대체 혹은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지표체계의 면에서 비교해 보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가주요지표」에 비해 영역이 12개로 더 적다. 이는 「국가주요지표」에는 경제 부문에 성장과 안정이, 환경 부문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이 더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을 망라하는 「국가주요지표」와 달리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사회와 교차되는 영역에 속한 경제와 환경 부문의 영역들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 삶의 질 지표」에는 「국가주요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관적 웰빙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민 삶의 질 지표」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특화된 지표체계이기 때문이다. 「국가주요지표」에 비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주요 지표와 보조지표의 구분이 없으며, 국제비교지표 역시 없다. 또한 이는 국제비교의 경우 OECD의 BLI(Better Life Index)를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지표」는 한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2.2.3. 「사회지표」

「사회지표」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되고 작성되기 시작한 지표로서 변화하는 역사 흐름 속에서 처한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척도로 활용되어 왔다. 「사회지표」가 해외에서 처음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 1960년대 이후 사회지표 운동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명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이후 서구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과 연구, 작성과 공표가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UN의 사회통계 체계화에 대한 권고에 의해 국제기구 지원으로 KDI와 공동으로 연구조사를 거쳐 1978년 350개 지표로 지표체계 작성이 시작되었다. 작성된 지표체계 중에서 우선 작성이 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1979년 128개 지표가 작성하여 공표된 이후 1987년, 1995년, 2004년, 2012년에 각각 지표체계를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1979년 작성 당시 「사회지표」의 영역은 인구, 소득 소비, 고용 노사, 교육, 보건, 주택 환경, 사회, 문화 여가, 공간 등 9개 영역의 128개 지표였지만, 1995년 개정을 거치면서 지표 수는 290개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04년 개편을 통해 가족, 사회참여, 정보통신, 복지가 추가되어 영역 수는 9개로부터 13개 영역으로 늘어났고 지표 수는 290개로부터 501개까지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의 개편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담당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 복지 두 영역이 탈락해서 영역 인구, 가구와 가족,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사회통합의 11개 부문으로 바뀌었고, 지표 수 또한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501개로부터 278개로 줄었다.

「사회지표」의 작성 목적은 (1)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정도를 양적,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2) 현재 사회상태를 종합적, 체계적, 균형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며, (3)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 정책의 계획 수립과 정책 결정 및 효과 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지표」의 기능은 크게 (1) 국민생활의 수준 측정, (2)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3) 사회변화의 예측, (4) 사회개발 정책의 성과측정 등으로 다양하다.

「사회지표」는 작성 목적과 영역 구분의 면에서 본다면 「국가주요지표」보다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더 가깝다. 「국가주요지표」가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을 망라하는 반면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사회 부문 및 그와 교차되는 경제, 환경 부문에 속한 영역들을 중심으로 하며 주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영역들 중에서 소득 소비, 노동 영역이 경제 부문과 그리고 환경 영역이 환경 통계와 중첩됨. 하지만 이들 영역은 사회통계와의 관련 속에서 의미있는 한에서만 포함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지표」는 「국민 삶의 질 지표」와도 차이를 보이는 면이 있다. 「사회지표」가 국민생활 수준 측정,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사회변화의 예측, 사회정책의 성과측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작성된다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민 삶의 질의 측정이라는 특화된 목적을 위해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역 구성 면에서 비교하면 비슷하지만 지표의 수와 내용 면에서는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지표」가 투입·과정·성과 지표를 모두 다루면서 300개에 가까운 종합적 지표인 동시에 가치지향성이 높지 않은 반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성과지표에 초점을 맞추며 주로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라는 가치지향성을 지닌 80개의 지표들에 한정하여 포함한다.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간의 중복의 문제를 줄이고, 두 지표 간의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사회지표」의 부분집합(핵심지표)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영역간 비교 및 개별 지표 차원에서 두 지표체계 간의 위상관계와 지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2.4. 「녹색성장지표」

「녹색성장지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2009년)과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년)의 추진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체계이며, 지표체계의 특성상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내용에 맞추어 지표체계가 크게 변경되어 왔다. 「녹색성장지표」 개발 초기에는 1차 5개년 계획의 10대 정책방향에 맞추어 각 정책방향별로 3개씩 모두 30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2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새로 정립된 5대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표 프레임워크 자체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녹색성장지표」는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정책방향별로 5개씩의 지표를 선정하여(글로벌 녹색협력 강화는 2개), 모두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녹색성장지표」는 이론적 또는 개념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독자적인 지표체계라기보다는 특정한 계획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표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지표」는 경제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OECD의 녹색성장지표(Green Growth Indicators)와는 상이한 성격의 지표체계이다.<sup>1)</sup>

최근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정책동향을 살펴볼 때, 그동안 작성되어 오던 「녹색성장지표」를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녹색성장지표」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문제이다. 2015년에 9월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가 채택되었으며, 이 의제에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포함되어 있다. SDGs는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주된 목표로 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후속 의제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글로벌 이슈로 확장되고 구체화된 것이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SDGs의 이행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환경부 주도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1) OECD의 녹색성장지표는 녹색성장의 주요 특성으로 간주되는 환경·자원생산성, 자연자산, 환경질, 경제적 기회와 정책적 대응이라는 4개의 영역에 따라 구분되며, 2017년 기준으로 2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K-SDGs)를 수립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K-SDGs에는 유엔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고려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세부목표와 지표가 포함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제도적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향후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이 예전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표체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국가주요지표」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와 「K-SDGs 지표」 간의 관계 정리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녹색성장지표」와 관련해서는 「국가주요지표」나 「국민 삶의 질 지표」와의 관계 설정이 아니라 「K-SDGs 지표」와의 관계 설정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녹색성장지표」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제도적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에서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 중이다. 만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제2차 5개년 계획과 주요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맞추어 「녹색성장지표」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지표체계라면 통계청이 아니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국가주요지표」나 「국민 삶의 질 지표」 등과는 달리 「녹색성장지표」는 이론적·개념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지표체계가 아닐 뿐 아니라, 통계청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도적 필요성도 별로 없는 지표체계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지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통계청이 관리하는 지표체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검토한 네 지표 체계들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지표체계별 특징

구분	국가주요지표	국민삶의질지표	한국의사회지표	녹색성장지표	
시작	2014	2014	1979	2011	
작성목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표를 제공하여 국가 발전, 국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복리에 기여	국민 삶의 질과 사회발전에 대한 정책 기초 자료 제공	국민 삶의 질과 복지정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파악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개편시점	2016	2016	1995, 2004, 2012	2015	
핵심개념	국가발전, 삶의질, 지속가능성	삶의질, 사회의질, 주관적 웰빙	삶의질, 사회의질, 지속가능성	녹색성장	
작성주기	1년	1년	1년	2년	
지 표 체 계 구 조	계층1	3개 부문 (경제, 사회, 환경)	12개 영역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주거 등)	11개영역 (인구, 교육, 노동, 환경 등)	5개 정책방향
	계층2	14개 영역			
	계층3	50개 하위영역		54개 하위영역	
	계층4	주요지표 103개 보조지표 81개 국제비교 96개	81개 지표	277개 지표	주요지표 22개 보조지표 19개
강조분야	사회>환경>경제	사회>환경	사회>경제	경제	
국제비교	0	x	0	x	

### 2.2.5. 지표체계 비교와 위상관계 정립

앞서 살펴본 바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 「녹색성장지표」를 비교하면 우선 「녹색성장지표」의 경우 나머지 세 개의 지표와는 달리 국제 흐름 및 국내 정책방향에 따라 유동적이라서 일단 비교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나머지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 간의 비교는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위상을 각각 따져보는 것이 논의를 진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1)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측정의 목적 및 측정 수준, 내용에서 중복이 존재한다. 「국가주요지표」가 국가 발전(progress) 및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가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한다면 「국민 삶의 질 지표」의 목적은 「국가주요지표」의 목적에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로 두 지표들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두 지표가 보완적이면서도 서로 독립적인 측정대상을 갖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에 대한 인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우선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측정 목적과 주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주요지표」는 측정 목적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측정목적인 삶의 질 수준 측정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 의미에서 국가발전 수준 측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가 발전은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과 안정, 사회적 측면에서 삶의 질 제고,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보장을 아우르는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여 「국가주요지표」는 「국가발전지표」로 명칭을 바꿀 필요도 있다(향후 국가발전지표로 지칭). 또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현재 측정목적인 삶의 질 수준 측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수준에서 명칭이 바뀐 「국가발전지표」는 주로 거시적 측면 및 공동체(중시) 수준에서의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주력하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는 반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거시환경적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줄이고 미시와 중범위 즉 개인과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 영역 면에서 두 지표체계는 「국가발전지표」가 경제부문의 성장과 안정,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이 추가되어 있는 반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주관적 웰빙이 추가로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지표가 목적하는 바 국가발전과 삶의 질 측정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측정의 내용 면에서도 「국가발전지표」가 주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면,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내용을 균형있게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국가발전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비교

구분	국가발전지표	삶의 질 지표
측정 목적	국가발전*	삶의 질
수준(차원)	거시, 중범위**	미시, 중범위***

\*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의 발전

\*\* 개인의 삶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로 한정

\*\*\* 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로 한정

## 2)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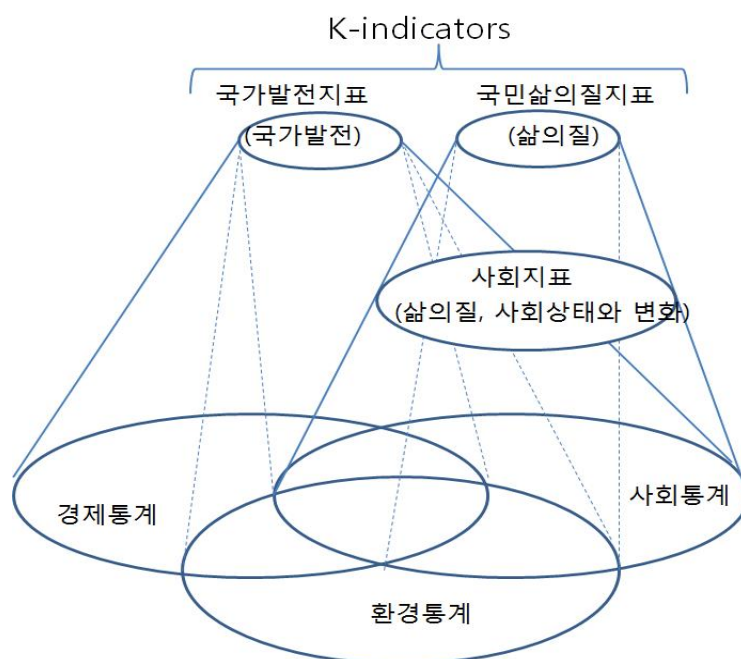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지표」는 「국가발전지표」보다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더 가깝다. 「국가발전지표」가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을 망라하는 반면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사회 부문 및 그와 교차되는 경제, 환경 부문에 속한 영역들을 중심으로 하며 주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지표」는 「국민 삶의 질 지표」와도 차이가 있다. 두 지표의 영역 구성에서 건강, 가구와 가족(「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가족과 공동체), 교육, 노동(「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고용과 임금), 소득과 소비(「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 주거와 교통(「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주거), 환경, 안전, 문화와 여

가, 사회통합(「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사회참여)은 두 지표체계 간에 일치하는 반면, 「사회지표」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는 없는 인구 영역이 추가로 있고 「국민 삶의 질 지표」에는 「사회지표」에 없는 주관적 웰빙과 사회복지가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두 지표체계가 독립적으로 개발, 개편되어 서로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지표가 같은 기관에서 작성되어 공표되고 서비스된다면 이들 두 지표체계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는 향후 개편 과정에서 최대한 조정하여 맞추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

측정 내용에서도 차이는 존재한다. 「사회지표」가 국민생활 수준 측정, 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사회변화의 예측, 사회정책의 성과측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작성된다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민 삶의 질의 측정이라는 특화된 목적을 위해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표의 수와 내용 면에서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지표」가 투입·과정·성과 지표를 모두 다루면서 300개에 가까운 종합적 지표인 동시에 가치지향성이 높지 않은 반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성과지표에 초점을 맞추며 주로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라는 가치지향성을 지닌 80개의 지표들에 한정하여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서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위상관계를 설정한다면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사회지표」의 부분집합으로서 사회 전반이 아닌 삶의 질에 특화된 내용을 다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국가주요지표」(「국가발전지표」로 명칭 변경),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들간의 관계를 도식화해본다면 다음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지표체계 간 위상관계



## 2.3. 지표체계 개선안

본 연구에서는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작성, 공표하는 지표체계들 간의 위상관계와 개념을 검토한 결과 이들 중 특히 「국가발전지표」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체계를 개선하는 안을 도출하였다. 개선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평가 및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국가발전지표」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기본 내용에 비추어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함
- 「국가발전지표」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명칭을 두 지표체계에서 통일하도록 함
- 「국가발전지표」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되 측정 방법이 다른 경우 비교 검토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일하도록 함
- 각 영역별 통계 프레임워크 연구의 성과인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표체계들에 대해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함

### 2.3.1. 경제

#### 1) 「국가발전지표」 경제부문 영역구성

「국가발전지표」 중에서 경제부문은 ‘성장’, ‘안정’, ‘고용과 노동’, ‘소득·소비·자산’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발전정도를 기존 ‘성장과안정’ 한 개 영역에서 ‘성장’영역과 ‘안정’영역 등 두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현 시점에서 관찰되는 국민경제의 생산과 소득의 개선, 그리고 성장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성장’ 영역에 포함시키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들을 ‘안정’ 영역에 포함시킨다. 개인의 경제적 삶 관점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과 노동’ 영역과 가구 단위의 소득, 소비, 자산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소득·소비·자산’ 영역 등 2개의 영역으로 구성한다.

지난 2016년 「국가주요지표」 체계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장과 안정’ 영역 내에 국민경제에 대한 이질적이고 다양한 측면의 지표들이 다수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체계에서는 영역을 더 세분화하여 ‘성장’과 ‘안정’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현행 하위영역 내에 다른 성격의 주요지표들이 존재했던 사실에 대응하여 이번 체계에서는 이러한 다른 성격의 지표들을 해당 영역 내에 새로운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성장과 안정’ 영역의 ‘소득불평등’ 하위영역은 가구간 소득불평등에 관련된 것이어서 가구경제와 관련된 ‘소

득·소비·자산'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소득과 소비' 영역은 필연적으로 가구의 '자산' 측면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OECD의 권고에 따라 '소득·소비·자산' 영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현행 총 3개 영역, 14개 하위영역, 27개 주요지표, 40개 보조지표 체계에서 총 4개 영역, 22개 하위영역, 26개 주요지표, 59개 보조지표 체계로 바뀌었다.

## 2) 「국가발전지표」 경제부문 각 영역별 개선안

### 가. '성장' 영역

하위영역으로는 '성장', '생산성', '투자', '인적자원', '기업동학', '혁신', '글로벌화' 등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체계와 다른 점은 '성장'과 '안정'의 현행 하위영역 중 '성장', '생산성', '글로벌화' 하위영역을 그대로 가져왔고 여기에 현행 '성장가능성' 하위영역을 '투자', '인적자원', '기업동학', '혁신' 하위영역으로 세분화시켰다. '성장'영역에서는 국민경제의 양적 성장을 살펴 볼 수 있고, '생산성', '투자', '인적자원'영역은 국민경제의 성장의 직접적 요인들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기업동학', '혁신', '글로벌화'영역은 경제성장의 환경적인 요소들로 구성하였다.

지표 수준의 세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투자' 하위영역에는 현행 '총고정투자율'을 주요지표로 삼았으며 'GDP 대비 고정자산비율'을 신규 보조지표로 추가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 국민대차대조표상 자본스톡을 추계하여 국가경제 차원의 고정자산이 사용가능하고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이 축적되는 현상이 관찰되므로 GDP 대비 고정자산비율이 국가의 발전 상태를 반영하는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총고정투자증가율' 보조지표는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지표가 성장보다는 경기를 반영하여 단기 변동성이 커서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개편안에는 물적자본과 관련된 '투자' 하위영역에 더하여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적자원' 하위영역을 신설하였다. '인적자원'의 주요지표로는 신규로 '교육연수'(인구의 평균교육연수)를, 보조지표로는 신규로 'GDP 대비 공교육비지출 비율'을 추가하였다. '교육연수'(인구의 평균교육연수)는 한 국가의 인적자원을 평가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이며 교육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공교육비지출 비율을 추가 고려한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도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집된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국제비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서 공교육비로 한정하였다.

신설 '기업동학' 하위영역에는 현행 '창업률'을 주요지표로, 현행 '벤처기업수'를 보조지표로 삼고 여기에 '기업소멸률'을 보조지표로 추가하였다. 기업동학의 기초는 생산성 높은 기업의 진입으로 창업이 활발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퇴출되는 기업소멸률이 높은 것이 중요하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기업소멸률을 추가하였다.

신설 ‘혁신’ 하위영역의 주요지표로는 현행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보조지표로는 현행 ‘인구 대비 특허출원수’ 를 사용하였다.

현행 ‘글로벌화’ 하위영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을 주요지표로 삼고 주요지표의 수를 줄이기 위해 현행 주요지표였던 ‘외국인직접투자비율’과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보조지표로 변경하였다.

#### 나. ‘안정’ 영역

‘안정’ 영역은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 분화시켜 신설한 영역이고 하위영역으로는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대외안정’, ‘금융안정’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체계와 다른 점은 현행 ‘성장과 안정’ 영역의 ‘건전성’ 하위영역을 ‘안정’ 영역으로 명칭변경으로 격상시켰다. 국가의 ‘안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요 요소로서 재정, 국가채무, 대외안정, 금융안정이 중요하다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그래서 우선 기존 ‘건전성’ 하위영역의 주요지표들을 격상시켜 각각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대외안정’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거시경제의 금융측면의 안정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안정’ 하위영역을 추가하였다.

지표 수준의 세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재정건전성’ 하위영역에는 현행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주요지표로, 현행 ‘국민부담률’, ‘정부지출비율’, ‘정부지출구성’ 보조지표들을 보조지표로 삼아 기존 체계와 동일하다.

신설 ‘국가채무’ 하위영역에는 현행 ‘국가채무비율’을 주요지표로, 현행 ‘일반정부부채비율’, ‘공공부문부채비율’ 보조지표를 해당 하위영역 보조지표로 삼아 기존 체계와 동일하다.

신설 ‘대외안정’ 하위영역에는 현행 보조지표였던 ‘GDP 대비 대외채무비율’을 주요지표로 삼고, 현행 주요지표였던 ‘경상수지비율’과 현행 보조지표였던 ‘외환보유액비율’, 그리고 신규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대외채무 비율’을 보조지표로 삼았다. 대외안정 측면에서는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외화유동성 측면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므로 주요지표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 ‘경상수지 비율’,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대외채무 비율’ 등은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신설 ‘금융안정’ 하위영역에는 신규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주요지표로, 신규 ‘한계가구 비율’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해당 하위영역 보조지표로 삼았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반영하며 국민경제에서 가계의 재무적 파산위험을 나타내는 ‘고위험가구 비율’ 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추가한 것이다.

#### 다. ‘고용과 노동’ 영역

하위영역으로는 ‘고용’, ‘고용형태’, ‘임금’, ‘근로조건’, ‘일만족’, ‘노사관계’ 등 6개의 하위영

역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체계와 다른 점은 현행 ‘고용’ 하위영역을 고용의 수준을 제시하는 ‘고용’과 고용의 형태별 구성을 제시하는 ‘고용형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현행 ‘근로조건’ 하위영역을 객관적 ‘근로조건’과 근로조건에 대한 주관적 ‘일만족’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현행 ‘노사관계’ 하위영역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지표 수준의 세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 하위영역에는 현행 주요지표였던 ‘고용률’을 그대로 주요지표로 삼고, 보조지표로는 현행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그리고 신규지표로 ‘장기실업률’, ‘청년실업률’, ‘중고령자 고용률’ 등을 ‘고용과노동’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에 따라 반영하여 포함시켰다. 실업자 중에서 구조적으로 실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국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인구구조변화 및 산업경쟁력 변화에 따라 청년들과 고령층의 실업 및 고용 등에 대한 지표 파악이 필요하다고 봐서 해당 보조지표를 추가하였다.

신설 ‘고용형태’ 하위영역에는 현행 ‘비임금근로자비율’과 ‘비정규직근로자비율’을 주요지표로, 현행 ‘한시적근로자비율’, ‘시간제근로자비율’ 보조지표를 해당 하위영역 보조지표로 삼았다.

현행 ‘임금’ 하위영역에는 신규로 ‘시간당 임금’을 주요지표로, 신규로 ‘월평균 임금’을 보조지표로 삼았다. 기존에 임금격차를 반영하는 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임금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표를 보완하였다. 또한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현행 ‘임금5분위배율’을 주요지표로 삼았고, 현행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 임금 비율’,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 임금 비율’,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해당 하위영역 보조지표로 삼았다. 주요지표의 수를 고려하여 현행 주요지표였던 ‘저임금근로자비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조지표로 포함시켰다.

신설 ‘근로조건’ 하위영역에는 현행 ‘근로시간’과 ‘산재사망률’ 주요지표, 그리고 현행 ‘취업자 근로시간’과 ‘산업재해율’ 보조지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고용과노동’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에 따라 ‘장시간근로자 비율’을 신규 보조지표로 추가하였다.

신설 ‘일만족’ 하위영역에는 ‘고용과노동’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에 따라 현행 ‘일자리만족도’ 지표를 주요지표로 삼고, 보조지표는 현행 ‘일자리장래성 만족도’는 삭제하고 현행 ‘임금만족도’에 신규로 ‘근로시간만족도’와 ‘일생활균형만족도’ 보조지표를 추가하였다.

#### 라. ‘소득·소비·자산’ 영역

하위영역으로는 ‘소득’, ‘자산’, ‘소비’, ‘소득불평등’, ‘물가’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체계와 다른 점은 ‘소득, 소비, 자산’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성장과 안정’ 영역의 ‘소득불평등’ 하위영역을 본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지표 수준의 세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소득’ 하위영역에서 현행 주요지표인 평균개념의 ‘가구소득’을 ‘가구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신규로 ‘가구처분가능소득’ 보조지표를 추가하였다. 평균소득에서 중위소득으

로 변경한 이유는 분포의 극단에 해당되는 표본확보가 어렵다는 측면과 소득분포가 대칭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시장소득뿐 아니라 가구가 실제 처분가능한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처분가능소득을 보조지표로 포함시켰다.

기존 '자산' 하위영역에는 신규로 '소득 대비 가구순자산 비율'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조지표로 추가하였다. 이는 '소득, 소비, 자산'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소비' 하위영역에는 가구단위의 소비지출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민간소비지출액'을 삭제하고 신규로 '가구중위소비'를 주요지표로 삼아 가구소득통계와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성장'과 '안정' 영역에서 본 영역으로 이동 배치한 '소득불평등' 하위영역에는 현행 주요지표인 '지니계수'와 현행 보조지표인 '소득5분위배율'에 더하여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신규 '노인빈곤율'을 보조지표로 추가하였다.

### 3) 「국민 삶의 질 지표」 경제부문 개선안

#### 가. 소득·소비·자산 영역 개선안

현행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소득소비자산 영역에서 다음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과 관련하여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가구소득)', '소득만족도' 등 세 개의 지표, 소비와 관련하여 '균등화 중위소비(가구소비)'와 '소비생활만족도' 등 두 개의 지표, 자산과 관련하여 '가구평균 순자산', 그리고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등 두 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개선안에는 현행 '1인당 GNI'을 '1인당 국민총소득'으로, '균등화 중위소득'을 '가구중위소득'으로, '균등화 중위소비'를 '가구중위소비'로 지표명을 변경하여 「국가발전지표」와 통일시켰다. 현행 '지니계수'는 '상대적 빈곤율' 추이와 유사한 이유로 삭제하였으며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추가하였다.

#### 나. 고용·임금 영역 개선안

현행 「국민 삶의 질 지표」 고용임금 영역에는 다음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률', '실업률', '일자리만족도' 등 세 개의 지표,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관련하여 '저임금근로자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개선안으로는 현행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명칭 변경하여 「국가발전지표」와 통일시켰다.

<표 2.3> 경제부문 「국가주요지표」 개편안

국가주요지표(현행 체계)				비고	국가발전지표(개편 체계)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성장과 안정	성장	주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주	성장	성장	
		보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GDP)	보			
	생산성	주	노동생산성 (시간당)		시간당 노동생산성	주	생산성		
		보	노동생산성지수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보			
		보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총요소생산성증가율	보			
		보	기업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보			
	성장가능성	주	총고정투자율		총고정투자율	주	투자		
		보	총고정투자증가율	삭제: 본 지표는 성장보다는 경기를 반영하여 단기 변동성이 커서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신규: 최근 국민대차대조표상 자본스톡이 제공되어 사용가능하고 국가의 발전 상태를 반영하는데 적절하여 신규 추가	고정자산 비율 (GDP 대비)	보			
				신규: 한 국가의 인적자원을 평가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표	교육연수	주	인적자원		
				신규: 교육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공교육비 지출비율 (GDP 대비)	보			
		주	창업률		창업률	주	기업동학		
		보	벤처기업수		벤처기업수	보			
				신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기업소멸률을 추가	기업소멸률	보			
		주	연구개발투자비율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GDP 대비)	주	혁신		
		보	특허출원수 (인구 100만 명당)		인구 대비 특허출원수	보			
		글로벌화	주	수출입비율 (GNI 대비)		수출입 비율 (GDP 대비)	주		글로벌화
			보	상대국별 수출비율		상대국별 수출 비율	보		
	보		상대국별 수입비율		상대국별 수입 비율	보			
	주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주->보: 주요지표의 수를 고려하여 변경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GDP 대비)	보			
	보		거주자해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거주자해외직접투자 비율 (GDP 대비)	보			
	주		공적개발원조비율 (GDP 대비)	주->보: 주요지표의 수를 고려하여 변경	공적개발원조 비율 (GDP 대비)	보			

(표 계속)



국가주요지표(현행 체계)				비고	국가발전지표(개편 체계)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건전성	주	통합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주	재정건전성	안정
		보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	보		
		보	정부지출비율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GDP 대비)	보		
		보	정부지출구성		정부지출구성	보		
		주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주	국가채무	
		보	일반정부부채비율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GDP 대비)	보		
		보	공공부문부채비율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 비율 (GDP 대비)	보		
		보	대외채무비율 (GDP 대비)	보->주: 외화유동성 측면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므로 주요지표로 판단함	대외채무 비율(GDP 대비)	주	대외안정	
		주	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주->보: 대외안정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로 판단함	경상수지 비율(GDP 대비)	보		
		보	외환보유액비율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GDP 대비)	보		
				신규	단기대외채무 비율 (외환보유액 대비)	보		
					'금융안정'은 신설 하위영역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반영하며 국민경제에서 가계의 재무적 파산위험을 나타내는 '고위험가구 비율' 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추가함	BIS자기자본 비율	주	
				고위험가구 비율	보			
				가계부채 비율(GDP 대비)	보			
고용과 노동	고용	주	고용률		고용률	주	고용	고용과 노동
		보	경제활동참가율	신규: 구조적으로 실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고용과노동'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의견 반영	경제활동참가율	보		
		보	실업률	신규: 최근 성장 및 고용증가를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고용과노동'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의견 반영	실업률	보		
				신규: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에 필요하다는 '고용과노동'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의견 반영	장기실업률	보		

(표 계속)

국가주요지표(현행 체계)				비고	국가발전지표(개편 체계)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청년실업률	보		
					중고령자 고용률	보		
		주	비임금근로자비율		비임금근로자 비율	주	고용형태	
		주	비정규직근로자비율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주		
		보	한시적근로자비율	신규: 임금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고용과노동'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의견 반영	한시적근로자 비율	보		
		보	시간제근로자비율	신규: 임금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고용과노동'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의견 반영	시간제근로자 비율	보		
	임금					시간당 임금	주	임금
						월평균 임금	보	
		주	임금5분위배율		임금5분위배율	주		
		보	여성근로자임금비율 (남성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 임금 비율 (남성근로자 대비)	보		
		보	비정규직근로자임금비율 (정규직근로자대비)	주->보: 주요지표의 수를 고려하여 변경	비정규직근로자 임금 비율(정규직근로자 대비)	보		
		보	중소기업임금비율 (대기업 대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보		
		주	저임금근로자비율	주->보: 주요지표의 수를 고려하여 변경	저임금근로자 비율	보		
		보	최저임금비율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중위임금 대비)	보		
		주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	보		
		근로조건	주	임금근로자근로시간		근로시간	주	
	보		취업자근로시간		취업자 근로시간	보		
	주		산재사망률		산재사망률	주		
	보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보		
				신규: '고용과노동'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의견 반영	장시간근로자 비율	보		
주	일자리만족도			일자리만족도	주	일만족		
보	임금만족도			임금만족도	보			
보	일자리장래성만족도		삭제: '고용과노동'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의견 반영					
		신규: '고용과노동'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의견 반영	근로시간만족도	보				

(표 계속)

국가주요지표(현행 체계)				비고	국가발전지표(개편 체계)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신규: '고용과노동'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의견 반영	일생활균형만족도	보		
	노사관계	주	노동조합조직률		노동조합조직률	주	노사관계	
		보	근로손실일수		근로손실일수	보		
소득과 소비	소득	주	국민총소득 (1인당)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주	소득	소득·소비·자산
		보	개인처분가능소득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1인당)	보		
		주	가구소득	평균 -> 중위: 분포의 극단에 해당되는 표본확보가 어렵다는 측면과 소득분포가 대칭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	가구중위소득	주		
		보	가구소득원천구성		가구소득원천구성	보		
		보	소득만족도	신규: 가구가 실제 처분가능한 소득 수준을 파악	가구처분가능소득	보		
		보	소득만족도		소득만족도	보		
	자산	주	가구순자산		가구순자산	주	자산	
		보	가계저축률		가계저축률	보		
				신규: '소득, 소비, 자산'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 의견 반영	가구순자산 비율(소득 대비)	보		
				신규: '소득, 소비, 자산'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 의견 반영	가계부채 비율(소득 대비)	보		
소비	주	민간소비지출액 (1인당)	삭제: 가구단위의 소비지출을 반영하지 못함					
			신규: 가구소득통계와 일관성 확보	가구중위소비	주	소비		
	보	민간소비지출비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율(처분가능소득 대비)	보			
	보	소비생활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보			
성장과 안정	소득불평등	주	지니계수	영역 변경: '소득, 소비, 자산'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 의견 반영	지니계수	주	소득불평등	
		보	소득5분위배율	영역 변경: '소득, 소비, 자산'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 의견 반영	소득5분위배율	보		
				신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노인빈곤율	보		
		보	상대빈곤율	영역 변경: '소득, 소비, 자산' 영역 프레임워크 보고서 의견 반영	상대적 빈곤율	보		
소득과 소비	물가	주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주	물가	
		보	생활물가상승률		생활물가상승률	보		
		보	근원인플레이션		근원인플레이션	보		

<표 2.4> 경제부문 「국민 삶의 질 지표」 개편안

현행 지표	비고	개편 지표
1인당 GNI	지표명 변경: 국가발전지표와 통일	1인당 국민총소득 (GNI)
균등화 중위소득	지표명 변경: 국가발전지표와 통일	가구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지표명 변경: 국가발전지표와 통일	가구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표명 변경: 국가발전지표와 통일	가구순자산
소득만족도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삭제: '상대적 빈곤율' 추이와 유사한 이유로 삭제 신규 지표: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가계부채 비율 (소득 대비)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지표명 변경: 국가발전지표와 통일	근로소득
고용률		고용률
실업률		실업률
저임금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근로시간		근로시간
일자리만족도		일자리만족도

### 2.3.2. 환경

현행 「국가주요지표」의 환경부문은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라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국가주요지표」 개발 시에는 환경부문이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이라는 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6년 환경부문 필요지표 진단 연구 및 지표체계 개편 작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이 추가되면서 3개 영역으로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문의 경우 2016년 지표개편 작업 과정을 통해 환경부문 필요지표 진단 연구의 제안 사항들은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간의 위상 재정립의 관점에서 환경부문 지표체계에서 추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향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에 따르면, 환경부문은 현행 총 3개 영역, 13개 하위영역, 20개 주요지표, 13개 보조지표 체계에서 총 3개 영역, 15개 하위영역, 20개 주요지표, 15개 보조지표 체계로 바뀐다.

#### 1) 「국가발전지표」 환경부문 개선안

「국가주요지표」 환경부문의 경우 기존 지표체계(영역-하위영역-지표)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하위영역의 분류와 명칭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표체계 개선안을 제시한

다.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라는 3개 영역 분류는 그대로 유지하고, 각 영역별로 기존의 하위영역 및 지표를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생활환경과 오염’ 영역에는 현재 4개의 하위영역이 있는데, 이 중 2개의 하위영역(‘폐기물과 유해물질’, ‘환경개선 노력·만족도’)은 성격이 다른 2개의 주제를 하나의 하위영역으로 묶은 것이다. 성격이 다른 주제를 하나의 하위영역으로 묶은 이유는 2013년 「국가주요지표」 개발 작업 시 영역별 하위영역 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2016년에 진행된 필요지표 진단 연구나 지표체계 개편 작업에서도 이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음). 하위영역 수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분류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이한 주제는 서로 다른 하위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기물과 유해물질’은 건강영향이나 물질관리 측면에서 특성이 상당히 다르므로 하위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환경부문 「국가주요지표」에 있는 유일한 주관지표와 관련되는 만족도 하위영역은 ‘환경개선 노력’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타 객관지표들과 별도로 분리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하위영역 명칭은 ‘환경만족도’).<sup>2)</sup> 그리고 ‘환경만족도’가 별도로 분리되면, 기존의 ‘환경개선 노력’ 하위영역 명칭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환경관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환경과 오염’ 영역에 있는 일부 지표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향상체감도’ 지표는 지표 통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환경향상체감도’는 “조사대상인구 중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문제가 1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매우 좋아졌다+약간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는 통계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사회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통계이다. 그런데 동일한 사회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좋다(매우 좋다+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되는 통계(‘체감환경만족도’)도 있다. 체감환경이 환경향상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므로(환경향상의 경우 만족도 절대수준에 대한 정보가 없음), ‘환경향상체감도’를 ‘체감환경만족도’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sup>

그 외 수질 하위영역에 있는 ‘먹는물 수질기준초과율(주요지표)’과 ‘상수도보급률(보조지표)’은 「국가주요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소규모 수도 시설의 먹는물 수질기준초과율이 0%라서, ‘먹는물 수질기준초과율’ 지표가 먹는물의 수질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상수도보급률’ 자체는 국제비교에 많이 사용되는 물환경 분야의 주요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의 상수도보급률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기에 보급률 자체를 더 높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한편 환경관리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인 ‘환경산업비율(GDP 대비)’은 「국가주요지표」로서의 의미는 명확하지만 통계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환경산업통계조사의 범위 및 대상이 조금씩 변해왔기에 시계열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환경관리 하위영

2) 「국민 삶의 질 지표」 개편과 연계해서, 주관지표인 환경만족도를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확대해서 활용하고 국가주요지표에서는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3)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체감환경만족도를 지표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체감환경만족도는 5개 환경영역을 포괄하는 지표인데, 각 환경영역을 나누어서 「국민 삶의 질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의 보조지표인 ‘환경보호지출비율(GDP 대비)’은 국제표준에 맞추어 작성되고 있는 통계여서 통계신뢰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추세 변화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경제성장 패턴을 감안하면,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 지표값이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럽 주요 선진국과 같이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된 후에는 동 지표값이 커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지표값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보호지출이 기본적으로 외부효과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 지출(defensive expenditure)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환경질(enviromental quality)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방어적 지출인 환경보호지출은 적을수록 좋다. 따라서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비율’ 지표의 수치만으로는 방향성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영역은 일부 하위영역을 통합하고 이에 맞추어 지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의 경우 분류의 차원이 다양하고 표준적인 분류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생물/무생물, 자원/비자원, 육상/해양 등 다양한 차원이 있으며, 분류 목적에 따라 분류의 주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영역은 모두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관련성이 높은 ‘농지’와 ‘산림’을 하나의 하위영역(‘육상생태’)으로 통합하는 것이 하위영역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다. ‘육상생태’와 ‘해양수산’은 각각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5번 목표(육상생태) 및 14번 목표(해양생태)와 연결된다.<sup>4)</sup>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영역의 지표와 관련해서, ‘생물다양성’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 ‘멸종위기야생생물종수’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지표는 「국가주요지표」 개발 단계에서 ‘생물다양성’ 하위영역의 주요지표로 포함되어 있다가 현행 「국가주요지표」에는 빠져 있다(‘멸종위기야생생물종수’는 현행 「e-나라지표」 중의 하나임).

한편 ‘농지’와 ‘산림’이 하나의 하위영역(‘육상생태’)으로 통합되면 해당 하위영역에 주요지표만 3개 있게 된다. 타 하위영역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육상생태 하위영역의 3개 주요지표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산지타용도전환면적’을 보조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은 기후변화 관련한 2개 하위영역과 에너지 관련한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 관련한 ‘온실가스’와 ‘자연재해’라는 하위영역은 각각 기후변화의 두 측면인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ion)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2개의 하위영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에너지의 경우 하위영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에너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분 방식이 존재한다. 에너지는 생산이나 수입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1차에너지(primary energy)와 산업, 수송, 가정, 상업 등 에너지의 최종소비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최종에너지(final energy)로 구분할 수

4) 해양수산 하위영역의 주요 지표 중의 하나인 ‘총허용어획량소진율’은 10여개 어종만을 대상으로 계산되는 수치이다(총허용어획량(TAC) 대비 어획실적. 모든 어종을 무게 단위로 단순 합산하여 계산함). 따라서 동 지표는 어획량소진율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전력 등과 같이 에너지원의 관점에서 구분할 수도 있다. 에너지 관련한 기존의 하위영역은 ‘전력의 생산과 소비’와 ‘재생가능에너지’라는 2개 범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범주화에서는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정보(1차에너지)가 포함되기 어렵다. 전력이나 재생가능에너지 모두 전체 에너지 사용의 일부일 뿐이며,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와 관련한 하위영역 및 지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1차에너지’를 별도의 하위영역으로 추가하고, 해당 하위영역의 주요지표로 ‘GDP 대비 1차에너지공급량’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지표는 「녹색성장지표」의 ‘GDP당 에너지소비량’ 지표와 동일한 지표임). ‘전력 생산과 소비’라는 하위영역의 명칭은 여타 하위영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나머지 하위영역은 모두 단일 명사로 이루어져 있음), ‘전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재생가능에너지’의 하위영역 및 지표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재생가능에너지, 신·재생가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작업이 한국사회에 적합한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일단은 국내 공식 용어인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로 통일한다.<sup>5)6)</sup>

이러한 개선안에 따라, 현행 총 3개 영역, 13개 하위영역, 20개 주요지표, 13개 보조지표 체계에서 총 3개 영역, 15개 하위영역, 19개 주요지표, 16개 보조지표 체계로 바뀌었다.

## 2) 「국민 삶의 질 지표」 환경부문 개선안

현행 「국민 삶의 질 지표」 환경영역은 모두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객관지표가 6개, 주관지표가 2개인데, 객관지표 중에는 거시적 성격이 강한 지표(예: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관지표인 ‘체감환경만족도’는 5개 환경영역(대기, 수질, 토양, 소음, 녹지)을 포괄하고 있다. 기존의 「국민 삶의 질 지표」 중에서 거시적 성격이 강한 지표들은 제외하고 주관지표를 대폭 확대하여 일반 국민의 체감도와 관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거시적 성격이 강한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재활용 비율’, ‘하수도보급률’의 3개 지표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과 ‘폐기물재활용 비율’은 거시적 성격이 강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거리가 상당히 먼 지표이다. ‘하수도보급률’은 상수도보급률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5)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표준 개념인 ‘재생에너지’를 기준으로 할지, 국내 법적·정책적 개념인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범위가 국제표준보다 넓음)를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

6) 신·재생에너지 하위영역의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비율’(주요지표)과 ‘신·재생에너지공급량’(보조지표)은 정보의 중복성이 매우 높다(재생에너지공급은 거의 대부분 발전에 사용됨). 따라서 두 지표를 통합해서 하나만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만일 두 지표를 통합한다면 국제비교 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량 비율’(1차에너지공급량 대비 재생에너지공급량 비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달해 있기에 국가발전이나 웰빙을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다.<sup>7)</sup>

에너지복지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에너지빈곤층 비율’은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동향조사 세부 데이터를 가공해서 산정하고 있는 지표이다. 나아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의나 측정 방법과 관련한 논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표에 대한 개념적 논란이 해결되고 공식 통계가 작성될 때까지, ‘에너지빈곤층 비율’은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세먼지농도’의 경우 PM10보다는 건강피해 측면에서 더 중요한 PM2.5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다만 PM2.5의 경우 2015년부터 국가 공식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했으므로, 일정 기간 이상의 시계열 정보가 필요하다면 PM10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이러한 문제는 국가주요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한편 ‘체감환경만족도’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녹지의 5개 환경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지표이다. OECD Better Life Index의 환경분야 2개 지표 중의 하나인 수질만족도는 Gallop World Poll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이 데이터는 국가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에 비해 ‘체감환경만족도’는 국내 2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를 통해 도출되는 수치로, OECD BLI 데이터보다 훨씬 더 신뢰도나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이다. 국민 체감도와 관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하나의 지표로 묶여 있던 ‘체감환경만족도’를 5개 환경영역별로 나누어 5개의 지표(대기질만족도, 수질만족도, 토양환경만족도, 소음공해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7) 상하수도와 관련한 지표 중에서 삶의 질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이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이다. 하수도보급률이 제외되고 물환경 관련한 추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면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을 「국민 삶의 질 지표」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5> 환경부문 「국가주요지표」 개편안

국가주요지표(현행 체계)				비고	국가주요지표(개편 체계)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주	미세먼지(PM2.5) 농도		미세먼지농도(PM2.5)	주	대기	생활환경과 오염	
		보	미세먼지(PM10) 농도		미세먼지농도(PM10)	보			
	수질	주	4대강 BOD 농도		4대강 BOD농도	주	수질		
		보	4대강 COD 농도		4대강 COD농도	보			
		보	4대강 TP 농도		4대강 TP농도	보			
		주	먹는물 수질기준초과율	최근 소규모 수도시설의 초과율이 0이라, 지표로서의 의미가 많 이 축소됨(보조지표로 전환 검토)	먹는물수질기준초과율	주			
		보	상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 자체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서,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성이 낮음(삭제하거나 놓여온 상수도보급률 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상수도보급률	보			
	폐기물과 유해물질	주	폐기물발생량	폐기물과 유해물질은 건강영향이나 물질관리 측면에서 특성이 상 당히 다르므로, 하위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폐기물발생량	주	폐기물		
		보	폐기물재활용률		폐기물재활용률	보			
		보	생활폐기물발생량 (1인당)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	보			
		주	화학물질배출량		화학물질배출량	주	유해물질		
		보	화학사고발생건수		화학사고발생건수	보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주	환경산업비율 (GDP 대비)	주관지표인 만족도는 환경개선 노력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하 위영역 수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GDP 대비 환경산업 비율	주	환경관리		
		보	환경보호지출비율 (GDP 대비)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보			
		주	환경향상체감도	지표 통계를 비교 체감환경에서 현재 체감환경으로 변경 필요	체감환경만족도	주	환경만족도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주	자생생물종수		자생생물종수	주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생물종수는 생물다양성 관련한 대표 지표 중의 하나임 (보조지표로 추가)	멸종위기야생생물종수	보		
		농지	주	유기농경작면적률	농지와 산림을('해양수산'과 짝을 맞추어) '육상생태'로 통합함으 로써, 하위영역 구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함. 통합된 하 위영역이 주요지표만 많이 있어서, '산지타용도전환면적'을 보조 지표로 전환	유기농경작면적률	주		육상생태
주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주			
주		산지타용도전환면적	산지타용도전환면적	보					
해양수산		주	총허용어획량소진율		총허용어획량소진율	주	해양수산		
		주	연안습지면적		연안습지면적	주			
		보	해양보호구역면적		해양보호구역면적	보			
수자원		주	물사용량 (1인당)		1인당 물사용량	주	수자원		
		보	취수율		취수율	보			
	주	상수도누수율		상수도누수율	보				

(표 계속)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주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	주	온실가스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연재해	주	자연재해피해액		자연재해피해액	주	자연재해	
		보	자연재해발생횟수		자연재해발생횟수	보		
				전력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 사용 관련 지표는 매우 중요한 지표임(총량, GDP 대비, 1인당 모두 유의미한 정보임)	GDP 대비 1차에너지공급량	주	1차에너지	
	전력 생산과 소비	주	전력소비량 (1인당)	여타 하위영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하위영역 명칭을 단일 명사인 '전력'으로 수정	1인당 전력소비량	주	전력	
		주	석탄화력발전비율		석탄화력발전 비율	주		
		보	사용후핵연료발생량		사용후핵연료발생량	보		
	재생가능 에너지	주	신·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비율	국내 공식 용어인 '신·재생에너지'로 명칭 통일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전력생산에 사용되므로, 두 지표는 중복성이 매우 높음)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비율	주	신·재생에너지	
		보	신·재생에너지공급량		신·재생에너지공급량	보		

<표 2.6> 환경부문 「국민 삶의 질 지표」 개편안

현행 지표	비고	개편 지표
기후변화불안도	유지	기후변화불안도
미세먼지농도(PM10)	국가주요지표와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PM2.5 농도 시계열 정보에 문제가 없다면 PM2.5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미세먼지농도(PM2.5)
에너지빈곤층 비율	개념적으로 논란이 있으면서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지표이므로, 당분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체감환경만족도	5개 영역별로 나누어 5개 지표로 변경	대기질만족도 수질만족도 토양환경만족도 소음공해만족도 녹지환경만족도
폐기물재활용 비율	삶의 질과 거리가 먼 거시적 성격이 강한 지표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
하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기에 국가발전이나 웰빙을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물 관련 지표가 필요하다면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로 대체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 낮고 거시적 성격이 강한 지표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
1인당 도시공원면적	유지	1인당 도시공원면적

### 2.3.3. 사회

#### 1) 「국가발전지표」 사회부문 영역구성

「국가발전지표」의 사회 부문은 ‘인구’, ‘가족’, ‘건강’, ‘교육’, ‘여가’, ‘주거와 교통’, ‘범죄와 사법정의’, ‘사회통합’, ‘주관적 웰빙’ 등 9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2013년 「국가주요지표」가 처음으로 개발할 당시에는 ‘인구’, ‘가구와 가족’, ‘건강’, ‘교육’, ‘문화와 여가’, ‘주거’, ‘교통’, ‘안전’, ‘사회통합’ 등 9개 영역으로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2016년 개편 연구에서 과거 ‘가구와 가족’을 ‘가족’으로 명칭을 간단히 하고, ‘주거’와 ‘교통’을 ‘주거와 교통’으로 합치며, ‘안전’ 영역을 나누어 ‘재해’ 부분은 ‘기후변화’로 또한 ‘교통사고’ 부분은 ‘주거와 교통’으로 이동한 뒤 남은 부분을 ‘범죄와 치안’으로 명칭 변경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역 구분의 변경에 추가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영역별 프레임워크 연구들에서의 제안을 수용하여 ‘문화와 여가’를 ‘여가’로, ‘범죄와 치안’을 ‘범죄와 사법정의’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안에 따라, 현행 총 8개 영역, 24개 하위영역, 56개 주요지표, 28개 보조지표 체계에서 총 9개 영역, 23개 하위영역, 48개 주요지표, 32개 보조지표 체계로 바뀌었다.

## 2) 「국가발전지표」 사회부문 각 영역별 개선안<sup>8)</sup>

### 가. '인구' 영역

인구 영역은 「국민 삶의 질 지표」에는 해당 영역이 없으며, 「국가발전지표」에만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국가발전지표」의 '인구' 영역은 다시 '인구변화'와 '인구구조'의 두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인구' 영역에 대한 통계 프레임워크 연구는 2016년 제안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제안사항이 이미 2016년 개편에서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편에서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하위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지표의 변화가 있다.

'인구변화'에서는 '인구성장률'을 주요지표로 하고, '총인구', '합계출산율'과 '조사망률', '체류외국인수'를 보조지표로 그대로 유지한다<sup>9)</sup>.

'인구구조'에서는 '부양인구비' 주요지표로 유지하고, '고령화지수'를 보조지표로서 유지한다.

### 나. '가족' 영역

'가족' 영역은 「국가주요지표」에서는 '가족'으로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가족·공동체'로 명칭이 다르며 또한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국가주요지표」의 '사회통합' 영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영역 구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 영역의 통계 프레임워크 연구보고서는 2015년에 작성되어 2016년 주요지표 개편에 제안 내용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안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가족' 영역의 하위영역으로는 현행의 '가구형성'과 '가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각 하위영역별로 지표 수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가구형성'에서는 '가구원수'와 '혼인율'을 주요지표로 하되 '혼인율'을 '조혼인율'로 명칭을 바꾸고, '1인가구 비율', '이혼율'을 보조지표로 유지하되 '이혼율'을 '조이혼율'로 명칭을 바꾼다.

'가족관계'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와 '가사노동시간', '독거노인 비율'의 세 지표를 주요지표로 설정한다. 반면 보조지표로 현행 지표체계에 포함되었던 '영아어린이집이용률'은 삭제하도록 한다. 이는 가족관계와의 내용적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8) 전문가 자문에서 국가발전지표에서 주관적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삭제하자는 제안이 있으나 발전의 의미 속에는 삶의 질도 포함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9) 전문가 자문에서 체류외국인수를 출입국가 수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그 의미가 국내 외국인 수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 다. '건강' 영역

'건강' 영역의 「국가발전지표」는 '건강상태', '건강행태', '보건의료서비스' 등 세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하위영역 구분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건강' 영역의 통계 프레임워크 연구보고서는 2016년에 발간되어 「국가주요지표」 개편과 함께 연구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워크 연구보고서의 「국가주요지표」에 대한 제안들을 고려하였다.

세 하위영역별로 주된 변화는 다음과 같다.

'건강상태' 하위영역에서는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경험률' 등 세 주요지표를 주요지표로 유지하고, '건강수명'을 보조지표로 그대로 유지한다.

'건강행태' 하위영역에서는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의 세 주요지표들을 모두 유지하되, '흡연율'은 '현재흡연율'로 '폭음율'은 '월간폭음률'로 명칭을 바꾼다. '신체활동실천율'은 보조지표로 그대로 유지한다.

'보건의료서비스' 하위영역에서는 '의료기관 방문횟수', '암생존율', '경상의료비 비율' 등 세 주요지표들을 주요지표로 유지하되,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1인당 의료기관방문횟수'로 명칭을 바꾼다. '의사수 (인구 1,000명당)'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로 명칭을 바꾸어 보조지표로 유지하고 프레임워크 연구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의료서비스만족도'를 보조지표로 추가한다.

## 라. '교육' 영역

'교육' 영역은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모두 '교육'으로 명칭이 동일하지만, 통계 프레임워크 연구에서는 '교육과 훈련'으로 영역 명칭이 바뀌었다. 이 영역의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연구보고서는 2017년 발간되어 2016년 「국가주요지표」 개편 이후의 연구이며, 따라서 지표 관련 제안 내용을 참고하였다.

'교육' 영역의 하위영역은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효과'의 세 하위영역으로 나누고, 각 하위영역별 주된 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교육기회' 하위영역에서는 '공교육비 비율(GDP 대비)', '사교육비(1인당)', '취학률'의 세 주요지표 들을 유지하되 '공교육비'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로 내용과 명칭을 바꾸고,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로 명칭을 바꾼다. 또한 보조지표인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많지 않아서 삭제한다.

'교육과정' 하위영역에서는 '학생수(교원 1인당)'와 '학교생활만족도'의 두 주요지표들을 모두 주요지표로 유지하고 '학생수'는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명칭을 바꾼다.<sup>10)</sup>

'교육효과' 하위영역에서는 '고등교육이수율'과 '기초학력미달률'이 주요지표인데, 이들 중 '고등교육이수율'을 주요지표로 하고, '기초학력미달률'은 삭제하되 그 대신 학력의 국제비교 지표인 'TIMSS성취도'를 보조지표로 사용한다. 한편 보조지표인 '학업중단율'은 그대로 유지

10)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자문의견으로 교육효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으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과정에 대한 내용이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한다.

#### 마. '여가' 영역

'여가' 영역은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모두 '문화와 여가'이지만, 2017년도 수행된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연구의 제안대로 '여가'로 영역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여가' 영역의 하위영역 또한 '문화여가자원'을 '여가자원'으로, '문화여가활동'을 '여가활동'으로, 그리고 '미디어이용'은 삭제하고 대신 '여가결과'를 추가하고자 한다. 각 하위영역별 주된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가자원' 하위영역에서는 '여가시간'과 '문화여가비지출률'의 두 주요지표를 모두 주요지표로 유지하되 '문화여가비지출률'은 '문화여가지출률'로 명칭을 바꾼다. 한편 보조지표인 '문화재정(1인당)', '휴가활용률'은 보조지표로 유지하되 '문화재정'은 '1인당 문화재정'으로 명칭을 바꾼다.

'여가활동' 하위영역에서는 '문화예술관람률'과 '생활체육참여율'의 두 주요지표들을 모두 주요지표로 유지하고, 보조지표인 '스포츠관람률' 역시 그대로 보조지표로 유지한다.<sup>11)</sup> 현행 '문화여가활동' 주요지표인 '여가만족도'는 '여가결과' 하위영역으로의 주요지표로 옮긴다.

'여가결과' 하위영역에서는 현행 '문화여가활동'의 주요지표인 '여가만족도'를 주요지표로 한다. 현행 '미디어이용'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인 '인터넷이용률'은 하위영역이 변경되면서 삭제한다.

#### 바. '주거와 교통' 영역

'주거와 교통' 영역은 「국가주요지표」 개발 당시에는 '주거'와 '교통'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2016년 「국가주요지표」 체계 개편 과정에서 통합되었다.

'주거와 교통'의 하위영역은 '주거비', '주거의 질', '교통인프라', '교통안전' 등 네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 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주거비' 하위영역의 주요지표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주택월세가격변동률',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중 '주택매매가격변동률'과 '주택임대료비율'을 주요지표로 하되, '주택임대료비율'은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로 명칭을 바꾼다.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주택월세가격변동률'은 보조지표로 바꾼다.

'주거의 질'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인 '주택수(인구 1,000명당)', '주거면적(일인당)', '주거환경만족도'는 그대로 주요지표로 유지하되 '주택수'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로, '주거면적'은 '1인당 주거면적'으로 명칭을 바꾼다. 한편 현행 보조지표인 '주택만족도'는 그대로 보조지표로 유지한다.

'교통인프라' 하위영역 주요지표 중 '대중교통수송분담률'과 '통근시간'은 그대로 주요지표로

11) 전문가 자문에서 관람률을 관람 빈도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삶의 질 지표에는 반영하였으나 국가발전지표에서는 지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유지한다. 보조지표인 ‘통학시간’, ‘장시간통근통학인구비율’ 중 ‘통학시간’은 삭제하고 ‘장시간  
통근통학인구비율’은 그대로 보조지표로 유지한다.

‘교통안전’ 하위영역은 현행대로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인구 10만 명당)’를 주요지표로, ‘도  
로교통사고발생건수(인구 10만 명당)’를 보조지표로 하되, 명칭을 ‘도로교통사고사망률’과 ‘도  
로교통사고발생률’로 바꾼다.

#### 사. ‘범죄와 사법정의’ 영역

‘범죄와 사법정의’ 영역은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모두 개발 당시에는 ‘안  
전’ 영역으로 동일하였다. 이후 「국가주요지표」에서 2016년 개편 당시 ‘범죄와 치안’으로 명  
칭이 바뀌는 동시에 재해 및 교통사고 부분이 각각 ‘기후변화’와 ‘교통’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반면 2015년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연구에서는 이 영역의 명칭으로 ‘범죄와 사법정의’를 제안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워크 연구의 제안을 수용하여 영역 명칭을 ‘범죄와 사법정  
의’로 바꾸고자 한다.

‘범죄와 사법정의’ 영역의 하위영역은 범죄, 치안의 두 영역을 ‘범죄발생’, ‘범죄피해’, ‘치안’  
의 세 영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각 하위영역별 주된 변화는 다음과 같다.

‘범죄발생’ 하위영역은 현행 ‘범죄’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인 ‘범죄율’, ‘재범률’, ‘범죄피해율’,  
‘범죄두려움’ 중에서 ‘범죄율’을 주요지표로 한다. 현행 ‘범죄’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인 ‘재범률’  
은 ‘치안’ 하위영역의 보조지표로, ‘범죄피해율’과 ‘범죄두려움’은 ‘범죄피해’ 하위영역의 주요  
지표로 이동하되, ‘범죄두려움’은 ‘범죄피해두려움’으로 명칭을 바꾼다. 현행 ‘범죄’ 하위영역의  
보조지표인 ‘야간보행두려움’은 ‘야간보행안전도’로 명칭을 바꾸어 ‘범죄피해’ 영역의 보조지표  
로 이동한다. 또한 ‘범죄’ 영역의 보조지표인 ‘수용자수(교도관 1인당)’는 ‘교도관 1인당 수용  
자수’로 명칭을 바꾸어 ‘치안’ 영역의 보조지표로 이동한다.

‘범죄피해’ 하위영역은 앞서 언급대로 ‘범죄피해율’과 ‘범죄피해두려움’을 주요지표로, ‘야간  
보행안전도’를 보조지표로 한다.

‘치안’ 하위영역은 ‘기소율’과 ‘경찰관 수(인구 10만 명당)’ 두 현행 주요지표들을 그대로 유  
지하되 ‘경찰관 수’를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로 명칭을 바꾼다. 그밖에 ‘범죄’ 영역에서 이  
동한 ‘재범률’을 주요지표로 추가하고, 현행 ‘범죄’ 하위영역의 보조지표인 ‘수용자 수’를 ‘교도  
관 1인당 수용자수’로 명칭을 바꾸어 보조지표로 한다.

#### 아. ‘사회통합’ 영역

‘사회통합’ 영역은 「국가주요지표」에서는 ‘사회통합’ 영역으로 불리지만, 「국민 삶의 질 지표  
」에서는 ‘시민참여’와 ‘가족·공동체’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사회통합’ 영역의 프레임워크 연구보고서는 2017년 발간되었으며 「국가주요지표」 2016년

개편 이후의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보고서의 제안을 반영하였다. 제안된 내용에 따라 ‘사회참여’, ‘신뢰’, ‘삶의 기회와 만족’, ‘사회보장’으로 구성된 현행 「국가주요지표」의 하위영역을 ‘시민성’, ‘연대’, ‘포용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지표들은 새로운 영역인 ‘주관적 웰빙’을 만들어 이동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영역별 주된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성’ 하위영역에는 현행 ‘사회참여’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인 ‘선거투표율’과 현행 ‘신뢰’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인 ‘부패인식지수’를 주요지표로 삼는다. 한편 현행 ‘신뢰’ 하위영역 보조지표인 ‘기관신뢰도’는 ‘시민성’ 하위영역의 보조지표로 한다. 그밖에 신규로 ‘공정성인식’과 ‘준법의식’을 ‘시민성’ 영역의 보조지표로 추가한다.

‘연대’ 하위영역의 주요지표는 현행 ‘사회참여’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인 ‘사회단체참여율’과 현행 ‘신뢰’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인 ‘대인신뢰도’, 그리고 현행 ‘삶의 기회와 만족’의 보조지표인 ‘사회적 고립도’를 주요지표로 삼는다. 한편 현행 ‘사회참여’ 하위영역의 보조지표인 ‘자원봉사참여율’을 ‘연대’ 하위영역의 보조지표로 한다.

‘포용성’ 하위 영역에서는 현행 ‘삶의 기회와 만족’의 주요지표인 ‘사회이동가능성인식’을 주요 지표로 하고, 현행 ‘사회참여’ 하위영역의 보조지표인 ‘여성관리자공무원비율’을 보조지표로 한다. 그밖에 신규지표로 ‘소수자포용성’을 ‘포용성’ 하위영역의 보조지표로 추가한다.

현행 ‘사회참여’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인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삭제한다.

또한 현행 ‘사회보장’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였던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GDP 대비)’, ‘공적연금수급률’, ‘건강보험보장률’은 모두 삭제한다.

현행 ‘삶의 기회와 만족’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인 ‘삶의 만족도’는 신설된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지표로, 보조지표인 ‘자살률’과 ‘행복도’는 ‘주관적 웰빙’ 영역의 보조지표로 이동한다.

#### 자. ‘주관적 웰빙’ 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현행 ‘사회통합’ 영역의 ‘삶의 기회와 만족’ 하위영역 주요지표인 ‘삶의 만족도’를 주요지표로 하고, 역시 ‘사회통합’ 영역의 ‘삶의 기회와 만족’ 하위영역 보조지표인 ‘자살률’과 ‘행복도’는 보조지표로 한다.

### 3)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부문 개선안

#### 가. ‘건강’ 영역

‘건강수준별 기대여명’을 「국가발전지표」와 지표명이 일치하도록 ‘건강수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칙적 운동 실천율’ 또한 ‘신체활동실천율’로 「국가발전지표」와 명칭을 동일하게 바꾼다. ‘주관적 건강평가’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스트레스 인식정도’는 ‘스트레스인지율’로 명



칭을 바꾼다.

현행 지표들 중에서 ‘고혈압유병률’과 ‘비만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대수명’, ‘당뇨병유병률’,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은 삭제한다.

한편 신규로 ‘자살률’을 가족, 공동체 영역에서 이관하여 추가한다.

#### 나. ‘교육’ 영역

‘유아교육취학률’을 ‘유아교육취원율’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역별 프레임워크 연구의 제안에 따라 ‘평생교육참여율’, ‘학업중단율’, ‘PISA 백분위 순위’는 삭제한다. 한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부모의 교육비부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대체하여 명칭을 ‘사교육비부담도’로 바꾼다. ‘대졸생 취업률’은 ‘대학졸업자 취업률’로, ‘학교교육의 효과’는 ‘학교교육효과인식’으로 명칭을 바꾼다.

그밖에 ‘학교생활만족도’와 ‘고등교육이수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 다. ‘여가’ 영역

영역 명칭을 ‘문화와 여가’로부터 영역별 프레임워크 연구의 제안에 따라 ‘여가’로 바꾼다.

지표명 ‘문화여가 지출 비율’을 ‘문화여가지출률’로 바꾸고, ‘평균 여가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또한 ‘여가활용만족도’를 ‘여가만족도’로 바꾸어 「국가발전지표」와 일치하도록 한다. 그밖에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를 ‘1인당 여행일수’로 명칭을 바꾼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로 내용과 명칭을 바꾸고,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을 5년 주기의 생활시간조사에서 국민여가활동조사로 대체하고 명칭을 ‘여가시간충분도’로 바꾼다. 이는 ‘여가’ 영역 프레임워크 연구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 라. ‘가족·공동체’ 영역

‘가족관계만족도’, ‘독거노인 비율’, ‘지역사회소속감(공동체)’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회적 낙인 효과를 우려하여 ‘한부모가구 비율’은 삭제한다.

‘자살률’은 ‘건강’ 영역으로 이관하고, ‘사회적 관계망’은 내용에 맞도록 ‘사회적 고립도’로 지표 명칭을 바꾼다.

#### 마. ‘시민참여’ 영역

‘대인신뢰’는 ‘대인신뢰도’로,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자원봉사참여율’로, ‘투표율’은 ‘선거투표율’로, ‘기관신뢰’는 ‘기관신뢰도’로,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은 ‘정치적 역량감’으로 지표 명

칭을 바꾼다.

바. '안전' 영역

'산업재해율'을 '산재사망률'로 지표 내용과 명칭을 바꾼다.

'강력범죄 발생률'을 '범죄율'로,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를 '야간보행안전도'로 내용과 명칭을 「국가발전지표」와 통일하고, '자기보고 범죄피해율'을 '범죄피해율'로 명칭 변경하여 「국가주요지표」와 일치시킨다.

또한 '도로사망률'을 '도로교통사고사망률'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역시 '사회안전인식'으로 명칭을 바꾼다.

'아동안전사고사망률'은 그대로 유지한다.

'아동학대피해경험률' 및 '화재발생건수'는 통계 수치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삭제한다.

사. '주관적 웰빙' 영역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로 지표 명칭을 바꾼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그대로 유지한다.

아. '사회복지' 영역

'사회복지' 영역은 영역을 삭제하고 지표인 '개인부담의료비 비중', '공적연금가입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역시 삭제한다.

<표 2.7> 사회부문 「국가주요지표」 개편안

국가주요지표(현행 체계)				비고	국가발전지표(개편 체계)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인구	인구변화	주	인구성장률		인구성장률	주	인구변화	인구
		보	총인구		총인구	보		
		보	출산율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보		
		보	사망률 (조사망률)		조사망률	보		
		보	체류외국인수		체류외국인수	보		
	인구구조	주	부양인구비		부양인구비	주	인구구조	
		보	고령화지수		고령화지수	보		
가족	가구형성	주	가구원수		가구원수	주	가구형성	가족
		보	1인가구비율		1인가구 비율	보		
		주	혼인율 (조혼인율)		조혼인율	주		
		보	이혼율 (조이혼율)		조이혼율	보		
	가족관계	주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주	가족관계	
		주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주		
		주	독거노인비율		독거노인 비율	주		
		보	영아어린이집이용률	가족관계와의 내용적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삭제				
건강	건강상태	주	기대수명		기대수명	주	건강상태	건강
		보	건강수명		건강수명	보		
		주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주		
		주	우울감경험률		우울감경험률	주		
	건강행태	주	흡연율 (현재 흡연율)		현재흡연율	주	건강행태	
		주	음주율 (월간 폭음률)		월간폭음률	주		
		주	비만율		비만율	주		
		보	신체활동실천율		신체활동실천율	보		
	보건의료서비스	주	의료기관방문횟수 (1인당)		1인당 의료기관방문횟수	주	보건의료서비스	
		보	의사수 (인구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의사수	보		
			건강 분야 통계 프레임워크 연구의 제안을 수용하여 신규 추가	의료서비스만족도	보			
		주	암생존율		암생존율	주		
		주	경상의료비비율 (GDP 대비)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주		
교육	교육기회	주	공교육비비율 (GDP 대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주	교육기회	교육
		주	사교육비 (학생 1인당)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주		
		주	취학률		취학률	주		
		보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시간에 따른 변화의 정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삭제				

(표 계속)

국가주요지표(현행 체계)				비고	국가발전지표(개편 체계)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교육과정	주	학생수 (교원 1인당)		교원 1인당 학생수	주	교육과정	
		주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주		
	교육효과	주	고등교육이수율		고등교육이수율	주	교육효과	
		주	기초학력미달률	교육분야 통계 프레임워크 연구의 제안을 수용하여 대체	TIMSS성취도	보		
		보	학업중단율		학업중단율	보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자원	주	문화여가비지출률		문화여가지출률	주	
보			문화재정 (1인당)		1인당 문화재정	보		
주			여가시간		여가시간	주		
보			휴가활용률		휴가활용률	보		
문화여가활동		주	문화예술관람률		문화예술관람률	주	여가활동	
		주	생활체육참여율		생활체육참여율	주		
		보	스포츠관람률		스포츠관람률	보		
		주	여가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주	여가결과	
미디어이용		주	인터넷이용률	영역 명칭 변경과 하위영역 재편에 따라 내용이 맞지 않아 삭제				
주거와 교통		주거비	주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	주거비
	주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주택전세가격변동률	보		
	주		주택월세가격변동률		주택월세가격변동률	보		
	주		주택임대료비율 (소득 대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주		
	주거의 질	주	주택수 (인구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주	주거의 질	
		주	주거면적 (1인당)		1인당 주거면적	주		
		주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주		
		보	주택만족도		주택만족도	보		
	교통인프라	주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주	교통인프라	
		보	차량통행속도		차량통행속도	보		
		주	통근시간		통근시간	주		
		보	통학시간	통근에 비해 통학은 인근 학교 배정이 많아 시간의 변이가 크지 않으므로 삭제				
		보	장시간통근통학인구비율		장시간통근통학인구 비율	보		
	교통안전	주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률	주	교통안전	
보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발생률	보			
범죄와 치안	범죄	주	범죄율		범죄율	주	범죄발생	범죄와 사법정의
		주	범죄피해율		범죄피해율	주	범죄피해	
		주	범죄두려움		범죄피해두려움	주		
		보	아간보행두려움		아간보행안전도	보		

(표 계속)

국가주요지표(현행 체계)				비고	국가발전지표(개편 체계)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지표	구분	하위영역	영역
	치안	주	경찰관수 (인구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	주	치안	
		주	기소율		기소율	주		
	범죄	주	재범률	재범률은 범죄 자체보다 그에 대한 대응의 결과이므로 치안으로 하위영역 이동	재범률	주		
		보	수용자수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는 범죄보다 치안에 더 적합해서 명칭 변경 및 하위영역 이동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	보		
사회통합	사회참여	주	선거투표율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하위영역 개편	선거투표율	주	시민성	사회통합
		주	여성국회의원비율	국회의원은 선출직으로 그 의미가 공무원과 달라 삭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프레임워크 연구 제안을 수용하여 신규로 추가	공정성인식	주		
	신뢰	주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	보		
		보	기관신뢰도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하위영역 개편	기관신뢰도	보		
				신규	준법의식	보		
	사회참여	주	사회단체참여율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하위영역 개편	사회단체참여율	주	연대	
		보	자원봉사참여율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하위영역 개편	자원봉사참여율	보		
	신뢰	주	대인신뢰도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하위영역 개편	대인신뢰도	주		
	삶의 기회와 만족	주	사회적 고립도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하위영역 개편	사회적 고립도	주		
		주	사회이동가능성인식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하위영역 개편	사회이동가능성인식	주	포용성	
	사회참여	보	여성관리자공무원비율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하위영역 개편	여성관리자공무원 비율	보		
				추가	소수자포용성	보		
	삶의 기회와 만족	주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과 사회통합의 내용이 구분되어 영역 신설	삶의 만족도	주		
보		행복도	주관적 웰빙과 사회통합의 내용이 구분되어 영역 신설	행복도	보			
보		자살률	주관적 웰빙과 사회통합의 내용이 구분되어 영역 신설	자살률	보			
사회보장	주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GDP 대비)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삭제					
	주	공적연금수급률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삭제					
	주	건강보험보장률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삭제					

<표 2.8> 사회부문 「국민 삶의 질 지표」 개편안

현행 지표	비고	개편 지표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일반적 용례에 따라 지표명 변경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평가	일반적 용례에 따라 지표명 변경	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 운동 실천율	일반적 용례에 따라 지표명 변경	신체활동실천율
스트레스 인식정도	일반적 용례에 따라 지표명 변경	스트레스인지율
고혈압유병률		고혈압유병률
비만을		비만을
기대수명	건강수명이 삶의 질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	
당뇨병유병률	건강 분야 프레임워크 연구 제안 수용하여 삭제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자료 및 계산의 어려움으로 삭제	
	가족·공동체 영역에서 이관	자살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교육 분야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지표 변경	사교육비부담도
대졸생 취업률	지표명 변경	대학졸업자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지표명 변경	학교교육효과인식
유아교육취학률	지표명 변경	유아교육취학률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고등교육이수율		고등교육이수율
평생교육참여율	평생교육의 의미가 모호하여 삭제	
학업중단율	학업 중단이 내용이 복잡적이어서 삭제	
PISA 백분위 순위	시계열적 변화가 적어서 삭제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지표 의미에 맞도록 지표 변경	여가시간충분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자문 결과 수용하여 지표 변경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문화여가 지출 비율	지표명 변경	문화여가지출률
평균 여가시간	지표명 변경	여가시간
여가활용만족도	지표명 변경	여가생활만족도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지표명 변경	1인당 여행일수
사회적 관계망	지표명 변경	사회적 고립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독거노인 비율		독거노인 비율
사회단체참여율		사회단체참여율
지역사회소속감		지역사회소속감
자살률	건강 영역으로 이관	
한부모가구 비율	한부모 가구 아동의 인권침해 소지로 삭제	
대인신뢰	지표명 변경	대인신뢰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지표명 변경	자원봉사참여율
투표율	지표명 변경	선거투표율
기관신뢰	지표명 변경	기관신뢰도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지표명 변경	정치적 역량감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
시민의식		시민의식

(표 계속)

현행 지표	비고	개편 지표
산업재해율	지표 변경	산재사망률
강력범죄 발생률	지표명 변경	범죄율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지표명 변경	범죄피해율
아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지표명 변경	아간보행안전도
도로사망률	지표명 변경	도로교통사고사망률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지표명 변경	사회안전인식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아동학대피해경험률	지표의 안정성이 낮아 삭제	
화재발생건수	정책적 통제의 여지가 높지 않아 삭제	
삶에 대한 만족도	일반적 용례를 따라 지표명 변경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긍정정서
부정정서		부정정서
개인부담의료비 비중	사회통합 영역 프레임워크 제안을 수용하여 영역 및 영역 내 지표 일괄 삭제	
공적연금가입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2.4. 지표체계 관리방안

위에서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국가발전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 「녹색성장 지표」에 대한 체계 비교 및 위상관계의 정립,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발전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작성 및 관리가 이루어졌던 이들 지표들은 이제 앞으로 서로의 위상관계를 명확하게 한 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작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표의 제시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 도메인의 설치와 관리 및 평가, 개편을 심의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필요하다.

### 2.4.1. 지표체계 통합 도메인(k-indicator) 구성과 헤드라인 지표 선정

기존의 지표들 중에서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는 「e-나라 지표」와 함께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e-나라지표」가 국정모니터링지표로 구분되는 반면, 나머지 세 개의 지표들은 가치지향적 지표들로 구분되어 국가지표체계(k-indicator)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국가지표체계에서도 세 개의 지표들은 서로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서비스하는 방안으로는 통합 영역 구성과 함께 이들 모두를 망라하는 헤드라인 지표의 선정 및 제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통합영역 구성 및 헤드라인 지표 선정은 「국가주요지표」가 명칭을 바꾼 「국가발전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통합영역은 이들 두 지표들의 영역들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부문: 성장, 안정,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자산
- 환경부문: 생활환경, 생태환경, 기후변화와 에너지
- 사회부문: 인구, 건강, 교육, 여가, 범죄와 사법정의, 안전, 가족과 가구, 사회통합, 주거와 교통, 주관적 웰빙

한편 통합 도메인에서 제시할 헤드라인 지표들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이용자들의 방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10대 헤드라인 지표를 선정하였다.

- 경제부문
  - 경제성장률(「국가발전지표」 성장 영역)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국가발전지표」 안정 영역)
  - 고용률 (「국가발전지표」 고용과 노동 영역,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실업률)
  - 1인당 국민총소득(「국가발전지표」 소득, 소비, 자산 영역)
- 환경부문
  - 미세먼지농도(PM2.5)
  - 온실가스 배출량
- 사회부문
  - 기대수명(「국가발전지표」 건강 영역)
  - 여가시간(「국가발전지표」 여가 영역)
  - 1인당 주거면적(「국가발전지표」 주거와 교통 영역)
  - 삶에 대한 만족도(「국가발전지표」 주관적 웰빙 영역, 「국민 삶의 질 지표」)

#### 2.4.2 국가지표 검토위원회 설치 및 활용

본 연구에서 비교 검토한 지표체계들은 지표의 내용뿐 아닌 지표체계 관리방안도 서로 다르다. 「국가주요지표」의 경우 지표체계는 영역마다 하위영역을 두고 있으며, 영역과 하위영역, 지표에 이르는 지표체계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은 필요에 따라 외부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외부용역 수행을 통해 지표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변화의 방향은 어떠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모호하다.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경우 체계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개선이나 업데이트는 별로 없었지만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연 1



회 이상 회의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지표」의 항목 및 내용 제시방식에까지 논의를 통해 지표를 변화 발전시키고 있다. 「사회지표」의 경우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전반적 개편 작업을 수차례 수행함으로써 체계와 지표 들이 변화해 왔다.

이들 지표체계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은 지표체계 및 지표 선정 등과 관련하여 정부부처와 기관의 요청 및 외부로부터의 문제 제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방법의 모색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들의 개선 및 업데이트 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 ‘국가지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안목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지표 검토위원회는 해당 영역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지표체계 및 개별 지표들에 대해 제기된 내부, 외부의 문제 제기 내용을 심의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표 작성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표체계 및 지표 선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표검토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지표 혹은 지표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시에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지표 표준화 및 결과 종합

이 연구에서는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가 단일 서비스 체계에서 이용자의 혼란 없이 제공되도록 지표 데이터베이스(DB)를 표준화한 통합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통합 지표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단일 지표로 통합 가능한 지표들을 선별하여 지표명과 지표 통계를 표준화하고, 현재 서로 다른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지표 DB 구성요소를 표준화한 후 표준화된 지표 DB 설계안에 따라 새롭게 지표 DB를 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 3.1. 통합 대상 지표의 선별과 표준화

##### 3.1.1. 통합 대상 지표의 선별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에는 지표명은 같으나 지표 통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지표 통계는 같으나 지표명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동일한 지표인데 지표명이나 지표 통계가 다르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지표 체계, 즉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에 포함된 개별 지표들 가운데 통합 가능한 중복 지표들을 선별하여 표준화된 단일 지표로 만들 필요가 있다.

통합 대상 지표는 두 지표 체계에 포함된 개별 지표들 중 지표명이 같거나, 지표명이 다르더라도 측정하는 현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들로 선별하였다. 이 기준으로 선별한 통합 대상 지표는 총 38쌍이다<sup>12)</sup>. 이들 지표는 지표명이 서로 달라서 명칭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19쌍)<sup>13)</sup>, 지표명은 같으나 지표 통계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15쌍), 그리고 지표 변경이나 신규 지표 제안으로 새롭게 통합 지표 DB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4쌍)로 구분된다. 통합 대상으로 선별된 지표들은 <표 3.1>과 같다.

---

12) 기관신뢰도, 미세먼지농도(PM2.5), 사회적 고립도, 선거투표율은 지표명이 동일하지만 지표 통계 단일화가 불가능한 지표들이어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회적 고립도의 경우 「국가주요지표」에서는 집안일 부탁 상대, 돈 빌릴 상대, 이야기 상대 등 상황별로 고립도를 제시하였지만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상황별 고립도의 평균값을 제시하였기 때문이고, 선거투표율의 경우 「국가주요지표」에서는 선거종류별로 투표율을 제시하였지만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대통령선거 투표율만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기관신뢰도의 경우 「국가주요지표」에서는 기관별로 신뢰도를 제시하였지만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기관별 신뢰도의 평균값을 제시하였기 때문이고, 미세먼지농도(PM2.5)의 경우 「국가주요지표」에서는 도시별로 미세먼지농도를 제시하였지만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는 도시별 미세먼지농도의 인구중평균값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13) 이 지표들도 지표 통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표 3.1>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통합 대상 지표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통합 대상 선별 사유
1인당 국민총소득	1인당 GNI	지표명 불일치
가구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지표명 불일치
가구소비(신규 지표)	균등화 중위소비	지표명 불일치
가구순자산	가구평균순자산	지표명 불일치
건강수명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지표명 불일치
대인신뢰도	대인신뢰	지표명 불일치
문화여가비지출률	문화여가지출 비율	지표명 불일치
범죄율	강력범죄발생률	지표명 불일치
범죄피해율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지표명 불일치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지표명 불일치
상대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지표명 불일치
신체활동실천율	규칙적 운동실천율	지표명 불일치
야간보행두려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지표명 불일치
여가만족도	여가활용만족도	지표명 불일치
여가시간	평균여가시간	지표명 불일치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도로사망률	지표명 불일치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근로시간	지표명 불일치
자원봉사참여율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지표명 불일치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평가	지표명 불일치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지표 통계 불일치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지표 통계 불일치
고등교육이수율	고등교육이수율	지표 통계 불일치
고용률	고용률	지표 통계 불일치
독거노인 비율	독거노인 비율	지표 통계 불일치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	지표 통계 불일치
사회단체참여율	사회단체참여율	지표 통계 불일치
소득만족도	소득만족도	지표 통계 불일치
소비생활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지표 통계 불일치
실업률	실업률	지표 통계 불일치
일자리만족도	일자리만족도	지표 통계 불일치
자살률	자살률	지표 통계 불일치
저임금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지표 통계 불일치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지표 통계 불일치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지표 통계 불일치
산재사망률	산재사망률(지표 변경)	신규 통합 대상 지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신규 지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신규 지표)	신규 통합 대상 지표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지표 변경)	신규 통합 대상 지표
통근시간	통근시간(지표 변경)	신규 통합 대상 지표

### 3.1.2. 통합 대상 지표의 표준화

통합 대상으로 선별된 지표들에 대해서는 지표명과 지표 통계가 단일 명칭과 단일 통계로 사용되도록 표준화하였다. 지표명 표준화는 완전히 새로운 명칭으로 개칭하거나 기존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하나의 명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지표명이 서로 다른 19쌍의 지표들 가운데 1인당 국민총소득과 1인당 GNI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가구소득과 균등화 중위소득은 가구중위소득, 가구소비와 균등화 중위소비는 가구중위소비, 문화여가비지출률과 문화여가지출 비율은 문화여가지출률, 야간보행두려움과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는 야간보행안전도, 여가만족도와 여가활용만족도는 여가생활만족도,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와 도로사망률은 도로교통사고사망률로 개칭하였다. 이들 지표 외에 가구순자산, 건강수명, 대인신뢰도, 범죄율, 범죄피해율, 삶의 만족도, 신체활동실천율, 여가시간, 자원봉사참여율, 주관적 건강상태는 「국가주요지표」 명칭으로 표준화한 지표들이고, 상대적 빈곤율과 근로시간은 「국민 삶의 질 지표」 명칭으로 표준화한 지표들이다.

개별 지표의 지표 통계는 사용된 지표 통계의 출처 자료나 산출 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가구중위소득, 야간보행안전도, 건강수명, 대인신뢰도, 범죄율, 삶의 만족도, 신체활동실천율, 여가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근로시간, 독거노인 비율, 주거환경만족도) 단일 출처 자료나 동일 산출 방법으로 표준화하였고, 사용된 지표 통계의 출처는 같으나 통계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여가생활만족도, 자원봉사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사회단체참여율, 학교생활만족도)에는 통계청 KOSIS 제공 수치로 단일화하였다. 지표 통계와 통계 수치 모두 동일하더라도 제공되는 시계열 범위가 다르거나 소수점 자릿수가 다른 경우(문화여가지출률, 도로교통사고사망률, 1인당 주거면적, 고등교육이수율, 부패인식지수,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일자리만족도, 자살률)에는 이를 동일한 범위와 자릿수로 조정하였다. 통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표 통계를 재구성한 경우(범죄피해율)도 있고, 「국가주요지표」에는 2종의 통계를 사용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에는 「국가주요지표」의 2종 중 한 가지만 사용한 경우(1인당 국민총소득(GNI), 가구순자산, 상대적 빈곤율, 고용률, 실업률, 저임금근로자 비율)<sup>14)</sup>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규 지표(가구중위소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나 변경 지표(산재사망률,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통근시간)가 포함된 경우 기존 지표 통계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신규 통계를 사용하여 표준화하였다.

14) 「국민 삶의 질 지표」는 한 가지 통계만 제시하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2> 통합 대상 지표의 명칭 및 통계 표준화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지표명 표준화		지표 통계 표준화		
		지표명 표준화 안	비고	국가주요지표 통계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	지표 통계 표준화 안
1인당 국민총소득	1인당 GNI	1인당 국민총소득(GNI)	새 지표명으로 표준화	국민계정: 1인당 명목 및 실질 GNI	국민계정: 1인당 실질 GNI	국가주요지표는 명목값과 실질값 모두 사용
가구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가구중위소득	새 지표명으로 표준화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명목 및 실질 가구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사용
가구소비(신규 지표)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중위소비	새 지표명으로 표준화	신규 통계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균등화 중위소비	균등화 중위소비 사용
문화여가비지출률	문화여가지출 비율	문화여가지출률	새 지표명으로 표준화	가계동향조사: 문화여가지출÷총지출	가계동향조사: 문화여가지출÷총지출	통계 소수점 두 자리로 일치, 시계열 보완
야간보행두려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야간보행안전도	새 지표명으로 표준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범죄두려움	사회조사: 야간보행안전도	사회조사 야간보행안전도 사용
여가만족도	여가활용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새 지표명으로 표준화	사회조사: 여가생활만족도(KOSIS 통계와 일치)	사회조사: 여가생활만족도(KOSIS 통계와 불일치)	KOSIS 통계(13세 이상)로 일치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도로사망률	도로교통사고사망률	새 지표명으로 표준화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 소수점 및 시계열 불일치 보완
가구순자산	가구평균순자산	가구순자산	국가주요지표명으로 표준화	가계금융·복지조사: 명목 순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질 순자산	국가주요지표는 명목값과 실질값 모두 사용
건강수명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건강수명	국가주요지표명으로 표준화	WHO World Health Statistics	통계청 인구동향과 자료	WHO 자료 사용
대인신뢰도	대인신뢰	대인신뢰도	국가주요지표명으로 표준화	한국종합사회조사: 대인신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대인신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대인신뢰도 사용
범죄율	강력범죄발생률	범죄율	국가주요지표명으로 표준화	범죄분석통계: 형법범죄율	범죄분석통계: 강력범죄율(흉악범죄, 폭력범죄)	형법범죄율 사용
범죄피해율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범죄피해율	국가주요지표명으로 표준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범죄피해율(KOSIS 통계와 불일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범죄피해율(KOSIS 통계와 일치)	범죄유형 기준 4종에서 2종(폭력범죄, 재산범죄)으로 통합
삶의 만족도	삶에대한만족도	삶의 만족도	국가주요지표명으로 표준화	사회조사: 삶의 만족도(만족 응답 비율)	사회통합실태조사: 삶의 만족도(만족도 평균점수, 10점 척도)	사회조사 자료 사용
신체활동실천율	규칙적 운동실천율	신체활동실천율	국가주요지표명으로 표준화	국민건강영양조사: 신체활동실천율	사회조사: 신체활동실천율	사회조사 자료 사용
여가시간	평균여가시간	여가시간	국가주요지표명으로 표준화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시간(시간)	생활시간조사: 여가시간(분)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15세 이상) 사용
자원봉사참여율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자원봉사참여율	국가주요지표명으로 표준화	사회조사: 자원봉사참여율(KOSIS 통계와 일치)	사회조사: 자원봉사참여율(KOSIS 통계와 불일치)	KOSIS 통계(13세 이상)로 일치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평가	주관적 건강상태	국가주요지표명으로 표준화	국민건강영양조사: 주관적 건강상태(19세 이상)	사회조사: 주관적 건강상태(10대 포함)	사회조사 자료 사용
상대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국민 삶의 질 지표명으로 표준화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국가주요지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자료 모두 사용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근로시간	근로시간	국민 삶의 질 지표명으로 표준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근로자 월간 근로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주당 근로시간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사용

(표 계속)

<표 3.2> 통합 대상 지표의 명칭 및 통계 표준화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지표명 표준화		지표 통계 표준화		
		지표명 표준화 안	비고	국가주요지표 통계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	지표 통계 표준화 안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기존 지표명 유지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	시계열 불일치 보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기존 지표명 유지	사회조사: 가족관계만족도 (KOSIS 통계와 일치)	사회조사: 가족관계만족도 (KOSIS 통계와 불일치)	KOSIS 통계(13세 이상)로 일치
고등교육이수율	고등교육이수율	고등교육이수율	기존 지표명 유지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Education at a Glance	통계 소수점 한 자리로 일치, 시계열 일치
고용률	고용률	고용률	기존 지표명 유지	경제활동인구조사: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15세 이상 고용률	국가주요지표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 모두 사용
독거노인 비율	독거노인 비율	독거노인 비율	기존 지표명 유지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추계 자료 사용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	기존 지표명 유지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통계치 및 시계열 불일치 보완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단체참여율	사회단체참여율	기존 지표명 유지	사회조사: 사회단체참여율 (KOSIS 통계와 일치)	사회조사: 사회단체참여율 (KOSIS 통계와 불일치)	KOSIS 통계(13세 이상)로 일치
소득만족도	소득만족도	소득만족도	기존 지표명 유지	사회조사: 소득만족도	사회조사: 소득만족도	통계 소수점 및 시계열 불일치 보완
소비생활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기존 지표명 유지	사회조사: 소비생활만족도	사회조사: 소비생활만족도	통계치 및 시계열 불일치 보완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기존 지표명 유지	경제활동인구조사: 15-64세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15세 이상 실업률	국가주요지표는 15세 이상 실업률과 15-64세 실업률 모두 사용
일자리만족도	일자리만족도	일자리만족도	기존 지표명 유지	사회조사: 일자리만족도	사회조사: 일자리만족도	통계 소수점 불일치 보완
자살률	자살률	자살률	기존 지표명 유지	사망원인통계	사망원인통계	시계열 불일치 보완
저임금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기존 지표명 유지	OECD Earnings	OECD Earnings	국가주요지표는 성별 통계 사용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기존 지표명 유지	주거실태조사: 주거환경만족도 (만족도 평균점수)	주거실태조사: 주거환경만족도 (만족 응답 비율)	만족 응답 비율(%) 사용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기존 지표명 유지	사회조사: 학교생활만족도 (KOSIS 통계와 일치)	사회조사: 학교생활만족도 (KOSIS 통계와 불일치)	KOSIS 통계(13세 이상)로 일치
산재사망률	산재사망률(지표 변경)	산재사망률	기존 산업재해율을 산재사망률로 지표 변경	산업재해현황	기존 산업재해율을 산재사망률로 변경	산업재해현황 자료 사용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신규 지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신규 지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신규 지표	신규 통계	신규 통계	동일 통계로 작성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지표 변경)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기존 주택가격 배율을 주택임대료 비율로 지표 변경	주거실태조사: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기존 주택가격 배율을 주택임대료 비율로 변경	주거실태조사 주택임대료 비율 사용
통근시간	통근시간(지표 변경)	통근시간	기존 통근통학 소요시간을 통근시간으로 지표 변경	인구주택총조사: 통근시간	기존 통근통학 평균시간을 통근시간으로 변경	인구주택총조사 통근시간 사용

### 3.2. 표준 지표 DB의 설계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가 단일의 통합 지표 DB로 제공되려면 서로 상이한 지표 DB 구성 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각기 다른 배경 하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체계도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지표 체계가 단일 서비스 체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표 DB 구성요소를 새롭게 설계하였다.

지표 DB 구성요소의 재편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주요지표」 DB에 있는 보조 지표와 국제비교지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국민 삶의 질 지표」 DB에는 이들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주요지표」의 보조지표를 주요지표의 하위 요소가 아닌 주요지표로부터 독립적인 DB 단위로 설계하였고, 국제비교지표는 주요지표와 보조지표의 국제비교 통계로 제공되도록 설계하였다. 「국가주요지표」의 일부 보조지표가 「국민 삶의 질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독립 단위로 구성해야만 통합 DB를 구축할 수 있다. 국제비교지표는 주요지표와 보조지표에 국제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데 국한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표 지위를 갖기보다 주요지표와 보조지표의 추가 정보 요소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가주요지표」의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 재구성에 이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두 지표 체계의 DB 구성 요소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표 3.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국가주요지표」 DB는 그래프, 통계표, 지표 정의, 해설,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국민 삶의 질 지표」 DB는 그래프, 통계표, 지표 정의, 해설, 측정 방법, 긍정 방향, 작성 주기, 출처, 지표 의의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DB 구성 요소

지표 구분	지표 DB 구성 요소	제공 정보
국가주요지표	그래프	주요지표 통계의 그래프
	통계표	주요지표의 상세 통계
	지표 정의	지표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측정 및 산출 방법
	해설	주요지표가 나타내는 현상에 대한 설명
	보조지표	보조지표의 그래프와 상세 통계
	국제비교지표	국제비교지표의 그래프와 상세 통계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래프	지표 통계의 그래프
	통계표	지표의 상세 통계
	지표 정의	지표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측정 및 산출 방법
	해설	지표가 나타내는 현상에 대한 설명
	측정 방법	지표 산출 방법
	긍정 방향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 방향
	작성 주기	지표 작성 주기
	출처	지표 산출 자료
	지표 의의	지표로서의 의의

이번 연구에서는 <표 3.4>과 같이 그래프와 통계표, 지표 정의, 해설의 체계로 지표 DB 구성요소를 표준화하였다. 그래프와 통계표는 해당 지표 통계와 국제비교 통계의 그림과 수치 정보를 제공하고, 지표 정의는 지표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측정 및 산출 방법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해설 내용은 지표 의의, 지표 통계 해설 및 국제비교 통계 해설로 구성하였다. 지표 의의는 지표로서의 의의나 중요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표 통계 해설은 지표의 시계열 변화와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며, 국제비교 통계 해설은 한국의 국제적 수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3.4> 「국가발전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표준 DB 구성 요소

지표 DB 구성 요소	제공 정보
그래프	지표 통계의 그래프(국제비교 통계 포함)
통계표	지표의 상세 통계(국제비교 통계 포함)
지표 정의	지표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측정 및 산출 방법
해설	지표 의의: 지표로서의 의의 또는 중요성 서술
	지표 통계 해설: 지표의 시계열 변화와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국제비교 통계 해설: 한국의 국제적 수준에 대한 설명

### 3.3. 통합 지표 DB의 구축

중복 지표의 표준화와 지표 DB 구성요소의 표준화에 이어 통합 지표 DB의 구축에 필요한 마지막 작업은 표준 지표 DB 체계에 맞게 개별 지표 DB를 재구성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일이다. 아울러 개별 지표 DB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표 DB 전용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 3.3.1. 지표 DB의 작성

「국가발전지표」(기존 「국가주요지표」의 개칭)와 「국민 삶의 질 지표」의 통합 DB 구축을 위해 지표 DB 체계가 새롭게 설계된 만큼 새 지표 DB 체계에 맞게 개별 지표 DB를 재구성하거나 새로 작성하였다. 「국가발전지표」의 주요지표 DB는 기존의 지표 정의와 해설 내용을 수정, 보완하거나 편집하였고, 「국민 삶의 질 지표」 DB는 그래프, 통계표, 지표 정의, 해설 체계에 맞게 기존 정보를 재구성하였다.

「국가발전지표」의 보조지표 DB는 기존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재구성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였다. 「국가발전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공히 신규 지표인 경우에는 지표 DB를 완전히 새로 작성하였다. 「국가발전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모두



포함되는 통합 지표들은 지표 통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지표 통계에 맞게 지표 DB 내용을 보정하였다.

### 3.3.2. 지표 메타데이터의 작성

통합 지표 DB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개별 지표의 DB 구성요소 정보를 추출하여 별도의 메타데이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 DB 구성요소 정보 외에 지표 통계 출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개별 지표의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지표 메타데이터 항목은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표 3.5> 지표 메타데이터 항목

정보 구분	메타데이터 항목
지표 정보	지표명
	지표 구분: 국가발전지표/국민 삶의 질 지표, 주요지표/보조지표 구분
	해당 영역: 영역, 하위영역 구분
지표 DB 정보	지표 정의: 지표 정의 서술 내용
	지표 해설: 해설에 포함된 지표 의미와 통계 해설 내용
	그래프 및 통계표 표제: 제시되는 그래프와 통계표 제목
지표 통계 정보	산출 방법: 지표 통계 산출식
	출처 자료: 지표 통계 출처 자료
	산출 주기: 지표 통계 산출 주기
	산출 기관: 지표 통계 출처 자료 산출 기관

## 4.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의 프로토타입 구현

### 4.1.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 개요

#### 4.1.1. 통합서비스 필요성

현재 통계지표에 대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개발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다. 2006년 「e-나라지표」, 2011년 「녹색성장지표」, 2013년 「국가주요지표」, 2014년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가 구축되었으며, 「e-나라지표」와 「국가주요지표」는 개별지표를 중심으로 통계정보 및 의미분석을 제공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영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지표」는 분석보고서를 기반으로 지표정보를 제공한다.

지표체계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증가시키고 지표관리 시 중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통계지표 서비스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 곳에서 지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혼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표체계간에 개념상 통합을 이루고 추가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4.1.2. 통합대상 및 범위

통합서비스를 구현하기 전에 「e-나라지표」,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의 목적에 대해 파악하여 통합대상을 선정하였다. 「e-나라지표」는 각 정부기관이 선정한 국정지표이고, 「국가주요지표」는 국가발전 주요 분야에 대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에 대해, 「녹색성장지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가치 지향적 성격을 띠는 지표들이다. 따라서 가치 지향적 성격의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를 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4.1] 통합서비스 목표대상 선정

e-나라지표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각 정부기관이 선정한 국정지표	국가발전 주요 분야에 대한 지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에 대한 지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인하는 지표
부처별 개별 지표를 중심으로 통계정보 및 의미분석을 제공	영역별(14개 영역) 개별 지표를 중심으로 통계정보 및 해설을 제공	삶의 질에 대한 12개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정보를 제공	연도별 지표체계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체 지표정보를 제공

지표범위는 「국가주요지표」 2018년 2월 기준으로 「국가주요지표」 103개 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80개 지표, 「녹색성장지표」 2017년 보고서의 22개 지표로 정하였으며 「국가주요지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맞추어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녹색성장지표 데이터에 지표해설과 지표용어를 추가 및 가공하여야한다.

<표 4.1> 지표체계 현황 (2018. 2. 기준) - 지표범위

지표체계		지표수							
「e-나라지표」		740 (1109)							
「국가주요지표」		103 (283)							
「국민 삶의 질 지표」		80							
「녹색성장지표」	녹색성장정책지표	2011	30	2013	28	2015	18(18)	2017	22(17)
	OECD녹색성장정책지표	2011	22						
	녹색생활실천지표	2011	41	2013	46	2016	29		
	녹색생활성과지표	2011	13	2013	13	2013	13		
	지속가능발전지표	2012	77	2014	77	2016	84		
	환경성과지수(EPI)	2012	22	201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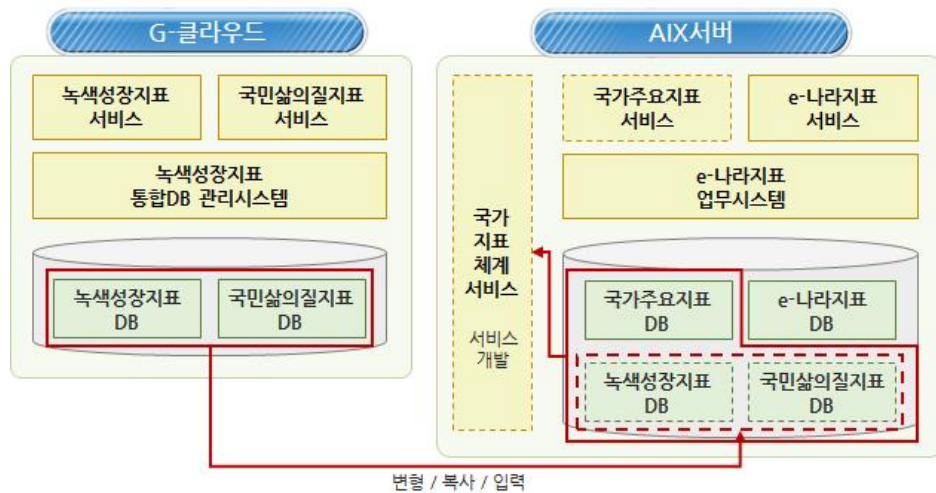
## 4.2.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 방안

### 4.2.1. 서버구성 방안

기존에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와 「녹색성장지표」 통합DB관리시스템이 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e-나라지표」, 「국가주요지표」와 「e-나라지표」 관리시스템이 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전산서버에 구축되어 있다.

「국가주요지표」 시스템 기반으로 통합서비스가 운영되므로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녹색성장지표」의 데이터만 통합전산서버로 이관하여 서비스를 구현하며, 프로토타입 구현으로 인해 관리시스템 및 영역별 서비스 등 포함하지 못한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 G클라우드 서버 운영을 유지하고 통합전산서버 위에 통합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차후 모든 영역에 대해 통합이 이루어지면 IT자원 확장 및 관리가 용이한 G클라우드 서버로 서비스 이관이 필요하다.

[그림 4.2] 통합서비스 서버구성



#### 4.2.2. 메인화면 구성

시스템 민원을 기반으로 파악한 주된 사용자층은 통계관련 종사자, 연구원, 일반인 등으로 웹 서비스에 전문적이지 않은 사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기보다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였고, 다양한 정보보다 한 곳에서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행정기관 웹사이트로써 지속성과 가용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메인화면의 용량 및 부하를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첫 화면으로의 접근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이나 동적모듈을 최소화하고 경량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최적의 가용성을 보유한 메인화면을 구현해야 한다.

그러한 의견을 모아 3가지 안을 준비하여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첫째로, 각 지표체계를 나열하여 지표체계를 한 눈에 확인 가능한 구성이었으나 각 지표체계의 의미에 대해 사용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지표 접근단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다. 둘째로, 이용률이 높거나 최근 업데이트 된 지표목록으로 구성하여 지표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최근 관심사에 대한 파악이 용이 하도록 하였으나 지표체계의 의미전달이 어려웠다. 셋째로, 앞선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지표체계의 캐치프라이즈와 지표체계의 인기목록을 같이 구성하여 시스템의 의미전달 및 최근 관심사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나 역시 지표 접근단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림 4.3] 메인화면 구성안

지표체계(1안)	인기·최신지표(2안)	지표체계·지표목록(3안)

결과적으로 사용자 이해를 도와줄 캐치프라이즈와 최신지표 목록을 통해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표목록 메뉴를 추가하여 지표접근이 용이 하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해야한다.

- 1) 체계선택 : 국가지표체계와 「e-나라지표」를 선택하여 이동
- 2) 상단 메뉴 : 국가지표체계의 주요 콘텐츠를 클릭하여 이동
- 3) 검색 : 키워드를 입력한 후 엔터키 혹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 4) 좌측 메뉴 : 전체지표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지표명을 클릭하여 지표정보를 확인
- 5) 지표안내 : 조회수를 기준으로 TOP5 지표를 보여주며 클릭시 세부정보를 안내
- 6) 게시판 : 최신지표와 공지사항 정보를 확인
- 7) 팝업존 : 주요 공지사항 등을 안내하는 영역
- 8) 배너 : 통계청 주요 서비스를 이용
- 9) 하단메뉴 : 운영규정, 이용약관, 저작권정책, 사이트맵 등을 안내

[그림 4.4] 메인화면 구성안 최종



좌측의 지표선택 메뉴의 경우 펼침 형식으로 구현하며, 전체지표일 경우와 각 지표체계일 경우에 따라 각각 속해있는 지표목록을 반영해야한다. 특히 전체지표의 표현을 위해 전체 지표체계를 포함하기 위한 영역을 생성하고 각 지표체계의 지표들을 해당 영역에 분배해야한다.

[그림 4.5] 지표선택 메뉴

영역별	국가주요지표	국민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성장과 안정 (17)	성장과 안정 (12)	소득·소비·자산 (8)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5)
고용과 노동 (14)	고용과 노동 (10)	고용 임금 (6)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5)
소득과 소비 (12)	소득과 소비 (5)	사회복지 (3)	녹색창조 산업 생태계조성 (5)
인구 (2)	인구 (2)	주거 (5)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5)
가족 (9)	가족 (5)	건강 (9)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2)
건강 (16)	건강 (9)	교육 (9)	
교육 (14)	교육 (7)	문화·여가 (6)	
문화와 여가 (11)	문화와 여가 (6)	가족·공동체 (7)	
범죄와 치안 (14)	범죄와 치안 (6)	시민참여 (7)	
사회통합 (17)	사회통합 (11)	안전 (9)	
주거와 교통 (14)	주거와 교통 (10)	환경 (8)	
생활환경과 오염 (9)	생활환경과 오염 (7)	주관적 웰빙 (3)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17)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8)		
기후변화와 에너지 (14)	기후변화와 에너지 (5)		
주관적 웰빙 (3)			
범영역 이슈 (3)			

### 4.2.3. 지표서비스 구성안

서비스는 각 지표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소개와 지표목록, 그래프목록이 있고 전체지표에 대한 최신목록과 조회Top목록으로 구성하며, 사용자 편의 및 시스템 알림을 위해 공지사항, 이용안내, FAQ, 묻고 답하기를 구현한다.

전체 지표체계 혹은 각 지표체계별로 영역에 따라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지표의 이름, 최근시점, 최근 수치, 단위, 출처를 보여주는 목록형과 지표이름, 그래프를 보여주는 차트형으로 구현한다. 또한, 목록형의 경우는 페이지를 통해 다음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차트형은 더 보기 방식으로 이미지 트래픽을 고려하여야한다.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경우 영역별 지표 추세와 종합상황표가 중요시되어 기존 시스템으로의 팝업화면을 구성한다.

[그림 4.6] 지표서비스 목록

지표목록형	지표차트형	종합상황표



상세 지표정보는 그래프, 통계표, 정의, 해설, 관련 용어, 지표목록, 최근 갱신일, 입력예정일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구성한다.



- 1) 다운로드 버튼 : 그래프를 PNG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여 다운로드
- 2) 확장 버튼 : 새창에서 열어 그래프를 확대된 모습으로 조회
- 3) 그래프 범례 : 범례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차트에 출력되는 항목을 선택
- 4) 지표 목록 :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를 클릭하여 통계표 등 세부 내용을 확인

[그림 4.7] 지표상세정보


HOME > 국가주요지표 > 주거와 교통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최근 갱신일 : 2017-11-02 (입력 예정일 : 2018-11-30)

---

**그래프** ①  ②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③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통계표**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12.0	11.8	11.1	10.5	10.7	10.1	9.4	9.1	8.4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분석시스템, 「교통사고통계분석」, 201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주석:** 1)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총인구) × 100,000.  
 2)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3)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며, 현 자료는 2016년에 작성한 자료로 중위추계 결과임.

**정의**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임,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

**해설**

자동차는 통행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의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0년 21.8명에서 2016년 8.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여전히 선진국들의 2~3배 수준에 이른다.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도 2000년 617.9건에서 2016년 431.1건으로 30.2% 감소하였지만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 등을 제외한 여러 선진국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관련용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의미함.  
 교통사고사망: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함.

**지표목록**

④ **주요지표:**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년, 1970 ~ 2016)  
**보조지표:**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년, 1970 ~ 2016)  
**국제지표:** OECD 주요국의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년, 1970 ~ 2016)  
**국제지표:** OECD 주요국의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년, 1970 ~ 2016)



서로 다른 지표체계를 통합하면서 중복된 지표가 존재하였다. 중복에는 통계수치가 같은 경우와 지표명이 같은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각 지표의 정의 및 해설 등 상세내용이 같지 않으므로 각각 다른 지표로 입력하고, 지표목록에서 하나의 지표로 표시하되 지표체계의 이름표를 표기하여 중복에 대한 처리를 해야한다. 이름표의 우선순위는 국가지표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순을 기본으로 하여 해당 지표체계의 목록일 경우 우선순위를 가장 앞으로 변경한다. 지표선택시 가장 우선하는 지표체계의 지표로 이동하며, 다른 지표체계의 이름표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지표체계의 중복 지표로 이동한다.

[그림 4.8] 중복지표 표기

지표명	자료	단위	시점
고용률	66.6	%	2017
근로시간	42.8	시간	2017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2,474	천원	2016

<표 4.2> 중복지표 목록

중복형태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지표수치 중복	지니계수	지니계수	
	저임금근로자비율	저임금 근로자 비율	
	기대수명	기대수명	
	비만율	비만율	
	문화여가비지출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선거투표율	투표율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	
	주거면적 (1인당)	1인당 주거면적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도로 사망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 총배출량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명 중복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독거노인비율	독거노인 비율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고등교육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율	
	사회단체참여율	사회단체 참여율	
	일자리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고용률	고용률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통합검색은 재현율보다 정확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풀 텍스트가 아닌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검색모델을 구현하였지만, 사용자가 메타데이터의 구조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텍스트에 대해서도 검색을 수행하도록 검색모델을 구성해야한다.

서비스 특성에 맞도록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를 한 번에 검색하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각 지표에 대한 키워드를 지정하여 키워드를 통한 검색도 가능하도록 한다. 총 208개 키워드에 대해 102개 지표를 연결하며, 별도의 기능이 아닌 통합검색에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한다.

또한,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검색어 추가,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현하며, 정렬 기능을 적용하여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우선하여 노출되도록 고려해야한다.

- 1) 통합검색 : 새로운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할 때 사용
- 2) 검색 키워드 :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를 나열, x버튼을 눌러 삭제
- 3) 검색 키워드 추가 : 현재 검색 결과에 새로운 검색 키워드를 추가
- 4) 검색결과 필터링 : 지표정보, 통계표, 키워드 별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
- 5) 정렬방법 : 정확도순, 최신 업데이트순, 가나다순 선택

[그림 4.9] 키워드 검색



### 4.3. 서비스 개선 방향

#### 4.3.1. 시스템 운영 및 관리

2006년 「e-나라지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1년에 다른 서버에 녹색성장지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후에 「e-나라지표」 시스템에 「국가주요지표」 서비스가 추가되고 「녹색성장지표」 시스템에는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수가 추가되어 운영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e-나라지표」를 제외한 「국가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를 국가지표체계라는 하나의 서비스로 구현하여 「e-나라지표」 시스템 안에 4개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의 보도자료, 분석보고서 및 영역별 지표보기, 국내외 동향에 대한 콘텐츠는 국가지표체계의 기존 시스템에서 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합서비스에서 생략되어 기존의 「녹색성장지표」 시스템은 여전히 다른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지표관리와 시스템 운영, 지표체계 개념정의 등 숙제가 남아있으며, 지표관리 시 통합시스템과 기존시스템의 중복관리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앞으로 국가지표체계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녹색성장지표」의 통합되지 못한 콘텐츠를 추가 구현해야하며, 첨부파일, 영역별 지표, 국내외 동향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지표체계 확장성을 고려해야한다. 「국가주요지표」와 「e-나라지표」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표점검과 운영현황 기능을 통합된 지표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하며, 지표담당자 관리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다양한 지표체계가 하나로 통합 서비스하면서 지표체계 사이의 중복 및 유사함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와 안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13개 지표의 수치중복과 8개 지표명 중복이 있다. 수치중복 지표에 대해 단일화를 하거나 차이점을 강화해야하며, 중복된 지표명을 지표내용에 맞게 구분 해야한다. 또한, 지표체계의 정확한 정의를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기능을 통해 혼동을 제거하고, 통합한 지표들에 대한 강력한 비교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통계활용도를 높여야한다.

<표 4.3> 지표데이터 항목비교

항목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지표명	○	○	○
지표관리주기	○	○	○
지표출처	○	○	○
지표정의	○	○	○
지표해설	○	추가	추가
지표용어	○	추가	추가
산식/측정방법	○	○	○
통계표명	○	추가	추가
통계표단위	○	○	○
통계표 항목/분류	○	추가	추가
통계표	○	수정	수정
그래프명	○	추가	추가
그래프	○	수정	수정
긍정방향	X	생략	생략
최근추세	X	생략	생략

#### 4.3.2. 서비스 이용 분석

국가지표체계 프로토타입으로 서비스하기위해 「국가주요지표」,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가 하나의 채널로 구현되고 있다. 이제 대국민 서비스로써 국가지표체계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현재 서비스의 시스템 로그는 방문자수, 조회수와 같은 단순히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집계만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획하려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요구사항 정의가 필요하며, 웹 로그 분석, 웹 마이닝, 사용자 만족도 조사와 같은 이용 패턴과 사용자 의견 분석이 중요하다. 때문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고려한 시스템 로그 수집 기능과 만족도 설문조사 기능을 추가 구현해야만 한다.

특히, 시스템 유입 경로, 서비스 내의 이동 흐름 및 활동을 파악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메뉴에 대한 이용률 분석을 통해 비슷한 성격의 메뉴를 통합하고 전체 메뉴를 단축하여 메뉴의 이해성, 항해성, 간결성을 높이는 꾸준한 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 4.3.3. G클라우드 이관

가상화 기술과 분산처리 기술을 통해 정보자원을 가상화된 자원으로 필요한 만큼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부각 되면서 기존의 통합전산서버보다 효율적인 G클라우드 서버로 시스템들이 이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가지표체계 통합서비스는 「국가주요지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면서 통합전산서버에서 구현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추후 대국민 서비스의 특성상 급작스러운 동시접속자 증가나 다양한 보안공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G클라우드 서버로의 이관은 필수적이다. G클라우드에 전환하기 위해 제공되는 표준환경에 맞게 응용프로그램 변환 및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해야한다.

## 5. 국가지표체계 관리 및 발전방향

지난 10여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지표 작성 및 발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10년 이후 한국의 주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성장지표」,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등이 지표체계가 개발되고 통계로부터 지표가 작성되어 기존의 국정 모니터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e-나라지표」와 함께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체계가 만들어지고 작성되어 그 내용과 분류, 형식 등에 있어 서로 독립적이며 그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표들이 서로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중복이 존재하거나, 중복 혹은 유사한 내용을 다룸에 있어 통계 자료의 출처 혹은 계산 방식이 달라 서로 값이 달라지는 경우 이용자들은 혼란스럽게 되고 궁극적으로 통계지표들의 신뢰도나 이용의 편리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낳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의 비교를 통해서 서로의 위상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립하고자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지표들 간의 위상관계를 정립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 「국가주요지표」는 기존의 작성 목적인 국가발전 및 국민삶의질 수준 측정으로부터 국가발전의 측정으로 목적을 단일화한다. 그 결과 「국가주요지표」는 국가발전지표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되고 또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국가주요지표」와 유사, 중복되는 지표들이 있을 경우 내용과 통계 출처, 제시방식 등에서 일치하도록 한다.
- 「사회지표」는 사회의 현황과 변화, 그리고 국민 삶의 질 측정이라는 목적을 유지하되, 「국민 삶의 질 지표」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한 지표로서 「국민 삶의 질 지표」와 영역 설정 및 지표 내용의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개편 과정에서 노력한다.

이러한 지표 간의 위상 및 관계 설정과 내용 및 형식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지표들의 활용도와 이용자 편의가 높아지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표들 간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지속되려면 국가지표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발전방향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관리 및 생산, 서비스하는 지표들은 하나의 온라인 도메인에서 제시되고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찾아 필요한 지표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편리하다. 하지만 통합적으로 서비스되는 지표들의 내용들은 각각 독립적이고 상이한 형식을 가진 DB로부터 제공될 뿐 아니라 이들의 개편과정 또한 상이하게 결정 및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되는 지표들의 관리 및 향후 개편을 총괄할 통합적 발전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여러 지표들을 총괄하는 관리 및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5.1. 지표 통합 도메인 구성

현재 통계청 생산 및 관리 지표들 중에서 「국가주요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는 「e-나라지표」와 함께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e-나라지표」가 국정모니터링지표로 구분되는 반면, 나머지 세 개의 지표들은 가치지향적 지표들로 구분되어 병렬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들 지표들이 서로 위상관계가 명확해져서 서로 뚜렷하게 고유한 측정 목적을 갖고 상호 보완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 경제,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 병렬적으로만 제시되는 것은 이들 지표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노력의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들 지표들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보완적으로 정책 입안과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표들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메타 명칭 혹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각 지표들은 전체 지표체계를 국가발전, 국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이라는 다양한 목적과 측면에서 실현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한 총괄체계의 일부가 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진행한 논리적 일관성, 체계와 형식의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한 노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 지표 도메인의 명칭은 핀란드의 F-indicator와 유사하게 K-indicator로 부를 수 있다. 이는 통계청이 생산 및 관리하는 지표들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표체계로서 그 안에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측정하여 국가발전, 국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각각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인 정책입안자들과 국민들이 모두 국가지표체계(k-indicators)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우리 사회 전반의 현황과 변화추세 파악을 할 수 있다면 통계지표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2. 지표들의 종합과 요약: 대표지표 선정

지표들은 관심 가치 및 목적을 반영하여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과 변화추세를 보여준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종합적이고 요약된 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많은 지표들은 종합적이고 요약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이러한 종합적 요약 정보의 필요는 현실이 좋은지 나쁜지, 변화의 방향이 개선인지 악화인지를 지표들로부터 판단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들과 국민 일반의 필요와 요구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 대해 다양한 지표값들을 대표하는 종합지수(index)를 작성할 것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종합지수 작성이 간편하게 지표들을 요약해서 현실에 대한 단순화된 판단에 도움을 주는 장점과 더불어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되어 왔다. 종합지수 작성에 대한 우려 혹은 반대의견은 대부분 개별 지표값들이 전체 요약값에 미치

는 영향 즉 지표값들의 가중치(weight)를 정하는 과정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자의적으로 가중치가 부여될 경우의 문제에서부터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가중치를 정할 경우 국민들의 관심이나 시선과 어긋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종합지수 작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들은 주요 지표별로 대시보드(dash-board)를 작성해서 개선과 악화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다. 색깔이나 이미지 등을 동원해서 대시보드를 작성하면 일목요연하게 개선되는 지표들이 많은지 아니면 악화되는 지표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요지표들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시보드는 여러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요약적이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대시보드의 활용은 이러한 면에서 지표의 요약보다는 사회적 보고서(social reporting)의 총괄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처럼 여러 지표들을 포괄할 경우 각 지표들에 대해 대시보드를 제공할 경우 여전히 복잡하게 보인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종합지수와 대시보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지표들을 대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 지표들을 대표하는 대표지표(headline indicator)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때 대표지표는 각 영역들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여러 지표체계들을 망라하는 대표지표들이다. 즉 다양한 영역들에 걸쳐 여러 가치를 대표하는 지표들인 셈이다. 대표지표를 선정해서 전면에서 제시하는 것과 함께 여러 지표들을 포괄하는 통합 영역의 제시 또한 도움이 된다. 이용자들이 지표를 찾고 지표 정보를 얻는 경로가 한편에서는 「국가발전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등 다양한 지표체계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발전, 삶의 질,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알고 싶을 경우 해당 영역으로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핀란드 통계청은 f-indicator 도메인(<https://findikaattori.fi/en/>)에서 지표들을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지표들을 비교하여 이들을 포괄하는 영역들로서 다음과 같은 17개의 통합 영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경제부문(4개): 성장, 안정,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자산
- 환경부문(3개): 생활환경, 생태환경, 기후변화와 에너지
- 사회부문(10개): 인구, 건강, 교육, 여가, 범죄와 사법정의, 안전, 가족과 가구, 사회통합, 주거와 교통, 주관적 웰빙

한편 통합 도메인에서 제시할 대표지표들로는 부록에 첨부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이용자들의 방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10대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 경제부문
  - 경제성장률(국가발전지표 성장 영역)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국가발전지표 안정 영역)



- 고용률 (국가발전지표 고용과 노동 영역, 삶의질 지표에서는 실업률)
- 1인당 국민총소득(국가발전지표 소득, 소비, 자산 영역)
- 환경부문
  - 미세먼지농도(PM2.5)
  - 온실가스 배출량
- 사회부문
  - 기대수명(국가발전지표 건강 영역)
  - 여가시간(국가발전지표 여가 영역)
  - 1인당 주거면적(국가발전지표 주거와 교통 영역)
  - 삶에 대한 만족도(국가발전지표 주관적 웰빙 영역, 삶의질 지표)

### 5.3. 지표 관리와 검토: 국가지표 검토위원회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본 연구에서 비교 검토한 「국가발전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 등의 지표체계들은 지표의 내용 뿐 아닌 지표체계 관리방안 또한 서로 다르다.

「국가발전지표」의 경우 지표체계는 영역마다 하위영역을 두고 있으며, 영역과 하위영역, 지표에 이르는 지표체계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은 필요에 따라 외부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외부용역 수행을 통해 지표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변화의 방향은 어떠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모호하다. 또한 「국가발전지표」에 대한 문제제기나 변화의 요구가 제기될 경우 이를 심의할 주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경우 체계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개선이나 업데이트는 별로 없었지만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삶의질 지표의 항목 및 내용 제시방식에까지 논의를 통해 지표를 변화 발전시키고 있다.

「사회지표」의 경우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전반적 개편 작업을 수차례 수행함으로써 체계와 지표 들이 크게 변화해 왔다.

지표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지표체계가 완벽하기 어렵다는 사실 외에도 지표가 측정하는 외적 현실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정보기술발전, 글로벌화, 그리고 가치변화 등 외적 현실 변화는 때로는 지표들의 의미를 바꾸거나 더 나아가 지표의 필요성을 없앨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새로운 지표를 포함시킬 필요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지표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 개선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기구를 여러 지표들을 통합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표체계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은 지표체계 및 지표 선정 등과 관련하여 정부부처와 기관의 요청 및 외부로부터의 문제 제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방법의 모색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들의 개선 및 업데이트 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 ‘국가지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안목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지표 검토위원회는 해당 영역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지표체계 및 개별 지표들에 대해 제기된 내부, 외부의 문제 제기 내용을 심의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표 작성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표체계 및 지표 선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표검토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지표 혹은 지표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시에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표들을 총괄하는 지표검토위원회와 함께 국가지표체계(k-indicator) 홈페이지에서 여러 지표들을 검색하고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대한 자료의 수집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만으로는 지표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국민들의 관심있고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의견 조사와 함께 이용자들의 온라인에서의 로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지표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이나 반응을 지표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3. 『국가주요지표 연구 I : 지표체계』.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6. 『국가주요지표 개편연구』.
- 통계개발원, 한국사회학회.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 [부록 1] 「국가발전지표」 안과 「국민 삶의 질 지표」 개편안

## <부록 1.1> 「국가발전지표」 안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성장	성장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생산성	시간당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지수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영업이익률	시간당 노동생산성
	투자	총고정투자율	고정자산비율(GDP 대비)	총고정투자율	총고정투자율
		인적자원	교육연수	공교육지출비율(GDP 대비)	공교육지출비율(GDP 대비)
	기업동학	창업률	벤처기업수	벤처기업수	창업률
			기업소멸률	기업소멸률	
	혁신	연구개발투자비율(GDP 대비)	특허출원수(인구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GDP 대비)	특허출원수(인구 대비)
	글로벌화	수출입비율(GDP 대비)	상대국별 수출비율	상대국별 수출비율	수출입비율(GNI 대비)
			상대국별 수입비율	상대국별 수입비율	
			외국인직접투자비율(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비율(GDP 대비)
거주자해외직접투자비율(GDP 대비)			거주자해외직접투자비율(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GDP 대비)		
안정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GDP 대비)	국민부담률	통합재정수지비율(GDP 대비)	
			정부지출비율(GDP 대비)		
			정부지출구성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GDP 대비)		
			공공부문부채비율(GDP 대비)		
	대외안정	대외채무비율(GDP 대비)	경상수지비율(GDP 대비)	대외채무비율(GDP 대비)	
		외환보유액비율(GDP 대비)	경상수지비율(GDP 대비)		
		단기대외채무비율(외환보유액 대비)			
금융안정	BIS자기자본비율	고위험가구비율	가계부채비율(GDP 대비)	가계부채비율(GDP 대비)	
고용과 노동	고용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장기실업률	장기실업률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	
			중고령자고용률		
	고용형태	비임금근로자비율	비임금근로자비율	비임금근로자비율	
			비정규직근로자비율	한시적근로자비율 시간제근로자비율	한시적근로자비율 시간제근로자비율
	임금	시간당 임금	월평균 임금		
		임금5분위배율	여성근로자임금비율(남성근로자 대비)	여성근로자임금비율(남성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임금비율(정규직근로자 대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저임금근로자비율	저임금근로자비율	
			최저임금비율(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중위임금 대비)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	
근로조건	근로시간	취업자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재사망률	산업재해율			
		장시간근로자비율			
일만족	일자리만족도	임금만족도			

(표 계속)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근로시간만족도 일생활균형만족도	
	노사관계	노동조합조직률	근로손실일수	노동조합조직률
소득·소비·자산	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
		가구중위소득	가구소득원천구성 가구처분가능소득 소득만족도	
	자산	가구순자산	가계저축률 가구순자산비율(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소득 대비)	가계저축률 가구순자산비율(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소득 대비)
	소비	가구중위소비	민간소비지출비율(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생활만족도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노인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생활물가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상승률
인구	인구변화	인구성장률	총인구 합계출산율 조사망률 체류외국인수	인구성장률 합계출산율 조사망률
	인구구조	부양인구비	고령화지수	부양인구비 고령화지수
가족	가구형성	가구원수 조혼인율	1인가구비율 조이혼율	가구원수 조혼인율 조이혼율
	가족관계	가족관계만족도 가사노동시간 독거노인비율		가사노동시간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건강수명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경험률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행태	현재흡연율 월간폭음률 비만율	신체활동실천율	현재흡연율 비만율 신체활동실천율
	보건의료서비스	1인당 의료기관방문횟수 암생존율 경상의료비비율(GDP 대비)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의료서비스만족도	1인당 의료기관방문횟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암생존율 경상의료비비율(GDP 대비)
교육	교육기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취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취학률
	교육과정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교육효과	고등교육이수율	TIMSS성취도 학업중단율	고등교육이수율 TIMSS성취도

(표 계속)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여가	여가자원	문화여가지출률	1인당 문화재정	문화여가지출률	
		여가시간	휴가활용률	여가시간	
	여가활동	문화예술관람률		문화예술관람률	
		생활체육참여율	스포츠관람률		
여가결과	여가생활만족도				
주거와 교통	주거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주택월세가격변동률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주거의 질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인구 1000명당 주택수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주거환경만족도	주택만족도		
	교통인프라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차량통행속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통근시간	장시간통근통학인구비율	통근시간	
	교통안전	도로교통사고사망률	도로교통사고발생률	도로교통사고사망률 도로교통사고발생률	
	범죄와 사법정의	범죄발생	범죄율		범죄율
		범죄피해	범죄피해율		
범죄피해두려움			야간보행안전도	범죄피해두려움	
치안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	
	기소율				
	재범률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			
사회통합	시민성	선거투표율		선거투표율	
		부패인식지수	공정성인식 기관신뢰도 준법의식	부패인식지수	
		연대	사회단체참여율 자원봉사참여율		
	연대	대인신뢰도		대인신뢰도	
		사회적 고립도		사회적 고립도	
	포용성	사회이동가능성인식	여성관리자공무원비율 소수자포용성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행복도		삶의 만족도
자살률				자살률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미세먼지농도(PM2.5)	미세먼지농도(PM10)	미세먼지농도(PM2.5)	
		수질	4대강 BOD농도	4대강 COD농도 4대강 TP농도	
	폐기물	먹는물수질기준초과율	상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	
		폐기물발생량	폐기물재활용률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	
	유해물질	화학물질배출량	화학사고발생건수		
	환경관리	환경산업비율(GDP 대비)	환경보호지출비율(GDP 대비)	환경보호지출비율(GDP 대비)	
	환경만족	체감환경만족도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자생생물종수	멸종위기야생생물종수	자생생물종수 멸종위기야생생물종수
육상생태			유기농경작면적률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산지타용도전환면적	유기농경작면적률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해양수산		총허용어획량소진율			
		연안습지면적	해양보호구역면적	연안습지면적	
수자원		1인당 물사용량	취수율	1인당 물사용량	
		상수도누수율		상수도누수율	

(표 계속)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
	자연재해	자연재난피해액	자연재난발생횟수	
	1차에너지	1차에너지공급량(GDP 대비)		1차에너지공급량(GDP 대비)
	전력	1인당 전력소비량		1인당 전력소비량
		석탄화력발전비율	사용후핵연료발생량	석탄화력발전비율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율	신·재생에너지공급량	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율

<부록 1.2> 「국민 삶의 질 지표」 개편안

영역	2018 국민삶의질지표	
소득·소비·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당 국민총소득(GNI)</li> <li>가구중위소득</li> <li>가구중위소비</li> <li>가구순자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만족도</li> <li>소비생활만족도</li> <li>상대적 빈곤율</li> <li>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i> </ul>
고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li> <li>고용률</li> <li>실업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임금근로자 비율</li> <li>근로시간</li> <li>일자리만족도</li> </ul>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li> <li>통근시간</li> <li>1인당 주거면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환경만족도</li> <li>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li> <li>자가점유가구 비율</li> </ul>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수명</li> <li>주관적 건강상태</li> <li>신체활동실천율</li> <li>스트레스인지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혈압유병률</li> <li>비만율</li> <li>자살률</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교육비부담도</li> <li>대학졸업자 취업률</li> <li>학교교육효과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교육취원율</li> <li>학교생활만족도</li> <li>고등교육이수율</li> </ul>
여가(문화·여가를 여가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시간충분도</li> <li>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li> <li>문화여가지출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시간</li> <li>여가생활만족도</li> <li>1인당 여행일수</li> </ul>
가족·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고립도</li> <li>가족관계만족도</li> <li>독거노인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단체참여율</li> <li>지역사회소속감</li> </ul>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인신뢰도</li> <li>자원봉사참여율</li> <li>선거투표율</li> <li>기관신뢰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적 역량감</li> <li>부패인식지수</li> <li>시민의식</li> </ul>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재사망률</li> <li>범죄율</li> <li>범죄피해율</li> <li>야간보행안전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교통사고사망률</li> <li>사회안전인식</li> <li>아동안전사고사망률</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세먼지농도(PM2.5)</li> <li>농어촌 상수도보급률</li> <li>대기질만족도</li> <li>수질만족도</li> <li>토양환경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음공해만족도</li> <li>녹지환경만족도</li> <li>기후변화불안도</li> <li>1인당 도시공원면적</li> </ul>
주관적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만족도</li> <li>긍정정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정서</li> </ul>

## [부록 2] 부문별 자문의견 요약

### 1. 경제 부문

<b>국가발전지표</b>	
<b>(수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 성장 영역을 보면 주요지표가 경제성장률이고 보조지표가 국내총생산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성장률이 바로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이므로 국내총생산을 별도로 보조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redundant하게 보임. 따라서 보조지표로는 국내총생산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 혹은 1인당 GNI가 더 적절하다고 보임</li> <li>생산성: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지수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에서는 지수라는 표현을 노동생산성 지수에만 사용하고 있어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지수가 아닌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음. 지수(index)의 경우에는 어차피 수준 자체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증가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음.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에도 지수의 수준보다는 상승률을 주로 사용함)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생산으로서, 개념적으로 볼 때 성장 영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과 생산성 영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중간 쪼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노동생산성을 보조지표에서 제외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노동생산성과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1인당 근로시간인데, 1인당 근로시간은 노동영역에서 따로 다루고 있음</li> <li>경제안정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국가채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라는 명칭은 서로 중복되는 것처럼 보임. 영역별 지표를 보면 재정건전성의 주요지표로 재정수지/GDP 비율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채무의 주요지표로 국가채무/GDP 비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정건정성이라는 영역 명칭을 재정수지 건전성으로 바꾸고 국가채무라는 영역 명칭을 국가채무 건전성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li> <li>소득소비자산 영역을 보면 가계저축률과 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율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개념적으로 1-가계저축률은 민간소비지출 비율과 동일하므로 하나를 제외</li> <li>근로조건 보조지표에서 장시간근로자 비중은 지표체계상 산업재해를 위해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li> </ul>
<b>(신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 영역의 보조지표에 지역별 GRDP를 추가</li> <li>고용과 노동 영역에서 자영업자 관련 통계지표 추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국가경제적 영향을 감안할 때 관련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li> <li>고용형태 비정규직 근로자 보조지표에 비전형근로자 비율 추가 필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시간제, 한시, 비전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음.</li> </ul>
<b>국민 삶의 질 지표</b>	
<b>(수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질 지표 소득소비자산 영역에 가구소득과 가구소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발전 지표의 소득소비자산 영역을 보면 가구소득은 소득 하위영역의 주요지표이고 가구소비는 소비 하위영역의 보조지표로 포함되어 있음(소비 하위영역의 주요지표는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국가발전 지표에서 소득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더 중요하고 소비의 경우에는 1인당 소비가 더 중요하게 분류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특히 소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므로 1인당 소비보다 가구소비의 크기가 더 중요할 수 있음. 두 지표 체계간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국가발전 지표체계의 주요지표가 삶의 질 지표체계에 포함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li> <li>소득·소비·자산 영역에서 개편지표인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신설대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수정.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직접적인 국민의 삶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li> <li>국가발전지표와의 체계성을 위해 임금근로자 취업시간으로 명칭 변경은 타당. 다만 삶의 질 지표 중 고용률과 실업률 이외에는 비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지표가 없으므로 취업자 근로시간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바람</li> </ul>



## 2. 환경 부문

<b>국가발전지표</b>	
<b>(삭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환경과 오염 : 환경관리(또는 환경개선노력) 주지표로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적합하나 보조지표인 'GDP 대비 환경산업 비율'은 (주지표와 보조지표는 보고서 내용 기준) 의미가 다소 상이하므로 재검토 필요, 예를 들어 환경오염배출업소 적발률 또는 위반율로 대체 등</li> </ul>
<b>(수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환경과 오염 : 대기 PM 2.5, PM 10 평균 농도 대신 기준 초과율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li> <li>기후변화와 에너지 : 1) 친환경에너지 부문 주지표를 부문의 제목에 맞게 '석탄화력발전 비율'이 아니라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공급 비율'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전자의 경우 국제 기준과 맞추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후자의 경우 국가 주요 계획, 예를 들어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예정) 등에 지표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연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비율'은 삭제하는 대신 분산형 에너지 공급 비중 등으로 대체 검토</li> <li>생활환경과 오염 : 상수도보급률 대신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지표로 수정하는 방안 검토. 4대강 COD 농도를 주지표, BOD 농도를 보조지표로 변경: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난분해성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 BOD 보다는 COD가 더 적합</li> <li>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을 자연보호지역비율을 주지표로 활용; 이 지표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지표 중의 하나이기도 함</li> <li>1차에너지공급량을 GDP 대비 1차에너지공급량으로 대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대값으로 제시되고, 전력소비가량이 1인당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1차에너지공급량은 에너지효율의 관점에서 GDP 대비로 설정</li> <li>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변경: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비율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율로 변경. 신재생에너지공급량 비율을 재생에너지공급량 비율로 변경</li> <li>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부생가스 등 화석연료기반 폐기물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만으로 비율을 설정할 필요.</li> </ul>
<b>(신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환경과 오염 : 수질분야에 4대강 수생태건강성 등급을 보조지표로 활용 검토(이화학적 수질뿐 아니라 생물 서식환경 등 하천의 건강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의 전환 필요)</li> <li>생활환경과 오염 : 토양 분야 추가 검토 필요(토양오염 기준초과율, 화학비료사용량 등)</li> <li>생태환경과 자연자원 : 수자원 분야에 '지하수 가용량'을 보조지표로 활용</li> <li>생태하천복원률 : 수생태계연결성 지표로 생태하천복원률(훼손하천연장 대비 복원하천연장 비율) 참고: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16~'20)</li> </ul>
<b>국민 삶의 질 지표</b>	
<b>(수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환경과 오염 : PM 2.5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으므로 지표를 PM 2.5로 바꾸고 평균 농도 대신 기준초과율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기후변화불안도 대신 폭염일수 또는 열대야일수 등 대체 검토: 기후변화불안도는 주관적 지표로, 실제 기후변화의 현상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 대체 필요</li> <li>폐기물 재활용률을 폐기물 발생량으로 대체: 폐기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생이후 재활용은 여러 가지 추가 비용 및 불편이 수반됨</li> </ul>
<b>(신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 수도시설 먹는 물 기준 초과율 :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의 먹는 물 수질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지표 관리 필요</li> <li>폐기물 재활용률을 삭제하는 대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또는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등 폐기물 관련 지표 추가 필요(체감 만족도에 폐기물 관련 지표가 없음)</li> <li>소음 기준 초과율, 주택 라돈 기준 초과율, 실내공기질 등</li> <li>환경성질환자 비율</li> <li>생태하천복원률: (훼손하천연장 대비 복원하천연장 비율)</li> </ul>
<b>종합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 삶의 질 지표 환경부문의 경우 사회 등 다른 부문에 비해 현재 제안된 지표의 대부분이 정성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정량지표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소음, 악취, 유해물질,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측정자료를 활용한 지표 추가 필요/삶의 질 측면에서 볼 때 환경보건, 지역간 계층간 환경서비스 격차와 접근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와 통계 구축, 조사 필요</li> <li>기후변화와 에너지 : 국가 주요 지표 중 기후변화를 온실가스와 적응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보완하는 방안 검토</li> </ul>	

### 3. 사회 부문

국가발전지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인구변화, 인구성장률, 체류외국인수: 인구변화의 세 요소는 출생, 사망, 이동이며 체류외국인수는 이 세 요소 중 이동과 관련한 지표이지만 이동 중 유입 부분만 보여주고 유출 부분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체류외국인수 보다는 입국자와 출국자, 또는 두 가지를 계산한 순이동은 어떨지</li> <li>검토필요 지표: 가족관계만족도, 가사노동시간, 우울감경험률,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의료서비스만족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학교생활만족도, 여가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주택만족도, 준법의식, 사회적 고립도</li> <li>주관적 만족도와 개인적 상태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삭제했으면 함</li> </ul>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 영역에서 현재 '여가 활동'부문에 포함된 지표 중, 주요 지표로 문화예술관람율을 설정하고 보조지표로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관람율을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다만, 활동의 실제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경험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보다는 경험정도를 보다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빈도'로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즉, 세 가지 지표 모두 관람율이나 참여율보다는 관람 빈도 및 참여 빈도로의 수정을 제안하는 바임. (문화예술 관람 빈도, 생활체육 참여 빈도, 스포츠 관람 빈도)</li> <li>교육, 교육과정,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 차리 리 교육효과로 옮기는 것이 어떨지</li> <li>가족, 가족관계, 가족관계만족도: 최근 가족에 대한 정의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가구구성원들도 매우 복잡 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만족도에서 만족을 느끼는 대상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범위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듯</li> <li>지금 수정하는 것보다는 최종안을 놓고 삶의 질 지표와의 상호 보완성 및 일관성을 고려해 정했으면 함</li> </ul>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적 웰빙: 부정적 주관영역을 측정하는 지표(예, 피로도, 스트레스, 우울인식 등)이 포함되면 더욱 좋을 듯</li> <li>여가 시간 중 비정보적 미디어 이용시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대인들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 특히 전통적인 정보탐색이 아닌 비정보적/기분전환용 미디어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시간들은 여가활동으로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임. 미디어 이용시간에 대한 측정 및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KISDI의 미디어 패널조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li>국토연구원에서 최근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발표한 바 있는데, 특히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어메 니티 부분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동 분야의 대표적인 평가지표로 "주거지 주변의 녹지비율"이 포함되어 있음</li> <li>사회통합 영역에 대기업 여성 임원 비율, 여성 장관 비율 등이 포함되었으면 함. 그리고 사회통합에서 사회단체 참여, 자원봉사 참여에 더해 정치참여(투표참여와 다른)가 포함되었으면 함</li> </ul>
국민 삶의 질 지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과연 대학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취업에 대한 정의에 따라 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삭제하는 것은 어떨지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듯</li> <li>도로교통사고사망률(안전 영역이 더 적합해 보임), 개인부담의료비 비율</li> </ul>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 영역에서 '시간부족인식'지표의 경우, 실제 측정이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 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도출되는데, 여기에는 여가 뿐 만 아니라 일과 노동 등 생활시간이 포괄적으로 포함 되고 있음. 같은 취지에서 여가영역의 성격에 보다 적합한 자료는 국민여가생활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여가 시간충분도'라고 보여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li>현재 삭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의 경우, 여행과 더불어 국민 여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은 여가 활동이라는 점에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봄. 이 때, 관람률보다는 관람빈도를 지 표로 사용하는 것이 앞서 국가발전지표와 관련하여 기술한 것처럼 여가의 실질적 파악에 보다 적절할 것을 판단됨</li> <li>문화·여가,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시간부족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장업무이기 때문에 문화·여가 영 역에 넣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할 듯(사실 기존 영역 중 어느 곳에 더 적당한지는 명확하지 않음)</li> <li>범죄두려움을 "범죄피해두려움"으로 변경</li> <li>주거의 도로교통사고사망율은 다시 안전으로 이동. 건강의 개인부담의료비비율은 삭제하고 이를 국가발전지표 에 포함</li> </ul>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 최근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매우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거 영역에 거주지역에 대한 평가 또는 인식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는 것이 좋을 듯</li> <li>여가와 관련한 동기 및 태도 지표: 행동을 태도의 외형적 표출이라고 본다면, 여가 태도와 여가 행동간에는</li> </ul>

	<p>긍정적이고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여가 동기 요인들에는 자유 시간과 여가에 대한 필요성, 욕구와 함께 신념체계와 생활양식들과 같은 문화적 요인들이 포함됨. 문화와 여가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동기를 제공한 요인들을 이해하고 측정하는 일은 여가 영역의 여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또는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특별히 중요성을 가짐. 따라서 여가와 관련한 통기 및 태도 지표를 삶의 질 지표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공동체 영역에 우울감 비율 추가. 시민참여 영역에 정치참여 포함. 시민참여 영역에 정치적 관심도 추가</li> </ul>
<b>종합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 취약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파악이 필요함. 특히 15세 미만 및 미취학 아동의 여가활동에 대한 자료는 미흡한 실정. 미취학 아동의 활동이 대부분 자유시간이나 놀이 시간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조기교육의 확산 등의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관련한 통계의 중요성은 증가함. 여가에 대한 파악이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도 집단별 공통 취약 요소와 개별 취약 요소의 파악은 매우 중요함</li> <li>• 국가발전지표에서 사회복지 영역을 삶의 질 지표에서 삭제한 것은 적절함. 다만 사회복지의 요소는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각 영역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표들을 더 포함했으면 함</li> <li>• 삶의 질 지표에서 사회부문은 크게 수정할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발전지표와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한다고 중복되는 지표들을 굳이 삭제할 필요 없음. 국가발전에 삶의 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가발전지표의 1/3 또는 1/4은 삶의 질 지표와 동일하게 가져갔으면 함</li> </ul>	

### [부록 3] 「국가주요지표」 시스템 로그 분석 결과

#### <부록 1.1> 「국가주요지표」 방문자 추이

국가지표체계		
시스템	메인페이지 접속자수	41,928
	웹 메인페이지 접속자수	41,928
국가주요지표		
지표	지표수	103
	지표조회수	334,529
	웹 지표 조회수	321,640
	모바일 지표 조회수	12,889
부문별 지표 조회수	경제	113,043
	사회	21,669
	환경	3,820
	경제.사회	140,649
	사회.환경	6,903
	경제.환경	8,335
	경제.사회.환경	40,110
	<b>소계</b>	<b>334,529</b>
영역별조회수	성장과 안정	113,043
	고용과 노동	25,933
	소득과 소비	106,785
	인구	9,786
	가족	6,369
	건강	11,770
	교육	7,931
	문화와 여가	7,673
	범죄와 치안	6,894
	사회통합	7,102
	주거와 교통	12,185
	생활환경과 오염	6,903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3,820
	기후변화와 에너지	8,335
	<b>소계</b>	<b>334,529</b>

<부록 2.2> 「국가주요지표」 지표 순위별 조회수

지표 조회 순위	국가주요지표		지표 조회 순위	국가주요지표	
	지표명	조회수		지표명	조회수
1	소비자물가상승률	98,433	53	비만을	1,087
2	경제성장률	96,285	54	비정규직근로자비율	1,071
3	고용률	12,382	55	산재사망률	1,050
4	인구성장률	7,087	56	노동생산성 (시간당)	1,020
5	범죄율	3,922	57	재범률	1,016
6	지니계수	3,768	58	경찰관수 (인구 10만 명당)	881
7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3,459	59	총허용어획량소진율	837
8	민간소비지출액 (1인당)	3,418	60	사교육비 (학생 1인당)	827
9	비임금근로자비율	3,353	61	주택전세가격변동률	816
10	대중교통수송분담률	3,039	62	부패인식지수	804
11	주택수 (인구 1,000명당)	2,907	63	문화여가비지출률	803
12	혼인율 (조혼인율)	2,879	64	음주율 (월간 폭음률)	706
13	부양인구비	2,699	65	화학물질배출량	700
14	전력소비량 (1인당)	2,608	66	노동소득분배율	689
15	주택매매가격변동률	2,445	67	창업률	683
16	암생존율	2,352	68	석탄화력발전비율	645
17	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2,184	69	가사노동시간	610
18	기대수명	2,183	70	유기농경작면적률	568
19	자연재해피해액	2,175	71	먹는물 수질기준초과율	544
20	임금5분위배율	2,162	72	공교육비비율 (GDP 대비)	543
21	공적연금수급률	1,981	73	기소율	526
22	가구소득	1,950	74	여가만족도	518
23	경상의료비비율 (GDP 대비)	1,927	75	선거투표율	494
24	연구개발투자비율 (GDP 대비)	1,925	76	물사용량 (1인당)	472
25	미세먼지(PM2.5) 농도	1,919	77	가족관계만족도	435
26	고등교육이수율	1,913	78	주거면적 (1인당)	432
27	임금근로자근로시간	1,847	79	삶의 만족도	428
28	여가시간	1,778	80	통근시간	370
29	문화예술관람률	1,768	81	통합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362
30	4대강 BOD 농도	1,762	82	일자리만족도	359
31	저임금근로자비율	1,756	83	학교생활만족도	340
32	가구순자산	1,704	84	우울감경험률	329
33	폐기물발생량	1,640	85	범죄피해율	295
34	의료기관방문횟수 (1인당)	1,619	86	주택임대료비율 (소득 대비)	274
35	취학률	1,604	87	건강보험보장률	274
36	외국인직접투자비율 (GDP 대비)	1,560	88	범죄두려움	254
37	온실가스배출량	1,492	89	자생생물종수	230
38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1,480	90	주관적 건강상태	217
39	기초학력미달률	1,435	91	주택월세가격변동률	217
40	생활체육참여율	1,420	92	연안습지면적	214
41	신·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비율	1,415	93	총고정투자율	206
42	수출입비율 (GNI 대비)	1,399	94	주거환경만족도	205
43	인터넷이용률	1,386	95	공적개발원조비율 (GDP 대비)	192
44	여성국회의원비율	1,373	96	환경향상체감도	180
45	흡연율 (현재 흡연율)	1,350	97	사회단체참여율	179
46	가구원수	1,334	98	사회적 고립도	173
47	국민총소득 (1인당)	1,280	99	환경산업비율 (GDP 대비)	158
48	학생수 (교원 1인당)	1,269	100	대인신뢰도	155
49	노동조합조직률	1,264	101	상수도누수율	147
50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1,263	102	산지타용도전환면적	89
51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GDP 대비)	1,153	103	사회이동가능성인식	88
52	독거노인비율	1,111		계	334,529